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3월 13일 수요일 (주간) 제 360 호



법석 조대 **석천 스님** 한산사 주지



"생명을 품어주고 살려주는 그 순간에 보살심의 씨앗이 뿌리고 언젠가는 그 씨앗에서 줄기가 나고 잎이 돋고 열매가 익습니다.

"하나의 화두를 타파하여 1700공안을 다 열어버리듯 오직 하나의 자기본성에 계합하면 자기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행자교육원 상설화 '가물가물'

사찰간 조율 안돼 조계종 올 사업계획서 제외

일부선 대안으로 중앙연수원 거론

조계종이 행자교육원을 설치한 지 12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상설 교육도량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0일 제22기 행자교육원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상설 도량 설치는 여전히 요원하다. 일각에서는 종단과 스님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승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계종 교육원은 올해 사업계획에서 행자교육원 상설화 문제를 아예 제외한 상태다. 교육원장 무비스님은 "지난 몇 년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다"면서 "지도자급 스님들의 협조가 없는 한 행자교육원 상설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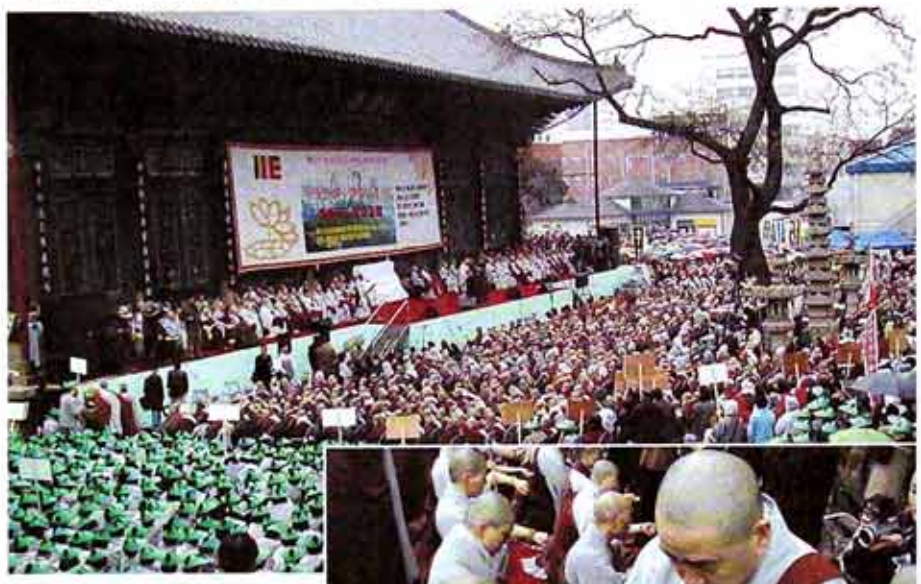
실제로 교육원은 상설행자교육원 건립을 종단 숙원사업으로 정하고 2000년에 행자교육원 건립추진위를 발족시키는 등 지난 5년여 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행자교육원 설치가 가능한 일부 교구본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월정사와 금산사 말사 안심사는 지난해 말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으나 다른 사찰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통도사 취운암과 해인사 등도 상설행자교육원 설치 의사를 밝힌 적이 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내 절'에 설치될 경우 '큰 짐'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다른 사찰에 설치될 경우 종단 승가교육의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기주의' 때문이다. 상설행자교육원을 설치할 의지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찰 내 설치가 어렵게 되자, 상설행자교육원을 신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도량을 건립하는 데 드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일부 승가교육 관계자들은 교구본사들이 참여하는 중앙연수원 건립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사찰 내에서나, 종단차원의 상설행자교육원 건립이 불가능하다면, 중앙연수원을 건립해 행자교육원과 스님들의 각종 연수 및 재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 하다"며 "이는 교구본사들의 협조를 끌어내기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행자교육원 건립추진위원장 무관스님은 "실질적인 행자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재 21일인 교육기간을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설도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종단과 스님들의 의지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6일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에서 열린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결의대회'(위). 범불교도 결의대회에 참가한 비구니스님들이 연비의식을 통해 결연한 환경 수호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했다. 사진=김두식 기자

'불심으로 인류평화 성취' 봉축 표어·일정 확정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정대스님) 기획단은 5일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의 봉축표어를 확정했다.

봉축기획단은 올 봉축행사를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의 개최에 맞춰 한국전통의 불교문화를 세계인에 보여준다는 큰 틀 속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드컵 성공기원의식, 월드컵 등표 부착, 축구공등 설치, 외국인 등경연대회 개최, 외국어 리프렛 배치 등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수행환경 파괴사업 백지화"

불자 1만여명 범불교도 결의대회서 촉구

"정부와 자치단체는 환경보존정책을 최우선하여 시행하라."

범불교도결의대회 추진위원회(위원장 성타)는 5일 조계사에서 전국교구 본 말사, 강원 · 선방 스님, 신도, 환경단체 회원 등 1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결의대회'를 열고, 비구니 스님 폭행사건에 대한 정부와 해당기업의 공식적인 사과와 사찰수행환경을 침해하는 국책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좁나의 이익에 집착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1만여 참석대중은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청화스님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불교도들이 자연 문화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앞장서자"며 △북한산 관통 순환도로, 금정산 · 천성산 고속철도 구간 전면 백지화 △조계사 앞 고층건물 건축허가 취소 △비구니 스님 폭행 LG건설 관련자 문책 등 14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이날 모인 사부대중은 또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현장에서 죽은 나무들을 위한 천도재와 30여 불자 연비의식을 통해 환경수호 의지를 다졌다.

대회가 끝난 후 스님, 신도 등 2천여명은 우정국로에서 108배 참회정진을 하며 무리한 국책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했다.

한편 범불교도결의대회 추진위는 이날 대회 후 조계종 총무원, 유관사찰, 불교계 사회단체로 구성된 사찰수호 공동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관련기사 2면 · 화보 22면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a.com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감로사 조계사의 계율 강좌

나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의지해야 할 곳은 오직 자신의 본성과 나의 가르침인 계율(戒律)뿐이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계를 스승으로 삼으라." 부처님께서는 〈유교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계율을 스승 삼으라' 하셨던 부처님의 사자후는 세간과 출세간을 막론하고 혼탁해진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계를 스승삼아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혼탁해진 세상을 청정하게 가꾸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6주 동안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조계사(02-720-1390)의 '계율론' 강좌 또한 혜능스님(해인사 율원장)의 〈재가불자를 위한 계율강좌〉를 교재로 재가자들이 계를 받아 지니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부처님께서는 계율로써 재가가 살아가야 할 길, 출가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놓았으니 모든 불제자들은 적극적, 주체적으로 그 길을 따라 실천 수행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계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계율을 지킬 수 있다"는 혜총스님의 말은 많은 불자들의 계율경시 풍조가 계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됨을 잘 말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두사찰의 계율 중심 강좌는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지계 정신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미희(부산 주재 기자)

감로사불교대(051-803-0188)의 경우 4개월 과정 동안 '계율이 바로 서야 나라와 사회가 바로 선다'고 했던 자운스님의 뜻을 받들어 영산율원장인 철우스님, 혜총스님, 파계사 주지 성우스님 등이 불자들의 기본 계인 삼귀의계, 오계 등 계율의 의미와 실천 덕목을 꼼꼼히 가르친다. 감로사불교대는 이 과정을 마친 후 계율 심화 교육과정을 개설해 팔관계, 십계, 대승보살계 등 보다 확대된 계율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감로사불교대 051-803-0188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법복 착용

1. 재가자의 법회나 예불시 법복 착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꼭 착용 ②가급적 착용
   ③착용할 필요없다 ④각자의 생각에 맡겨야 한다
2. 꼭 착용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①더 경건한 마음이 되기에 ②삼보에 대한 예의이므로
   ③의식을 장엄하게 하기 위해 ④신도들 간 유대강화 ⑤기타
3. 착용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는?
   ①형식일 뿐이므로 ②관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③값이 비싸서 ④개성이 없어지므로 ⑤기타

설문 참여: 3월 14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61호 9면에 싣습니다.

사 령 命 논설위원

차차석(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이기선(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차차석



◇이기선

대만 불지사리 참관단 모집

현대불교는 대만 불광산사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최고의 국보 법문사 석가모니 불지사리 참관 순례를 실시합니다. 이번 순례에서는 대만 최고 고승 성운 스님도 친견합니다.

■일 정: 3월28일(목)~4월1일(월) (4박5일)
■참가비: 97만원(포함내역: 공항세 / 단 여권수속비는 별도)
■접수 및 문의처: 이스턴관광 02)779-4747
■접수기간: 3월20일(수)까지
■입금계좌: 서울은행 39006-0725204(예금주: 계명세계여행)

*후 원: 서울 불광산사, 대만관광청 서울사무소
*주 관: 계명세계여행사, 이스턴 관광
*주 최: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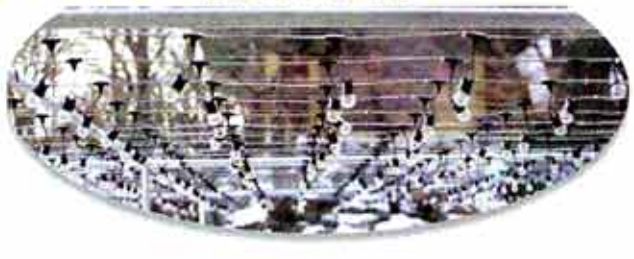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온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 이 있습니다.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시공된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종등 신제품 • 실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 종 소리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악업과 고통을 멈추게 한다고 하여 옛 사람들은 초파일 전에 종등 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전하고자 찬덕연등제작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 에 쉽게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등 보관상태









만월등









◆연꽃입 저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합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031)792-6288, 794-4055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사 설

상설 행자교육원 시급하다

조계종은 1981년 단일계단, 1991년 행자교육원을 개설함에 따라 행자교육이 성과를 거두고 사미 · 사미니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도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교육도량이 안정되지 못하여 행자교육은 물론 구족계 및 3급 승가고시 개설 때마다 장소 선정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1997년부터 행자교육원의 상설화가 논의되어 2000년에는 상설행자교육원 설립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상설도량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다할 진척된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

승가교육이 날로 항상일로에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행자교육, 구족계산림, 3급 승가고시가 정규적인 교육과정으로 현실화됐고, 비정규 특수교육까지 수용하자면 종단의 종합교육시설을 갖춘 중앙연수원 건립은 시급한 문제다. 조계종의 도제를 양성하고 종단의 백년, 천년의 미래를 이어나갈 승가교육은 분중이나 개개 본사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행자교육원은 상설도량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집중교육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승가교육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교수사나 습의사 등 교육자 양성 문제도 해결돼야만 한다. 아무리 큰 불사를 한다해도 그 도량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자질이 부족하다면 불교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종단의 책임자나 본산 주지 등 책임 있는 구성원의 결연한 의지 없이는 실행 불가능한 일이다.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종단 관계자의 결연한 의지로 적당한 본사나 말사 등에서 교통과 교육 환경을 감안하여 행자교육원을 상설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찰환경 보존돼야

조계종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사찰의 수행환경 파괴행위를 막기 위해 범불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조직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늦게나마 조계종이 국민적 여망에 부응키로 한 것은 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 어딜 가나 교통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그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선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안목에서 상호연계성을 갖추고 확정한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즉흥적인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다분한 개발계획을 시행자들이 마구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정부가 시행키로 한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약한 비구니 스님들을 폭력까지 동원,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번 결의 대회 때 보았던 것처럼 그 저항의 폭은 불교계를 넘어서 타종교까지 가세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불교계의 요구는 교계만의 이기주의에서 나온 단순한 항의가 아니며 흔히 말하는 불교계의 님비현상도 결코 아니다. 우리의 전통문화 가운데 가장 오래돼 외국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정신문화의 뿌리를 보호하면서 이 땅을 청정국토로 만들기 위한 염원을 성취할 수행처를 보존하자는 극히 소박한 외침인 것이다. 이 점을 정부와 관련 당사자들은 깊이 헤아려 신중하게 추진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불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조계종-선학원 한뿌리 재확인

정대·정일스님, 관계정상화 6개항 합의문 서명

조계종과 선학원이 '한 뿌리'임을 재 확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재)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은 6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6개항의 관계 정상화 내용을 담은 조계종-선학원 합의문 서명식을 갖고 앞으로 조계종 발전에 진력키로 했다. 이번 조계종과 선학원의 합의안 서명은 1978년 선학원 정관개정에서 '조계종'을 삭제한 이후 정체성 논쟁까지 전개되었던 문제가 25년만에 해결돼 의미가 크다. <본지 333호 1, 3면, 357호 2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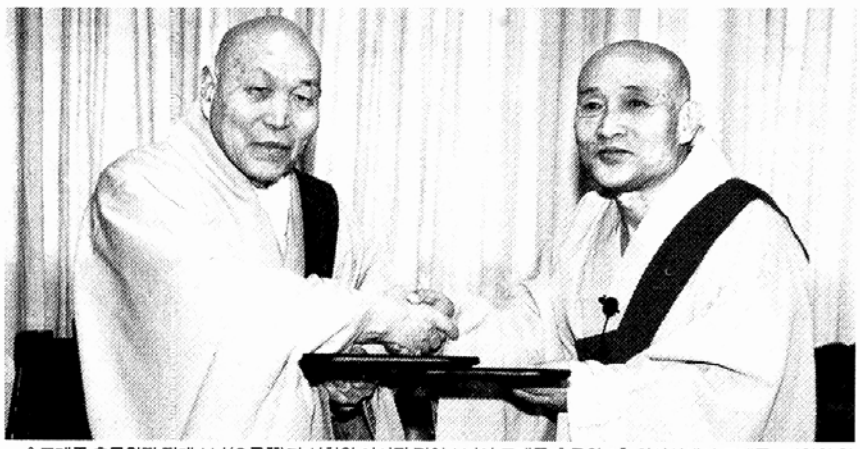
이날 서명식에서 정대스님은 "조계종과 선학원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해결돼 기쁘다"며 "규약 내용을 보니 선학원에서 많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총무부장 원택스님 등 종단 부장스님들에게 "실무협의에서 종무직 취임제한, 선학원 수계행자 문제 등을 처리할 때 조계종에서 대폭 양보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도 "조계종과 선학원이 하나가 된 것은 잘된 일이다"며 "불법에 기초하여 도제양성에 중점을 두고 종단이 나아간다면 앞으로 갈라질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명식후 조계종 대책위원장 원담스님(종회의원)과 선학원 대책위원장 동진스님(선학원 이사)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합의는 조계종단 지도부의 강한 해결의지와 선학원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결실이다"며 "앞으로 조계종과 선학원의 미해결 과제는 실무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원만하게 처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계종과 선학원은 후속조치로 조계종은 분한신고 등 승적관리, 종무직 취임제한, 행자교육원 등 도제교육, 선원 강원 입방 등의 제재를 모두 처리할 계획이며, 선학원은 교육분담금 납부, 정체성 확립 방안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오른쪽)과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이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조계종-선학원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운산 총무원장 4월12일 취임식

태고종, 종도화합위한 대각성법회도 함께 개최

태고종은 4월 12일 오전 11시 제22대 운산 총무원장 스님 취임식을 갖는다. 이날 태고종도들의 화합과 종단 안정을 위한 '태고종 한마음 대각성 정진대법회'도 함께 봉행된다.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되는 총무원장 취임식과 한마음정진대법회는 승정 등 원로중진 스님들과 각 시도교구 종무원장, 신행단체장, 내외귀빈 등 50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태고종은 2월 27일 정기 종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하고 향후 △조계종과의 사찰분규를 종식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 중흥여건 조성 △종단 재정안정을 위한 생산불교 지향 △태고종도 대각성운동 전개 △종립 동방대의 대학원 대학 설립 추진 △'선교육 후득도' 제도 정착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을 중점 종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숙 기자

조계종 22기 행자교육원 3월20일 직지사서 개원

조계종은 제22기 행자교육원을 20일부터 4월11일까지 23일간 제8교구 본사 직지사에서 개원한다.

이번 행자교육원에는 모두 272명의 행자가 입교신청을 했다.

한명우 기자

사범단속반 독립부서로

문화재청, 시행 규칙 공포, 인원도 크게 늘려

문화재청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그 동안 유형문화재과 동산계 소속이던 사범단속반은 신설되는 매장문화재과 사범계로 독립한다.

문화재청은 9일 사범단속반 부서 독립과 2개 과 신설을 골자로 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령'에 관한 시행규칙을 확정, 공포했다.

신설되는 2개 과는 폭증하는 매장문화재 업무를 담당할 매장문화재과와 최근 들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분야를 전담할 천연기념물과다. 이에 따라 유형문화재과는 매장문화재과와 건조물과로, 기념물과는 천연기념물과와 기념물과로 분리된다.

인원도 13명이 늘어나 사범단속반 3명, 매장문화재과 4명, 천연기념물과에서 6명이 충원된다.

권형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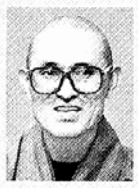
동국학원 이사 후보 현해 · 현각스님 추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5일 제 39차 회의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동국학원 이사 도원스님 후임에 현해 스님(월정사 주지)과 현각스님(종회의원)을 후보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 무관스님 후임에는 지명스님(법주사 주지)과 세영스님(신륵사 주지)을, 향적스님 후임에 일면스님(봉선사 주지)과 화범스님(종회의원)을 복수 추천했다.

한편 승가학원 이사장 후보에는 정대스님과 정락스님을 추천키로 결의했다. 김원우 기자

정락스님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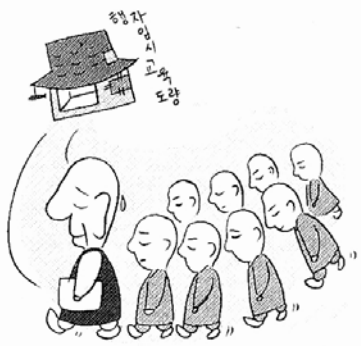
2일 용주사 산중총회서



용주사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새 주지에 정락스님(사진)을 선출했다. 정락스님은 참석스님 96표중 87표를 획득하고 운산스님은 5표를 얻었다.

정락스님은 1959년 김제 흥복사에서 전강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였으며, 1963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했다. 제5 · 7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규정부장, 83년 총무원 기획실장, 94년 포교원장, 96년 제2교구 용주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상설도량 하나 없다니…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지장 만일 기도 도량 도리천궁 육지장사

윤지원 스님과 함께하는 매월 삼천배 철야기도안내

지장성지 도리천궁 육지장사에 나투신 지장보살님의 신통영험을 체험할 수 있는 일숙각성취(一宿覺成就)기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참가대상 ▷ 일반인. 신행단체. 개인. 부부동반
◉ 참가목적
▷ 사업 소원 성취. 건강 성취. 학업 성취
▷ 인내력. 결단력. 대담성. 강인성. 추진력. 의지력 성취
▷ 비만. 다이어트실패. 금연실패. 자기조절 관리실패 성취
▷ 명애와 출세를 위한 자기관리능력 체험
◉ 삼천배기도
▷ 일 시 : 매월 셋째주 토요일 (3월 16일) 밤 9시 - 다음날 정오까지
▷ 장 소 :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294-3 육지장사
▷ 진행순서 : (1) 지장관법 : 호흡법 수행 (2) 삼천배 수행 (묵언)
(3) 삼천배 성취 회향법회 (삼천배 성취자를 위한 호신만다라 삼천배패 증정)
▷ 준 비 물 : 운동복(반팔티 2장 하의 땀이 잘 배이는 면 소재)

삼보법회
◆ 일반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 청년대학생 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 청소년(중고등) 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어린이(초등)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화엄신중기도 매월 음 1일 ~ 3일
◆ 지장기도 매월 음 18일
◆ 문의전화 02)352-6406

지장경 독송 회원 모집

한국의 유일한 지장성지

육지장사는 도리천궁 지장보살님의 회상을 지상에 건설하고저 6만 지장보살성상을 조성하여 모셔가는 장업되는 성지입니다

「지장보살의 명호를 단 한번만 듣고 합장 예경하거나 간절히 따르면 이 사람은 삼십겁 동안 지은 죄가 소멸되고 백번이나 33천에 태어난다」
-지장보살본원경-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잠 못 들어 고뇌하십니까? 지장경 독경기도에 참석하십시오 성취의 문이 열립니다

회원가입방법
◆ 가입방법 전화, 우편, 지로, 통신
◆ 문의전화 02)352-6406
◆ 회원대상 모든불자 일반인
◆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역촌 1동 17-12
◆ 기도처전화 031)871-0101

대한불교 조계종 삼보사
02)352-6406~7 도리천궁 육지장사 031)871-0101
http://www.sambosa.or.kr e-mail : sambosa@hanmir.com

동국대 불교대학 '21세기형 불교학 산실' 로

전문대학원 · 문화센터 추진

발전위, 중장기案 발표

동국대 불교대학이 '21세기형 불교학 산실' 로 거듭난다.

동국대 불교대학 2기 불교대학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 보광 스님, 이하 발전위)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2년여 동안 분야별 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한 '불교대학 중장기 발전방안' 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불교전문대학원 '불교사회문화전문대학원(가칭)' 과 사이버대학 불교학부 설립 그리고 한문 · 영어 졸업시험제 실시 안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이 21세기형 불교학 산실로 거듭나기 위한 중 장기 발전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5일 열린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 장면.

이 중 불교사회문화대학원은 불교학, 문학, 사학, 철학을 기초로 2003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광 스님은 "전문대학원은 무한 경쟁 시대에 핵심역량을 갖춘 전문직업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교육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특수대학원인 불교대학원 폐지, 일반대학원의 동일 전공 분야 석사과정 통합(폐지), 전임교원 확보, 전용면적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발전위는 사회복지 장례문화전공 등은 우선 겸임교수를 활용하고 전임교원을 추가 확보할 경우 교원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학생 정원 100명당 전용면적(360평)도 현재의 불교대학 사용 공간, 교수연구실 등을 배치할 경우 추가 수요공간을 크게 필요치 않다는 것이 발전위 측의 설명이다.

역량 갖춘 전문인력 양성 … 2003년 설립

한자 · 영어 패스 의무화… 질 한단계 높여

또한 한자능력 검정시험과 영어 시험을 패스해야 졸업할 수 있는 시험제도는 불교대학 학생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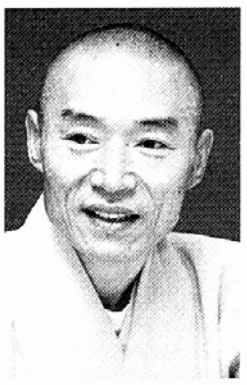
불교대학 중장기 발전 방안은 크게 4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분야 학부발전 연구분야(위원장 법산 스님)는 승려학생 증원 및 추천 입학제 확대, 군법사요원 추천입학제 시행(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여군법사 제도도 추진) 등, 2분야 교과과정 연구분야(위원장 조용길 교수)는 학과 교수를 학부교수로 통합, 전공학점 60학점으로 조정, 학과별 시대에 맞는 전공영역 재 정립 등을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3분야 교수 및 연구기관 진흥분야(위원장 권기종 교수)는 역경원, 출판사, 불교문화연구원 등을 통폐합한 불교문화센터 신설, 한국불교 관련 자료 전산화, 불교대학 발전기금 조성 등을, 4분야 학과 및 불교사회문화전문대학원 신설 연구분야(위원장 서윤길)는 학과신설(불교사회복지, 문화재관리, 국제포교 역경) 방안을 제시했다.

불교대학 중장기 발전안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가 승인하면 추진이 가능하다. 불교대학 교수들에 의해 2년여의 산고 끝에 확정된 이 발전방안이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종단 각종선거 올 집중 청정풍토 정착에 주력"

창립 10돌 실천불교승가회 의장 청화 스님



92년 승가중심 사회민주화 운동의 깃발을 세웠던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 이하 실천승가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창립기념일이 원래 10월 1일이지만 미리 올해에는 청정승가다운 선거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에 주력할 예정이다. 종단선거법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선거공영제 도입과 선거 과정이 종책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종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중의 의견을 모아 중앙종회에 청원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불교NGO 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은.

"NGO회관 건립은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한국불교발전과 정토사회 구현을 위한 장에서 사부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교계 단체들의 안정적인 활동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 27일 열리는 '창립 10주년 기념 및 회

5년 계획 불교NGO회관 건립

승려노후복지정책 수립할 터

앞당겨 오는 27일 창립10주년 기념 및 회관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서예도예전 '을 갖는다. 실천승가회는 94년 조계종개혁을 주도하는 등 인권 · 통일 · 사회운동을 펼치며 종책 연구 · 개발에 앞장서 온 승가단체. 92년 실천승가회 창립 주역이며 이후 10년간 대표를 맡고 있는 조계종 종회 부의장 청화스님을 만나 불교NGO 회관 건립, 선거공영제 도입, 승려노후복지제도 마련 등 실천승가회의 올 사업 계획을 들었다.

◈실천승가회 10년을 평가한다면.

"실천승가회는 정토사회구현과 종단개혁을 목적으로 92년 창립됐다. 지난 10년간 200여 회원 스님들과 종단 스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정토사회를 만들어가는 실천적인 노력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구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10주년을 맞은 올해 실천불교승가회 사업 방향은.

"올해는 종단발전을 위한 종책 생산과 추진에 역점을 둘 생각이다. 특히 각종 선거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관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서화도예전' 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금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빠르면 2005년경에 회관이 완공돼 교계 단체들에게 장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승려노후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 종단개혁 이후 종단차원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재정의 한계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종단 현실에 바탕을 두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입안하여 실시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승려복지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종단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생각이다."

◈앞으로 실천승가회 활동방향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혀줄 장기적인 과제인 종단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 이를 위해 사부대중이 하나되는 원융종단의 큰 틀을 만드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불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실천하겠다. 이를 위해 실천불교운동의 이론화 작업과 종책에 대한 연구 개발 등도 꾸준히 진행될 것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석굴암 모형관 장소 싸고 논란

토함산 주변 환경 심각한 훼손우려

위치선정 재검토, 재질은 추후 논의

석굴암 경내에 석굴암 모형관을 건립하는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문화재청과 불국사는 경주 토함산 석굴암에서 100m 아래 계곡에 실물 크기의 석굴암 모형이 포함된 석굴암 역사유물관 건립 계획을 추진, 지난해 10월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석굴암 보존과 유리 가림막 때문에 본존불에 접근할 수 없는 참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문화재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키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문제점을 지적해 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한편, 18일쯤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문화재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장 설명회를 갖고, 이 달 안으로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이 모형관 건립 자체의 전면 재검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장소가 문제지 모형관 건립은 '변함이 없다. 석굴암 주변 환경 훼손에 따른 논란이 가장 큰 만큼 위치 선정 재고를 위해 현장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재질 등은 추후 논의 사항이다"고 말했다. 저지대책위원장 이상해 교수는 "다른 장소라면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대책위 소속의 강우방 교수는 "모형관이 들어설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취지에서다. ☞본지 356호 1면 참조

최근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학계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이상해(성균관대) 교수, 강우방(이화여대) 교수, 유홍준(명지대) 교수 등 문화재 전문가 10여 명이 지난 2일 가칭 '석굴암 훼손 저지 대책위원회' 를 결성하고, "석굴암 모형관 건립은 석굴암과 토함산 주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모형관 건립 저지에 나선 것이다.

논란이 계속 되자 문화재청은 5일 종합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조계종 통합종단 40돌 세미나

4월 8일 ·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서

사진으로 본 종단 40년사 발간도

1962년 4월 11일 출범한 조계종 통합종단 4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세미나와 법회가 4월8일과 11일 각각 열린다. 또 통합종단 40년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기념 도록도 발간된다.

4월 8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리는 학술 세미나에서는 종범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이 '통합종단 출범의 성찰과 전망' 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며, 김광식씨(대각사상 연구부장)가 '통합종단 출범의 역사적 의미' 에 대해,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교수)가 '종단 3대 지표에 대한 성과와 전망' 에 대해, 심익섭 교수(동국대 교수)가 '조계종단 운영구조와 종헌' 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또 각 주제발표에 대해 현고 스님(조계종 기획실장), 홍사성(불교방송 본부장)씨, 현응 스님(조계종 종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통합종단 출범의 주역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인물, 사건 등 종단의 업적을 기념할 만한 사진을 수록해 통합종단 출범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기록한 〈사진으로 본 통합종단 40년사〉를 4월 5일 발간한다.

이 책은 '한국근대불교의 전개와 조계종' (1876~1962)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의 출범' (1962~1971) '종단의 시련, 불교 중흥' (1971~1980) '종단의 민주화, 불교의 사회화' (1981~1993) '개혁종단의 성립과 발전' (1994~2002.2) 등 시대별로 구분하고, 중요 연표를 정리한 다음 분야별로 사진을 배열하고 간단한 설명을 곁들인다. 사진은 모두 1000여장 이상이 수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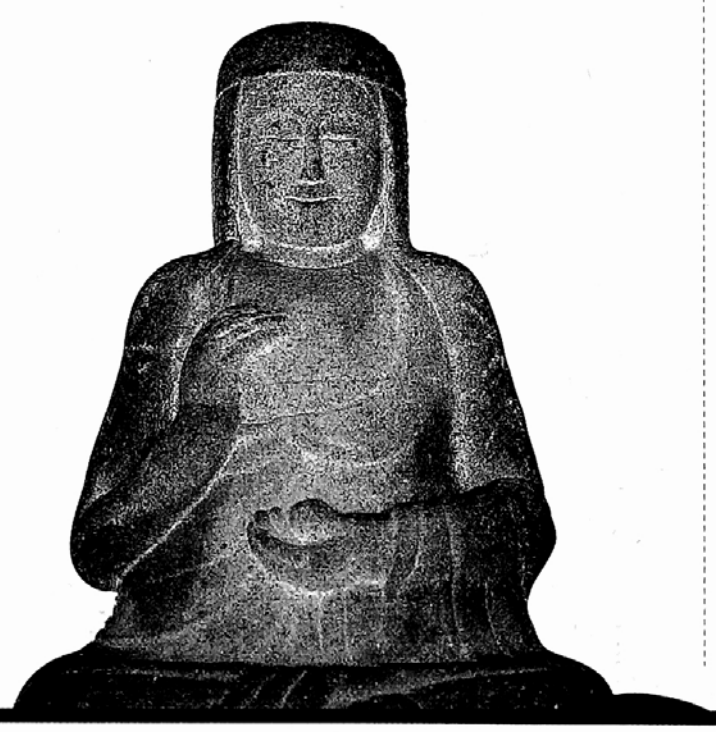
통합종단 4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는 4월 11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상령 및 유산아 천도 49재 지장기도 법회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여
항상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국 제일의 생지장도량인 심원사에서는
조상령 및 유산아 천도 49일 기도 입재와 아울러
지장원불전 기공식을 봉행하오니 모두 동참하시어
기도성취하시고 무량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지 김도후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심원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 1리 72 · 전화 (033)455-3468

법 회 봉 행 일 정

· 입재 및 지장원불전 기공식 : 3월 24일(음력 2월 11일) 오전 9시 30분
· 초재 : 3월 31일(음력 2월 18일) 오전 9시 30분
· 2 재 : 4월 7일(음력 2월 25일) 오전 9시 30분
· 3 재 : 4월 14일(음력 3월 2일) 오전 9시 30분
· 4 재 : 4월 21일(음력 3월 9일) 심원사 옛터 보개산 참배법회
서울 조계사 앞에서 오전 7시 출발(도시락 지참, 운동화 착용)
· 5 재 : 4월 28일(음력 3월 16일) 오전 9시 30분
· 6 재 : 5월 5일(음력 3월 23일) 오전 9시 30분
· 회향 및 지장원불전 상량식 : 5월 12일(음력 4월 1일) 오전 9시 30분

※철야정진기도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버스운행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 오전 7시 조계사 앞에서 심원사행 버스 출발 (예약문의 018-357-4406)
– 수유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심원사행 버스 출발

일주문



'매일 즐겁게…' 주제 법문

도원 대구 대비암 회주는 19일 오후 4시 동국대학교 정각원 법당에서 '매일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란 주제로 법문한다.



부처님출가절 기념 설법

무여 조계종 기초선원 운영위원장은 17일 안성 도피안사에서 부처님 출가절 기념 설법을 한다.



운경 스님 2주기 다례제

일면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주지는 6일 봉선사 큰법당에서 운경 스님 2주기 다례제를 봉행했다.



포교기금 마련 하루찻집

지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 회장은 16일 다전에서 어린이포교 활성화 기금 마련 하루찻집을 연다.



사무실 개소식 · 법회 봉행

정각 부산 청정화합시민연대 상임대표는 2월 27일 부산 데파트 3층 313호에서 사무실 개소식 겸 법회를 봉행했다.

화 촉

♣ 안길모 前 불교방송 보도국장의 장남 안봉덕 씨는 이경아 양과 17일 정오 전경련 회관 20층에서 화촉을 밝힌다.(02)310-7180

♣ 불교방송 보도국 신두식 기자는 9일 황선진 씨와 그려대 교우회관에서 화촉을 밝혔다.

소프라노 강태복 씨 별세



소프라노 강태복 씨가 3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3세. 강 씨는 불광사, 법련사 등의 합창단을 지휘하고 강남포교원 합창단을 창단하는 등 불교음악 발전과 찬불가 보급에 기여했다. 49재는 4월 20일 서울 정릉 심곡사.(02)815-1550

고침

▷지난호(359호) 4면의 동정 중 '정각 부산 청정화합시민연대 상임대표'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부산 청정화합시민연대 정각 스님은 부산 미룡사 주지입니다. 또 같은 면 이수덕 불교TV 사장은 케이블 PD협회가 아니라 '케이블 PP협회 이사'로, 부산불교실업인회 박수복 회장은 '제4대 회장'으로,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은 2월 27일이 아니라 '3월 14일'로 바로잡습니다.

▷21면의 만해백일장 대상 수상자 김희용 양의 인터뷰 기사 중 '수 있는 소설을 많이 쓰고 싶다'고 장래의 포부를 밝혔다'가 전산오류로 빠졌습니다.

"불교 뿌리 알아야 정체성 확립"

한 · 중 선종법계도 제작 해월 스님



신라 말 고려 초 선법전래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또 중국 법계도에는 초조 보리달마부터 이조 혜가, 삼조 승찬으로 이어져 태고보우스님과 나옹화상을 통해 한국으로 전해지는 흐름을 표시하고, 중국선종지도도 수록했다.

스님은 "한 중 선종법계도를 제작하기 위해 1년간, 법맥이 기록된 송광사 옴파집경판(조선중기 소실 추정) 복사본을 기초로 하고, 〈선학사전〉 〈선원총람〉도 참조했다"며 "강원교육용으로 제작하다보니 미묘한 사안인 선맥, 강맥, 율맥, 은맥, 법맥 등의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해 이런 부분은 종단차원에서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상반기에 인도교리사와 교리발달사 도표를 제작하고, 하반기에는 한국대표스님 금속문을 정리, 한국불교를 가르치는 텍스트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053) 985-4405.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한국불교 전체흐름 쉽게 이해되길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최근 한국선종법계도, 중국선종법계도를 도표로 제작한 동화사 강주 해월스님은 "제대조사님들의 발자취를 정확히 더듬어 보아야 미래를 볼 수 있다"며 "법계도를 통해 한국불교의 전체흐름을 쉽게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선종 법계도에는 태고보우 스님부터 시작되는 고려, 조선, 근세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법맥과

"울산 변화 주도 신도회 될터"

울산광역신도회 제 15대 박동철 회장



"울산의 재가 불자들이 힘을 모아 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물질만능의 세상을 인간 중심의 밝은 사회로 가꾸는 데 한 몫을 할 것입니다."

6일 남운프라자에서 열린 조계종 울산광역시신도회 회장 이 · 취임법회에서 제15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동철(62 · 새한종합물류 회장) 회장의 각오다. 박회장은 "밝은 사회를 가꾸기 위한 운동에는 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앞

불교합창제 전국규모로 키울 것

장서야 한다"며 그간 폭넓은 사회활동으로 다져진 인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제5대 경남도의회 의원, 초대 울산시의회 의원, 밝은사회클럽 한국본부 부총재 등을 역임한 박회장은 "울산의 불교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불교적 사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1년부터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을 위한 재가자들의 봉사모임이였던 불경협의회 활동을 10년동안 해온 박회장은 울산의 불교 현황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 현재 12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신도회의 조직 강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조직의 내실이 다져지면 '밝은 생각, 밝은 행동'의 주체인 시민들의 의식 교육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 강좌, 시민대토론회, 산사예술제 개최를 비롯 매년 열리고 있는 울산시 불교합창제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여 울산 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 천미희 기자

"가정폭력 근절, 불국정토 서원"

임오년을 뛰는 불자 ⑨ 영도가정폭력상담소 김은자 실장

부산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유일의 가정폭력상담소인 대각자비원 부설 영도가정폭력상담소 김은자(38) 상담실장은 "가정폭력문제는 곧바로 사회문제화되기 때문에 불교가 앞장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도가정폭력상담소가 문을 연 것은 1999년 11월. 그러나 영도가정폭력상담소는 1982년 3월부터 무료법률상담, 인생상담 등 광범위한 상담을 해왔던 '자비의 전화'가 모태가 된 경륜있는 상담소로 통한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문제를 더욱 전문적으로 다룰 뿐 그간의 상담실 운영의 노하우는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1년전 여성의 인권에 관심이 많은 김씨가 실장직을 맡으면서 영도가정폭력상담소의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위한 쉼터 설립 목표

"빈민가 어린이집의 교사, 부산불교교육원내 탁아방 운영을 하면서 관심밖으로 밀려난 여성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김실장은 올해 세워놓은 계획이 많다. 불교적 가치관을 토대로 하되 불교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생각하는 김실장은 누구가 접근 가능한 사이버 상담실을 마련하기에 여념없다. 조미숙 상담원과 함께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100여건의 상담을 소화하는 것 외에도 가정 폭력 근절을 위한 길거리 홍보, 타 상담기관과의 연계 행사, 소식지 발간, 올바른 가족관 정립을 위한 강좌 추진, 외국인 인권 지원사업, 성교육 강좌 개설 등이 모두 활동 영역이다. 또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나 법률적인 지원, 금전 지원, 재활 지원 등이 필요한 상담자의 경우 타 상담기관이나 전문 기관과 연계해 지원할 생각이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고통을 겪을만큼 겪고 난 뒤 최악의 상태에서 상담소를 찾는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정문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시키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 결혼관을 정립하는데 불교적 생명관과 인생관만큼 유효한 가르침은 없어요"라는 김실장의 의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나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이들이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이 아쉬워요. 소장이신 정각스님의 지원을 받아 불교계가 운영하는 쉼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작은 노력이 좋은 세상, 불국토를 만드는 근간이 된다고 굳게 믿는 김실장은 보다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후원회 결성을 추진중이다.

부산=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대승종 중장기 발전 방안 논의

대승종(총무원장 일오)는 5일 경기도 안양 총무원에서 종회를 열었다. 이날 종회에서 포교원 · 감찰원법과 포교사단 정관이 개정됐으며, 중장기 종단 발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사진은 종회 후 기념촬영한 모습. 앞줄 오른쪽부터 교무부장 영인, 종회부의장 혜심, 종회의장 법정, 총무원장 일오, 재무부장 성공 스님.



부산 두송복지관 장학금 전달

부산 두송복지관(관장 지현)은 2월 26일 관음사에서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2002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지현 스님은 이날 이민정 외 중고생 20명과 장지영 외 대학생 8명에게 총 1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은 관장 지현 스님이 부산 다대고 3학년 이진주 양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



무불선학대학원 첫 졸업식

무불선학대학원 제1회 졸업식이 2월 24일 법장 스님(수덕사 주지)을 비롯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덕사에서 개최됐다. 2년 과정의 무불선학대학원은 이날 3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졸업논문에 통과한 15명에게 선법사 자격을 부여했다. 사진에서 법장 스님이 15명의 졸업생에게 선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광주 생명나눔회 치료비 전달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일철)는 7일 전남대병원에서 97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후 무혈성 괴사증을 앓고있는 조선족 동포 김인호씨에게 치료비 3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 생명실천회는 현재까지 모두 1200만원을 환자들에게 후원했다. 사진에서 일철 스님은 김인호씨를 위로하고 있다.

상표등록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 본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전자 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을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3건)

서울, 경기 서부대리점
성남 031-756-6307
서울, 경기 동부대리점
하남 031-791-8871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경남, 서부대리점
마산 055-224-5286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053-591-4861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764-9396

설치 2~3주전에 미리 각 지역 대리점에
연락주시면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써비스
기술 지원 팀
011 · 9996 · 8872

주식회사 TG 반도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전화 031-792-8867~8

평택시청불자회 창립

평택시청 공무원불자회가 5일 문예회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평택시청 불자회는 지도법사에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을 추대하고, 안성헌 도시과장을 임시회장으로 선출했다. 향후 법회 및 사업계획 등은 총회를 거쳐 확정한다. 사진은 지도법사로 추대된 정락스님이 법문하고 있는 모습.



충남경찰청 불교회 창립

충남지방경찰청 불교회가 3일 충남지방경찰청내 상무관에서 충남지역 관내 경찰불자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됐다. 이날 법회에서 경찰불자들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자비와 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유한동 신임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산운불련 법륜회 장학금 전달

부산운전기사불자회 법륜회(회장 정순찬)는 7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 20명에게 4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순찬 회장이 손미영(한독경영정보여고 1년)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금강메아리 시산제 개최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공형수)는 3일 강원도 홍천 팔봉산에서 시산제를 봉행했다. 이날 시산제에서 동참자들은 회원들의 무사산행과 자연보호를 기원했다. 금강메아리는 16~17일 영암 월출산 산행을 떠날 예정이다. 사진은 공형수 회장(가운데) 등 동참자들이 팔봉산 정상에서 시산제를 지냈다.



'출가에서 열반까지' 21~28일 정진주간 선포

"부처님처럼 수행 할래요"

신행단체들 발심·108배 참회정진
비회원 불자들 동참 적극 권유

직장 직능 신행단체들이 부처님 출가일과 열반일을 맞아 21~28일을 '출가에서 열반까지' 특별정진 주간으로 선포하고 108배 참회 등 정진에 들어간다. 전국의 각 사찰에서는 매년 출가일과 열반일을 기념하는 법회와 정진 등을 봉행해오고 있으나, 신도단체와 직장 직능 단체들이 정진 주간으로 선포하고 자체 정진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진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교구 신도회,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를 비롯해 직장 단위의 단체들이다. 이들 단체들은 조계사, 범어사, 동화사 등 교구본사에서 부처님 출가일인 21일 입재에 들어가 108배 정진, 참회 기도, 염불 등 수행환경 보존과 이웃을 위한 참회·발원을 이어가며, 열반절인 28일 특별정진을 회향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사찰이나 신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불자들에게도 이번 정진 주간에 동참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특히 직장 직능 단체들은 각 직장에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근 사찰과 자체 법당에서 참회와 발원의 108배 정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현재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를 비롯해 보훈병원 보훈불자회, 중앙병원 불자회, SBS 법우회, MBC 불교연구회 등의 직장 직능단체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직장 직능 신행단체들의 참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진 주간 선포와 함께 108배 정진 계획을 밝힌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는 21일 조폐창 내 금강원 법당에서 입재 기도에 들어간다. 회원들의 사정에 따라 점심시간과 퇴근 이후 시간을 활용해 8일 동안 발심·참회 정진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회원들의 3교대 근무로 일률적인 동참이 여의치 않은 보훈병원 보훈불자회는 열반일인 28일 회원과 환자들이 동참하는 대중법회를 봉행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는 정기법회일인 21일 법회를 출가일 특별법회로 계획을 변경하고, 발심·참회를 위한 회원들의 정진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국경찰불교회와 불자교정인연합회가 경찰법당과 교도소 법당에서 정진에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경산조폐창 금강회 윤종우 회장은 "부처님 출가일과 열반일을 맞아 불자들은 얼마나 마음공부를 해왔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것"이라며 "개인적 발원을 이웃과 자연으로 확대시켜 믿음의 폭을 한차원 높이는 기회로 승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ra.com



◇한 불자가 세무사불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세무상담을 하고있다.

사이버 포교 본격 추진

세무사 불자회 홈페이지 개통

한국세무사불자회(회장 정구정)는 4일 인터넷 홈페이지(www.buddhatax.com)를 공식 개통하고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사이버 포교에 나섰다. 이번 홈페이지 개설은 동종업계 종사자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의 불교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현대불교 붓다뉴스팀에 의뢰해 제작한 홈페이지에는 금주의 법구, 불교 이해하기, 사이버 법문, 이달의 법문, 세무상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세무사 직종의 특성을 살려 전문지식을 사회에 회향하는 의미에서 마련한 세무상담 코너는 세무사불자회가 비중있게 다루는 코너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불자회는 회원 30여명으로 상담위원을 위촉했으며, 세무 관련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풀어줄 계획이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을 탈피해 언제든지 큰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홈페이지의 또다른 특징. 세무사불자회는 매월 법회 때마다 법문을 육성녹음해 텍스트 자료와 함께 법문 코너에 게재, 누구든지 경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홈페이지에는 방대한 분량의 불교경전 자료와 기초교리, 사찰예절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 불자들의 신행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무사불자회는 8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회원 및 회원 가족 6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법융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금주의 법회

■ 13일
△경산조폐창 금강회 차량안전운행 기원법회=오후 5시 20분 금강원 △춘천정신병원 참나불자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춘천 대원사

■ 14일
△서울은행 불교행우회 정기법회=오후 7시 30분 본점 식당 △보훈병원 불자회 정기법회=낮 12시 보훈법당 △국립의료원 초하루법회=오후 5시 병원법당 △전남지방경찰청 경불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광주 향림사

■ 15일
△경산조폐창 금강회 철야정진법회=오후 6시 경산 일승암 △국립경찰병원 불자회 환자법회=오후 4시 병원법당

■ 16일
△한빛은행 불자회 창립3주년 기념법회=오후 4시30분 본점 대강당

■ 18일
△국립서울정신병원 불교회 정기법회=낮 12시 병원법당

■ 19일
△성북승무사무소법우회 정기법회=오후 2시 서울 월계동 기원사 △국립재활원 법우회 정기법회=오후 7시 병원법당 △경희의료원 경불회 정기법회=오후 6시 병원법당 △대우종합기계·KAI 법우회 정기법회=오후 5시30분 창원 성주사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불자회 정기법회=오후 6시 병원법당 △중앙병원 법우회 정기법회=오후 6시 병원법당

법회안내=(02)722-4162~3

"새롭게 도약하는 해로"

은평구청 불심회



◇이길영 회장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가 올해를 재도약 원년의 해로 삼고 회원 확대, 사찰과의 유대강화에 나섰다.

서울지역 구청 불자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는 평을 받는 불심회는 구청내 포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회원을 확대하는 한편 은평구 관내 76 사암과의 연대를 강화해 회원들의 사찰체험 및 신행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불심회는 이와 함께 바쁜 업무와 거리의 원격성으로 민원부서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법회 참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법회장소의 다양화와 법회 외 신행·봉사활동 기회 부여 등을 통해 모든 회원들이 바른 신행생활을 펼쳐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관내 76 사암과 연계 신행강화

이밖에도 불심회는 서울시공무원불자연합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와의 연합법회 및 특별법회, 성지순례 등 연대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서울시 산하 불자회가 없는 구청의 불자회 구성을 위한 지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불심회 이길영 회장은 "은평구 관내 사암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불심회의 장점 중에 하나"라며 "올해에도 사찰과의 유대를 강화해 회원들의 신행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원 확대에도 힘써 제 2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모임에선

금융단불교련 부석사·희방사 순례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회장 이탁수)는 24일 영주 부석사, 제천 희방사 등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한빛은행, 한국은행 등 금융단불교연합회 소속 불자회들이 참여하는 이번 성지순례에서는 부석사와 희방사 참배, 부석사 조실 근일스님 법문 등이 있을 예정.

경북도청불자회 치어 방생

경북도청 공무원불자회(회장 윤용섭)는 17일 울진 불영사 인근 불영계곡에서 생명존중 실천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경북도청 산하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양식한 산천어 치어 100만여마리를 방생하는 이날 법회에는 회원 및 가족 150여명이 동참해 생명존중사상을 되새길 계획.

금강회 차량안전운행 기원법회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회장 윤종우)는 13일 오후 5시20분 회사내 법당 금강원에서 차량안전운행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회원 차량과 회사 업무차량 170여대와 운전자에 대한 축원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금강회는 15일 오후 6시 경산 일승암에서 철야정진 법회를 봉행한다.

보훈불자회 혜암스님 사리친견

보훈병원 보훈불자회(회장 김택선)는 13일 합천 해인사에서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스님 사리친견 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는 회원 및 자원봉사자 30여명이 동참할 예정.

찬불가(작사/작곡) 작품자 회신 공고

본 사)삼보불교음악회에서는 신도용찬불가집 제작에 따른 아래 작품자의 작품사용허가 및 저작권료 지급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였으나 일부 작품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여 서면으로 공고하오니 해당 작품자 분은 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3月 13日 수요일

작곡가

강영화 김규환 김기우 김동진 김동환 김명표 김용호 김재민 김주영 김회경 김희조 라음파 랑승일 마상원
박동원 박범훈 박수기 박이제 박찬석 백대웅 법성화 변규백 서윤재 서창업 신귀복 오인혁 이기홍 이달철
이무영 이병욱 이상규 이수인 이순희 이은열 이인원 이종구 이찬우 이철용 이철혁 이향자 이호섭 장기찬
장영나 장일남 정경천 정민섭 정부기 조광재 조영근 채치성 최영철 최진의 추월성 한득민 황 산

작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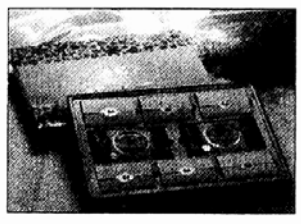
강변수 강영화 강태생 고난주 광 덕 국효문 권상로 김광희 김대월 김대은 김무원 김미형 김법윤 김승운
김양식 김어수 김영덕 김장호 김재영 김재진 김정묵 김정빈 김정욱 김주명 김초혜 김현준 나용선사 나태주
정다운 대 우 대 행 덕 신 도 원 돈 연 동 호 랑 승 만 마 한 성 맹석분 목정배 묘 심 무 허
문정희 박동원 박제천 박지성 박현성 박희진 반영규 법 륜 법 운 법 정 변재근 봉 산 서정주 석성일
석지현 선진규 성 우 소 암 손정윤 신경숙 신동춘 신현숙 안정순 용 성 우 성 월 윤 유 정 윤지원
윤후명 이건호 이경순 이광수 이달철 이봉수 이상범 이원섭 이은주 이재복 이청화 이형기 이혜성 이호재
일 타 자혜원 정 윤 정경채 정광수 정 덕 정 목 정민섭 정연자 정영태 정영희 정완영 정운문 정현성
조용국 조용하 조학유 지 범 지광조 지연화심 지혜림 천양희 최수영 춘 호 한길로 허철영 현 담 현 장
혜 관 홍일정 화 범 황성기

■ 회신기한 : 없음
■ 사 무 국 : 전화 02)723-0440~1 팩스 02)723-0442
■ 기념행사 : 1) 기념 법회 : 2002. 4. 11 오후 4시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2) 기념음악회 : 2002. 4. 11 오후 7시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사) 삼보불교음악협회
이사장 정 운 문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皿)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물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뱃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무표정하게 굳은 아들 장명종 씨의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정복술 할머니.

선천성 뇌성마비 칠순 아들 수발

애끓는 '아흔살 母情'

이리저리 나뒹구는 세간들로 옹색한 살림살이임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다섯 평짜리 지하 전세방. 얼핏 보아 평범한 가정의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곳에는 '아흔 살 엄마'와 '칠순 아들'이 살고 있다.

선천적으로 뇌성마비인 아들 장명종 씨(73). 장 씨가 오늘도 어

"이젠 나도 기력 떨어져"

김없이 누운 채 큰 일(?)을 보았다. 어머니 정복술 할머니(94)는 하루도 빠짐없이 70년 넘게 대소변을 받아오며 아들을 보살펴 왔지만, 요즘은 힘에 부쳐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재작년 겨울, 정 할머니는 죽을 뻔 하다 살아났다. 한밤중에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가 인공호흡 끝에 가까스로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 한 달반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난 뒤, 집에 돌아 온 정 할머니는 심장병과 고혈압에 계속 시달리면서 기력이 급격히 쇠약해졌다. 그러다보니 아들 장 씨 수발은 물론, 하루 세 끼 밥하는 것도, 병원에 약 받으러 가는 것도 여의치 않게 됐다.

"크게 아프고 난 뒤로는 약에 의지해 살다보니 정신도 가물가물하고 기력이 없어 잘 움직이지도 못하겠어. 이젠 내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하니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 할머니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다. 아들이 8살 때, 남편은 급성 폐렴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생계가 막막해진 정 할머니는 뇌성마비 어린 아들을 키우려고 안 해 본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남의 집 식모살이부터 간병, 행상까지 밤낮을 잊고 살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나마 기어 다니기라도 했던 아들 장 씨가 10살 때부터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다.

정 할머니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1970년 서울 삼선교 친정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렵게 사는 친정집에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어, 한푼 두푼 모아둔 돈을 가지고 지금 집으로 옮겨와 12년째 살고 있다.

이들 모자의 생계비는 아들 장 씨 앞으로 나오는 장애인 정부지원금 47만원이 전부. 가스비와

"오늘 저녁 또 굶으려나…"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과금 25만원을 치르고 나면, 남는 돈은 고스란히 이들 모자의 약값으로 들어간다.

어느덧 벽에 걸린 시계바늘이 점심시간을 가리킨다. 하지만 뭐 하나 해먹을 것도 없이 텅 빈 냉장고 문만 들여다보고 있는 정 할머니. 벌써부터 저녁끼니 걱정이 앞선다.

후원 방법 : 전화 (02)924-7528 계좌번호 농협 026-01-037728(예금주 정복술)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신행 캘린더

3월 14일 (목)

■마야문화원 '아함경 강의' = 부처님 말씀을 최초로 기록한 경전인 아함경. 그 속의 근본불교 사상을 동국대 인도철학과 강사 안승준 씨를 통해 들어본다.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매주 목요일마다 안국동 본원에서 3개월 동안 계속된다. 참가비는 10만원 (02)722-1050

3월 15일 (금)

■봉은사 '행복한 가정 만들기' 특강= '불자가정의 철학' '생활명상' '불교와 인간관계' ….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이 여기에 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서울 봉은사 보우전에서 5월 18일까지 계속된다. 참가비는 3만원.(02)516-5652

■좋은벗들 '통일대화마당' =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이 들려주는 통일이야기. 한평생 통일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매진했던 백 소장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강좌.



◇지난해 열린 통일대화마당.

좋은벗들은 4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통일운동가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강좌를 마련한다. 오후 7시 30분 서초동 정토회관. (02)587-8996

3월 16일 (토)

■은평도서관 '무료영화 상영' = 라이언킹2, 파이란, 토이스토리2, 공동경비구역, 101달마시안, 러브레터…. 도서관에서 보는 영화, 웬지 별미일 것 같은 느낌. 가족이 함께 한다면 기쁨 두배.

은평구립도서관은 31일까지 매주 오후 2시 본원 지하1층 시청각실에서 무료영화를 상영한다.(02)385-1671

3월 18일 (월)

■수원포교당 '불교문화답사' = 완주 송광사, 위봉사, 화암사 등 전라북도 고찰을 돌러보는 신춘 성지순례. 송광사 일주문 사천왕상, 화암사 극락전, 화암사 우화루 등 성보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

출발은 오전 8시 30분 본원, 참가비는 2만원이다.(031)253-0108

3월 19일 (화)

■진철 스님 초청법회= 신라문화원은 저녁 7시 불국사 문화회관에서 통도사 한주 진철 스님을 초청,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법회를 봉행한다.

통도사와 낙산사 자비원장을 역임한 스님은 오랫동안 불교 사회봉사운동을 이끌어 왔다.(054)774-1950

3월 20일 (수)

■고영을 '선 탱화전' =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선 묘사. 기존 불화와 차별되는 현대적 회화미를 추구해 온 고영을씨의 '삼라만상전'이 26일까지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바람소리' '세상 속으로' 등 50여 작품이 전시돼, 자아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해와 달, 별과 바람, 우주와 자연에 이르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담아낸다.(02)730-4488

3월 21일 (목)

■법장사 '사찰순례기도' = 동해 삼화사와 강릉 낙가사를 돌아보는 성지순례. 자장율사가 당나라 유학을 끝내고 돌아와 세운 두 고찰에서 부처님이 출가하신 뜻을 되새겨 보자.

이번 여행의 출발은 오전 6시 30분 서울 묵동 법장사. 참가비는 2만 5천원.(02)971-0303

공부하고 수행하며 절 살림 도맡아

우리 절 우리 신도

서울 정혜사 서창교 사무장



◇7일 관음재일 법회 후 3월 열릴 행사와 자원봉사 일정에 대해 신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서창교 씨.(왼쪽에서 세번째)

열정으로 청년법회 이끌어

"佛法 편히 배우게 최선 다 할터"

"어서오십시오, 보살님!"

관음재일이었던 7일 오전 서울 창동 정혜사(주지 남전) 3층 법당. 계단을 오르는 노보살님을 부축하며 반갑게 맞는 이가 있다. 정혜사의 사무장 서창교씨(36)다.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에게 혹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일일이 살피는 서씨의 할일은 더느새 점심 공양 준비로 이어진다.

사찰의 사무장이라는 이름 그대로 서씨는 정혜사의 모든 살림살이를 챙긴다. 그러나 서씨는 정혜사의 사무장이기 이전에 부처님 가르침을 일심으로 따르고, 정혜사의 도반들을 사랑하는 열렬 신도다.

서씨와 정혜사의 인연은 좀 특별하다. 97년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한 서씨는 불교학생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도법사인 남전스님을 처음 만나게 됐다. 당시 스님의 법문은 독특하게 문답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초심자였던 서씨는 참선과 기도, 신행에 대해 스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불자로서의 새 삶을 설계할 수 있었다. 99년 서씨가 방송통신대 불교학생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스님과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고, 2000년 12월부터는 아예 스님이 계시는 정혜사를 찾아와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들으며 틈틈이 절일까지 도왔다.

그러다 지난해 초 사무장으로 일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1년 넘게 신도뿐 아니라 정혜사의 살림을 꾸려가는 실질적 소임자인 사무장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아직 미혼인 서씨는 지난해 결성된 정혜사 청년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20여 명으로 구성된 청년회는 사찰 내에서 이뤄지는 크고 작은 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정기법회활동으로 신심을 키워나간다. 관음재일 법회가 끝난 후에도 서씨는 신도들의 틈을 비집고 다니며 청년회 회원 모집에도 정성을 들였다.

"정각행 보살님, 올해 대학에 입학한 따님은 왜 같이 안나오셨어요? 저희 청년회가 얼마나 좋은지 잘 아시잖아요. 모녀가 함께 절에 다니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넉살좋게 신도 자녀들의 청년회 가입을 권하는 서씨는 요즘 그 어느때 보다도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정혜사가 쌍문동에서 현재의 창동으로 옮겨온 후 두 배 이상 커진 절 살림을 챙기고, 신도들에게 올 한해 정혜사 운영 계획을 알려 보다 많은 동참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혜사는 사찰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모든 절 살림이 신도들에게 공개 운영되는 만큼, 신도운영위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서씨의 몫이다. 여기에 96년 쌍문동 정혜사 개원 때부터 '정법을 배워야 참된 불자가 될 수 있다'며 불자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쏟아온 주지 남전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불교교양대의 활성화와 올해 새롭게 결성된 거사회를 뿌리내릴 수 있게 지원하는 것. 또 이전과 함께 지역 어린이불자들을 위해 마련할 예정인 어린이법회 개설 등 올해 정혜사가 도심포교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원만히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지경이다. 오는 4월 28일에는 이전 개원법회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바쁘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 서씨는 경전공부와 기도에 더해 참선 수행을 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직장이 곧 수행처인 것이 너무나 좋다는 서씨.

"항상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스님의 뜻을 받들어 하루하루에 충실하려 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신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와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가족 같은 정혜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활짝 웃는다.

이은자 기자 eljee@buddhapia.com

추천의 말

남전 스님 서울 정혜사 주지



정혜사는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을 가꾸기 위해 정기적인 재일기도와 일요법회, 그리고 불교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셋방살이를 마치고 최근 독립 건물로 이전한 정혜사는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모두 정혜사 불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참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불자들 가운데 서창교 법우는 제가 지도법사로 있던 방송통신대학 불교학생회 '통불회' 제21대 회장으로 인연을 맺어 정혜사가 어려운 시기에 사무장의 소임을 맡아 사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지인 저를 대신하여 외식을 집전하고, 청년회 법회를 이끌며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자랑스런 우리 절의 신도입니다.

불교전문강원 학인 모집

나란다삼장불학원은 불교교양대학, 불교대학·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전문불자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들과 법사·포교사 및 불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 (사)한국불교금강선원에서 개설한 특별교육기관이다. 과목별 특강으로 경·율·논·선·밀교·의식 등 각 과목별로 한 과목씩 이수하여 수료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하며 스님들에게는 일어·영어·중국어 어학코스도 병설, 외국유학을 갈 수 있도록 주선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교육기간을 거쳐 수계하도록 하며 일반 사찰과 포교기관에 나아가 전법도생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한다.

▣ **모집과정**
사미과 (沙彌科) : 사미율의·초발심자경문·치문경훈·천수경·반야심경·아함경·예불의식·법회의식
사집과 (四集科) : 서장·도서·선문촬요·방등경·계율해설·비교종교학·구사론·장례의식·방생의식
사교과 (四敎科) : 능엄경·금강경·원각경·반야경·기신론·유식론 교단사·불공의식·기도의식
대교과 (大敎科) : 법화경·화엄경·정토사상(미타, 약사, 미륵, 밀교)·선문염송·전등록·삼론·교리발달사·제사의식
특별과정(외국어학과) : 영어·일어·중국어(회화중심)

▣ **교육기간** : 2년(과정별 선택, 통신반 가능)

▣ **개강일시** : 2002년 3월 9일 오후 2시

▣ **교 수 진** : 한정섭 박사, 김호암(한국불교통신대학원장), 남진각 스님(LA 대각사주지) 오형근 교수(전 동국대불교대학장), 최종안 교수(중앙승가대학 교수), 진하 스님(예술대학 주임교수), 혜인 스님(신흥사 주지) 외

▣ **강의시간** : 각 과별로 매주 월~목요일까지 오후7~9시

▣ **접수문의** : 나란다삼장불학원 교학처 (☎ 02-969-2410, 498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내

나 란 다 삼 장 불 학 원

한국불교예술대학 제6기 전수생 모집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는 불교예술의 계승발전과 불교예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무형문화제 제 9호(작법무 기능보유자) 이신 三歸 金海崗 큰 스님의 범패(梵唄)와 범무(梵舞)를 전수코저 제 5기 전수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불교전통예술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모집과정 : 기초과정** ▣ **모집인원 : 선착순 12명**
▣ **교육기간 : 각 과정 4개월 기본(1년 과정)** ▣ **모집기간 : 3월20일 ~ 4월20일까지**
▣ **강의내용 :**

	교육과정	교육내용
기본과정	기초과정	범음, 범패 강의 및 의식실습 육법공양 천수바라 작법무 법요의식 강의(석문의 범)
	중등과정	천수바라, 다게 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법요의식 강의(석문의 범)
	고등과정	사다라니 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법요의식 강의(석문의 범)
연구과정	대학과정	운심게, 삼귀의 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법요의식 강의(석문의 범)

▣ **강 사 진 : 한정섭 법사, 김진하 스님(무형문화제 제9호 작법무 준보유자)**
▣ **강의시간 : 매월 2, 4째주 수, 목요일 강의**
▣ **특 전 : 전 과정 이수자 중에서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거쳐 전공에 따라 전수자격증을 수여함.**
▣ **문 의 처 : 한국불교예술대학 교학처 (☎ 02-969-2410, 498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사) 한국불교금강선원 내

선·염불 함께 닦는 선정일여 수행법

2일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에서 열린 '중국 관정 대선사 초청대법회'에 6000여명이 넘는 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한 것은 최근의 정토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특히 이날 막 선방에서 나온 수좌들을 포함한 300여명의 스님들이 문답을 통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처럼, 정토선은 단순한 염불이 아닌 선(禪)과 염불을 함께 닦는 선정쌍수(禪淨雙修)의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눈길을 모으는 것이다.

관정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정토선은 선과 염불을 함께 닦는 선정일여(禪淨一如)의 수행법"이라며, "염불을 끊임없이 해나가되 드디어는 자성염불이 돼 일념-무념에 이르면 '염불하는 이 놈이 무엇인고(念佛者是誰)'라는 화두가 저절로 생기고, 결국 법신(法身)이 드러나 본래면목을 회복하게 된다"고 설했다.

관정스님은 스승인 허운대사 역시 '염불자시수(念佛者是誰)'란 화두로 견성했다고 밝히면서, 정토선이 단순히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타력신앙이 아닌 적극적인 자력신앙이며 말세 중생에 적합한 참선법임을 강조했다.

수행프로그램 엿보기

염불선

1. 관정스님의 정토선
2. 전국염불만일회의 염불결사
3. 청화스님에게 듣는 염불선

나무아미타불 묵송… 일념이 무념되게 수련

선정일여 수행법

그렇다면 염불과 선을 동시에 닦는 수행체계를 갖춘 정토선은 어떻게 선정일여(禪淨一如)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

관정스님은 먼저 체내의 자성(自性)을 환기시켜 염불하게 한 다음 행·주·좌·와의 경우에 스리없이 염하는 '나무아미타불' 불호(佛號)를 명심해 들음으로써 만념(萬念)이 일념(一念)으로 돌아가게 하고, 오래도록 견지하여 입정(入定)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불호마저 잊어버리면(無念無想) 곧 진심의 본래면목이 나타나 견성하게 된다고 한다.

즉 일차적으로 체내에서 자동적으로 불호를 외울 때까지 수행해, '자성염불' 즉, 명심견성(明心見性)이 되는 경지에 이르도록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침과 저녁에 정좌(靜坐)할 때 '일념'이 '무념'으로 되도록 수련하고, 온 몸이 공적(空寂)하고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경계에 이르도록 수련해야 '선'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주스님(인천 정토선원장)은 "신라말 '염불하는 그 주인공이 무엇인가'하는 염불화두가 유행해 자성미타유심정토(自性彌陀唯心淨土)에 입각한 염불수행이 고려시대까지 이어졌다"면서, "특히 나옹선사는 염불선을 강조해 '자성미타유심정토'를 화두로 삼기도 했다"며 정토선이 염불선의 한 형태임을 밝혔다.

두 패로 나눠 교대로 외고 듣는방식 효과적

정토선 좌법과 염불법

정토선의 좌법은 행·주·좌·와에 수행자가 소리없이 염하는(默念) 불호를 들을 수 있게 되면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두 번이나 네 번 정도 앉아서 수행한다. 매번 앉아 있는 시간은 한, 두시간으로 정한다. 앉을 때의 표준적인 자세는 머리를 바르게 하고 어깨를 반듯하게 하며, 눈을 실오라기 만큼 뜨고 입을 꼭 다물고 혀를 입천장에 댄다. 허리는 곧게 펴고 손을 미타인으로 하고 두 발을 포개고 앉거나 한쪽 발만 포개거나 자연스런 자세로 앉으면 된다.

정토선의 염불방법 또한 간단하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한마디 여섯 글자의 성호만 외우면 된다. 그러나 정토선은 일반 염불법과는 달리 두 사람 이상이 할 때 반으로 나누어 번갈아 염불하면서 듣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A반이 두 번 '나무아미타불'을 외울 때 B반이 주의해 듣고, B반이 두 번 외울 때, A반이 주의해 듣는다. 그러나 만일 한 사람이 염불한다면 자기가 먼저 불호를 두 번 외울 때 주의해 들은 다음, 소리를 멈추고 마음 속으로 두 번 묵념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때 사람의 청각은 매우 영민하기 때문에 일심으로 염불하면서, 귀로는 주의깊게 염불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월암스님(동국대 강사)은 "염불하는 동시에 귀로 듣는 이근원통(耳根圓通)의 수행법을 겸한 것을 볼 때 정토선은 능엄선적인 요소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토선 이해부족 안타까운 일"

인터뷰 중국 적수암사 주석 관정스님

중국 복건성 선유현 적수암사(滴水岩寺)에 주석하고 있는 관정스님은 15세에 복건성 남평개사에서 중국의 근대고승인 허운화상의 제자가 된후, 허운화상으로부터 참선법을 익혀 정법안장을 이어받고 육조혜능-청원행사로 이어져 온 중국 선종의 하나인 동운종(洞雲宗) 제48대 법제자가 되었다. 1967년 10월 25일부터 74년 4월8일까지 6년 5개월동안 선정에 들어 천상과 극락세계를 두루 참관한 후, 미국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21개국에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정스님을 2일 초청법회후 불교방송국 회의실에서 만났다.



◇관정스님

◆큰스님께서는 〈극락은 있다〉(붓다의마을 刊)라는 책에서 극락을 참관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불자들도 있습니다.

"불자자는 인과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나 자신이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해 끝없는 지옥에 들어갈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미타불의 지시를 받들어 대답하게 극락세계의 여러 경계와 수행법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마시오'라고 말하곤 합니다."

◆정토선을 홍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아미타불께서는 이 정토선 법문을 내게 전수한 다음 '이 법은 과거에 전해내려온 가지각색의 8만4천 법문의 총결정체이며, 심령을 다스리는 총화합약이라고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 선종과 정토종의 복잡한 수행체계들을 줄여, 말법시대 중생의 근기에 맞춰 보다 많은 도인들을 배출시키려는 것이지요."

◆정토선은 어떤 선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까.

"화두를 참구하는 법은 일념(一念)으로 만법(萬法)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최상승의 근기를 가진 이들은 그 한점을 통해 진심의 소재를 참오(參悟)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법시대의 중생들은 의심, 신심, 분심에 불을 붙여줄 명안종사를 만나기 어렵고 의정(疑情)이 돈발(頓發)되는 살아있는 화두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염불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이 화두는 본래 아주 좋은 화두이지만, 아미타불 성호를 몇 번 외우는 정도에서 화두로 참구한다면 의정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직 간절히 염불하는 동시에 참구해야 체내의 '염불자'를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더 '염불자가 누구' - '육체내의 그것' -을 참구하여야 '그 한 물건'을 참오해 낼 수 있습니다."

수행과정 환각 일체 아는체 말아야

'극락참관' 믿고 싶으면 믿고 싫으면…

◆한국에서는 불보살을 친견했다는 수행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보살을 친견하는 현상을 일종의 마(魔) 즉 환각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수행자가 공부하여 일단 정정(靜定)하면 장기간 잠재의식 속에 간직되어 있던 업식종자(業識種子)가 솟아나와 심령 속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때로는 신불(神佛)이 보이고 때로는 선악(仙樂)이 들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태는 깨달음이 실현된 것처럼 수행자의 심의(心意)에 각양각색의 현상을 나타냅니다. 수행자들은 이런 경계들을 보았을 때 일체 아는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수행자들의 수행과정에 나타난 법상과 경계는 내가 직접 들기 전에는 무엇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전상에 묘사된 불보살의 출현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환상은 차원이 다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내가 한국과 인연이 닿은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정토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심지어 폄하하는 분위기마저 있어서인지, 이 법을 닦아 견성한 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견성했다는 선사들과 절차탁마할 법거량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도 무척 아쉽습니다. 한국의 불자들도 신원행(信願行)으로 정토선을 닦으면 반드시 견성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행법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3월-바라밀의 달
- 발보리심
- 발보리심의 단계
- 창조적 자기변화
- 바라밀의 완성

발보리심의 단계

자애심 기르는 4가지 방법

티베트의 초펠스님은 쫑카빠 대사의 저술인 <보리도차제>를 편역한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에서 "발보리심은 일체 중생을 어머니라고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자애스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보리심을 일으키려면 일체중생을 자애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단계로 차례차례 마음을 닦아 나가야 한다.

1. 일체 중생을 어머니로 알라

일체 중생을 어머니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평정을 이루어야 한다. 평정하지 못한 마음에서는 좋고 싫음,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자연히 평상심을 잃게 된다. 마음의 평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증오심의 대상이 전생에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으로 미워하고 화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전생에 증오했던 사람이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증오심과 좋아하는 마음을 동시에 버려야 한다.

2. 은혜를 알아야 한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때 반드시 큰 고통을 겪는다. 우리에게 아픔이나 고통이 생기면 어머니는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신의 배를 먼저 채우는 법이 없다. 자식이라면 마땅히 그 고통을 모두 덜어 주어야 겠다고 생각해야 하듯이, 세상 모든 만물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부모은중경〉에서는 효를 보살행의 근본으로 강조한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지 못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3. 자비심을 가져라

스스로 고통을 느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듯이, 자비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고통에 대해 명상해야 한다.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도 자신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위해 수행하고 공부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 곧 모두를 얻는 것이요, 자비심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런 자비심이야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4. 자신과 남을 똑같이 생각하라

모든 고통의 원인은 자기만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생겨난다. 집착도, 탐욕도, 질시도, 반목도 모두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나'에 대한 집착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지 않음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와 남을 바꾸어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자신만을 귀중하게 여김으로써 얻게 되는 손실과 남을 귀중하게 여김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을 자세히 살펴라. 이렇게 하면 이기심과 이타심을 바꿀 수 있다. 한명우 기자

이상의 네 가지 단계는 단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한 단계씩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꾸준히 노력해 성취한 후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네 단계를 다 이루고 나면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한 생명을 위해 깨달음을 얻어야 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이 바로 보리심인 것이다.

풍수지리-관룡자로 명당을 찾자!



○ 관룡자란?
심룡척으로도 불리우며 이미 2천여년전부터 중국 황실에서 궁궐터나 황제의 묘터를 잡는데 사용되어오던 명당탐지기이다. 명나라이후 그 비전이 단절되었으나 월간역학에서 다년간 연구로 복원하여 이미 국내의 각계인사 300여명이 활용중인 제품이다.

○ 관룡자의 원리
명당의 현대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지구는 남극과 북극에서 각각 'S'극과 'N'극의 자장(magnetic field)을 발생하며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공전하는 거대한 자석이다. 자장의 작용은 전하(electric charge)를 발생하게된다. 따라서 지구가 생성된 후, 운석의 충돌로 인한 용해상태와 이로인한 수증기에 의한 수몰 등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장과 전하의 성질과 강약 정도에 따라 그에 이끌린 물질들이 모여들고 지구는 점차 굳어지게 되었다. 금이나 은, 기타의 광물질이 한데 모여 맥(脈)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전하와 -전하가 겹쳐져 중화를 이룬 곳에도 그에 이끌린 물질들이 모여 굳어졌는데, 이곳이 소위 말하는 명당이다. 풍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명당으로 알려진 곳의 지하 1.5-2미터 사이에서 출토되는 혈토(穴土)가 일반적인 토질과 다르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룡자는 +전하와 -전하가 중화를 이룬 곳에서 발산하는 특별한 지기에만 반응하는 특수한 합금을 내부에 탑재하고있으므로 틀림없이 명당을 찾을 수 있는 기구이다.

○ 증명
경복궁의 근정전·종묘·사직단, 해인사·송광사·법주사·통도사 등 전국 유명사찰의 대웅전 앞뒤의 중앙, 명동성당·영락교회·순복음교회·천도교 중앙교당 등 번창한 교회의 앞뒤 중앙, 전국 명당으로 알려진 묘의 앞뒤 중앙에서는 관룡자가 정확하게 작동하는 사실로 관룡자가 명당 탐지기 임이 입증된다. 가격 77만원

○ 구입방법
수협205-01-007564 진산실업(주)로 77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즉시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리며, 월간역학을 1년간 무료 기증해드립니다.

○ 월간역학 1년 정기 구독료는 9만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7만 5천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수맥탐지봉 1세트도 무료로 드립니다.

월간역학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 전화 (02)2264-0258

운세정보 800-8112 주역점·2002-2003년 토정비결·궁합·해몽법 등 다양한 내용

역학강의안내

1 대학의 '사회교육원'이나 '문화센타' 수준이 아닌,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여 정통적인 학설을 확실하게 가르쳐드리며, 과목당 3개월을 1개학기로하여 4개학기(12개월)에 각 과목의 수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수료한 분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며 수료 후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분은 본 교육원에서 발급하는 역학사 자격증을 받게됩니다.

2 수강료는 과목당 월 10만원, 정원은 과목당 선착순 40명이며, 등록은 1개학기인 3개월 단위로만 받습니다(3개월분 30만원).

3 수강신청 마감은 3월 16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수협205-01-007564 진산실업(주) 로 과목당 1개학기분 30만원을 입금하신 후 전화(02-2264-0258)로 주소와 성함, 전화번호를 불러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강의 시간표

교과목명	주야간	요 일	강의시간	개 강	강 사
사주명리학(1)	주간	월·수	10:30-12:20 14:00-15:50	3월 18일(월)	이성재
하락이수	〃	화·목	10:30-12:20 14:00-15:50	3월 19일(화)	이성재
사주명리학(2)	야간	월·수	19:00-20:50	3월 18일(월)	김재원
적천수천미	〃	화·목	19:00-20:50	3월 19일(화)	이선종
자미두수	〃	월·수	19:00-20:50	3월 18일(월)	김재현
풍수지리학	〃	화·금	19:00-20:50	3월 19일(화)	임학섭
성명학	〃	목	19:00-20:50	4개월 과정 3월 21일(목)	조용학
관상학	주간	토	16:00-19:50	3월 16일(토)	전용원
주자주역 연구	〃	토	14:00-15:50	3월 16일(토)	전용원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⑲

태양계 탐사

위성·행성 생명체에도 불성

천동설 부정된 지 500여년
佛法 지구에 국한
우주관 바뀌어야



그림 · 문병성

1958년 구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이 지구궤도를 돈 이후로 수많은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며 천체를 관측하고 있다. 또 외계로 나가 행성이나 위성들의 현지탐사를 계속하기도 한다. 46억년의 긴 지구 역사에 비하면 이러한 과학문명의 발전은 극히 찰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셈이지만, 이로부터 인간의 인식 세계는 더 이상 지상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현지탐사를 통해 확장되며 정밀해지고 있다.

오늘날 과학의 실험실은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지상의 닫힌 실험실을 벗어나 열린 우주의 실험실을 찾고 있으며, 자연 그 자체가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태양계에서는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에서부터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을 탐사해왔다. 지상 관측은 대기 중의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등에 의해 특정한 파장의 빛이 차단되고 또 빛이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빛이 약해지는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현지탐사에서는 지구대기라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 관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많은 정보를 직접 얻어오고 있다.

공기가 없는 수성 표면에는 수많은 운석 충돌구덩이가 있다. 이들은 40억 년 전에 작은 미행성들의 충돌로 생겼으며, 공기와 물이 없기 때문에 그 흔적이 아직도 계속 남아 있는 것이다. 금성에서는 짙은 구름 때문에 태양이나 별을 볼 수는 없지만 항상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 금성의 높은 대기압 때문에 지상에서 1kg의 물체가 금성에서는 100kg 정도로 무겁게 느껴질 것이며, 또한 걸어 다니기도 매우 힘들 것이다. 항상 붉게 보이는 화성은 크기가 지구의 반 정도이고 질량은 지구의 1/10로 적다. 태양에서 멀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영하 60도로 낮으며, 심한 먼지바람으로 화성의 계절에 따라 표면 색깔이 달라진다. 현재 표면에는 물이 없다 그러나 남극과 북극 쪽에는 얼음과 드라이아이스로 이루어진 흰색의 극관이 있다.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100 정도로 적고 미량의 수증기가 있어 얇은 구름도 생긴다. 만약 앞으로 화성에 신혼여행을 간다면 태양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특징을 지닌 다음에 3가지는 꼭 둘러보아야 한다. 첫째는 올림푸스 화산이다. 이것의 높이는 26km이고, 아래 폭은 약 700km로 지상에서 가장 큰 것의 3배 이상이다. 둘째는 마리너 대협곡으로 총 길이는 약 4,000km이 고, 폭은 200km, 깊이는 3~7km이다. 셋째는 지름이 약 1,800km이고, 벽 두께가 50~400km인 거대한 헬라스 분지이다. 이것은 먼 과거에 거대한 운석 충돌로 생긴 지형이다. 화성 표면에는 과거에 물이 많이 흘렀던 것으로 보이는 강과 협곡의 흔적이 많다. 지금도 동토층을 파면 그 속에 물이 얼음 상태로 들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먼 과거에 화성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무슨 이유로 오늘날처럼 생물이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으로 바뀌었는가?

우리는 화성의 과거 역사를 안다면 지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즉 오늘날 지구의 땅이나 대기가 심하게 황폐되고 오염되어 간다면 언젠가는 화성처럼 인간과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오늘날 지구인은 과학문명의 발전으로 부의 획득이란 욕심에 눈이 멀어 지구의 멸망을 재촉하는 것은 아닌지?

목성을 비롯한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대부분이 기체와 액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구처럼 단단한 땅이 없다. 이들 행성은 그 주위에 고리를 가졌고 또 많은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

지금까지 태양계 탐사에서 얻은 중요한 결과는 행성이 형성될 때 수많은 미행성들이 존재했으며 이들이 행성과 위성의 지형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 태양에서 멀리 있는 위성에는 두꺼운 얼음 층을 가진다는 것,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은 지구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만유가 생멸을 지니고 불성을 가졌다면 이웃의 행성이나 위성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생명체들도 불성을 지니며 불법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만유의 불법은 단순한 인간의 고통과 번뇌의 극복이나 탈피에 관한 협의적인 것이 아니라 만유의 존재와 그 변천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올바른 불법의 이해는 지구를 벗어나 시 · 공간적으로 넓은 세계의 사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함이 마땅할 것이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란 천동설이 부정된 지 500여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불법을 지구에만 국한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부당한 우주관인가!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10명중 8명이 가출생각

집나가고 싶은 아이들 집 나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최근 대전시 청소년쉼터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 4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출 충동 성향조사를 보면, 10명중 8명이 한번쯤 가출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가출이 '문제' 청소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우리의 고정 관념을 뒤흔든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무엇 때문에 집을 나가고 싶어 할까? 가출 청소년 510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이 집을 나온 이유는 '집이나 학교가 싫어서' '부모나 가족의 폭력'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이혼과 재혼, 가출 때문' 등 부정적인 가정 환경이 가장 많았다. 가출 이유가 우호적이지 못한 양육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심리 탓이다 보니 41.5%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집 나온 청소년들은 '친구나 아는 사람 자취방' 'PC방이나 만화방, 비디오방' 등에서 잠자리를 해결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 폭력,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집 나가거나 나가고 싶은 청소년들이 늘고, 가출 청소년들 중 80%가 두 번 이상 가출한 경험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이 붕괴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게 된다.

▨부자간, 형제간, 부부간, 친족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시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 주어야 한다. <무량수경>

▨부모는 자식을 돌보는 데 있어서 다섯 가지를 행해야 한다. 첫째는 악을 떠나 선에 나아가도록 함이요, 둘째는 글을 가르침이요, 셋째는 가르침과 계율을 받들게 함이요, 넷째는 일찍 아내를 얻게 함이요, 다섯째는 집안에 있는 재물을 급여함이다. <육방예경>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쫓아오게 마련이다.

<아난문사불길흉경>

禪과 21세기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②

마음 생기면 만법이 생긴다

의식의 변화상 통해 마음 알아채

임제가 보청(普請)으로 김을 매고 있을 때, 황벽이 오는 것을 보고는 괭이를 붙잡고 서 있었다. 황벽이 말했다. "이 놈이 피곤한가?" 임제가 말했다. "괭이를 아직 들지도 않았는데, 무엇이 피곤하겠습니까?" 황벽이 바로 때리자, 임제가 방망이를 낚아채 한 번 밀어서 넘어뜨려 버렸다. 황벽이 소리쳤다. "유나! 유나! 나를 좀 일으켜 세워다오." 유나(維那)가 다가와 부축하며 말했다. "스님 어찌하여 저런 미친놈의 무례를 용납하십니까?" 황벽은 일어나자마자 곧 유나를 때렸다. 임제는 괭이로 땅을 파며 말했다. "모든 곳에서는 회장을 하지만, 여기서 나는 일시에 산 채로 묻어버린다."

마음의 실상(實相)을 알지 못하면 의식은 살아 있으나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같다. 살아 있음은 곧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함이다. 마음에는 시간이 없다. 늘 지금 이 순간일 뿐이다. 법에는 공간도 없다. 늘 바로 여기 눈 앞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살아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보통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테두리 속에 살고 있다고 여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의식 때문이다. 의식의 특성은 차별하고 나누는 것이며, 차별하고 나누어서 어느 쪽은 취하고 어느 쪽은 버린다. 그러므로 과거의 일이 따로 있고 현재의 일이 따로 있으며 미래의 일이 따로 있고, 이곳의 일이 있으며 저곳의 일이 따로 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였고, 〈반야심경〉에서는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시간이 없다는 말이다.

시간이란 바뀌어가는 모양을 기억하고 저 모양과 이 모양을 구분하여 붙인 이름이다. 의식은 모양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모양들은 끊임 없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은 의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전에서 오온 · 십팔계라는 경험세계는 무상하게 변화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을 가리킨다. 이처럼 의식은 곧 모양이므로 의식에는 공간과 시간이 있다.

그러나 실상(實相)은 곧 무상(無相)이라고 하듯이, 의식의 본성은 모양이 아니다. 모양이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다. 마치 호수의 수면이 바람에 따라 끊임없이 다양한 모양으로 물결치듯이, 의식도 마음이 인연을 따라 끊임없이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한편 물결이 아무리 다양하게 변하더라도 호수는 항상 그대로이듯이, 의식이 아무리 다양하게 변하더라도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

물결이라는 모양은 바람을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물의 움직임이다. 마찬가지로 의식이라는 모양은 인연을 따라 움직이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마음은 움직임을 통하여 의식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사라진다. '마음이 생기면 만법(萬法=만 가지 모양)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만법도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하는 모양을 보고서 모양 없는 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눈 앞에서 움직이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의식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 그대로 있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본성에 따라 여여(如如)하게 살아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의식의 모든 변화하는 모양은 오히려 헛된 모양으로서 죽은 것이다.

자! 그러면 오직 모양으로만 드러나는 의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변함없이 살아 있는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이 눈도 마음도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야 하리라. 쉿!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http://www.mindfree.net/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신중탱화 paintings featuring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

대적광전 The Great Light Hall 비로자나불 Vairocana Buddha(The Buddha of Cosmic Energy)

In the main hall, there is a painting of Ksitigarbha, the Bodhisattva who helps the suffering of the nether world. On each side of Ksitigarbha stand five imposing figures. These are the Ten Judges. Other popular Buddhist paintings in the main hall is the paintings featuring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Shinjung Taenghwa). It is most often found on the right wall of the Main Hall.

대웅전 안에는 지옥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지장보살을 그린 그림이 모셔져 있다. 지장보살의 양 옆에는 각각 다섯 조상(影像)이 모셔져 있다. 이들은 십대왕들이다. 대웅전의 또 다른 그림으로는 신중탱화가 있다.

The Great Light Hall enshrines the Vairocana Buddha. Vairocana is depicted with his second finger hold by right hand. The Vairocana Buddha who embodies the wisdom of the Universal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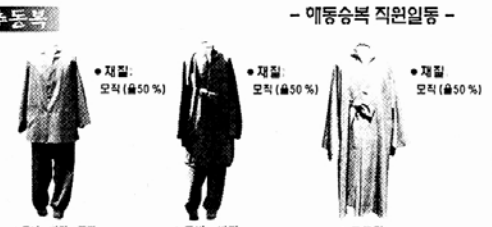
대적광전 안에는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감싸 쥔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다. 비로자나불은 우주의 법칙을 상징한다.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1.동방 · 바지 조끼 w160,000 / 2.동방 · 바지 w160,000 / 3.두루막 w140,000 — ●재질: 모직(울50%)

누비



4.동방 · 바지 : w200,000 조끼 : w60,000 / 5.동방 · 바지 : w220,000 / 6.두루막 : w160,000 — ●재질: 면+기볼고 보온성이 높은 고급솜

잔누비 조끼 · 동베



7.서초 : w60,000 바지 : w70,000 / 8.조끼+동베 w60,000 — ●재질: 면+기볼고 보온성이 높은 고급솜으로 품품이게 누볐음 / ●재질: 면아고 촘촘 적인 고급 재질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중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지역 대리점 모집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제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낳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蔓蔘(黨蔘)을 드시기쉽게 달여 드립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귀 대창 목재 대창 불교 건축

-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 환영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 판매 종류규격
-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20자, 24자 : 1자 ~ 1자 8치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 1자 ~ 2자까지
- 기둥 · 도리 · 대들보 · 일주문 기둥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요.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전화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H·P 019)327-0374

이종봉 합장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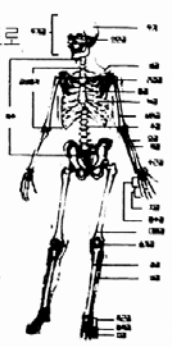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목어 친일청산 논쟁



"했다! 했다!" 누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반대 쪽 주장은 "안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렇게 전개되지 않는 논쟁이 우리 눈앞에 있다. 바로 친일 청산 논쟁이다.

한편에서는 한국 언론계를 나누어 지배하고 있다 시피 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업 사주들과 저명한 사회 지도층 집안의 친일 행적을 문제삼는다. 그런데 그 표적이 되고 있는 대상들이 태도는 분명 "안 했다!"는 아니다. 그 문제 삼는 방식, 정치적 불순한 의도…, 거기다가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소극적 친일에 비하면 그들의 긍정적 기여라는 측면이 훨씬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본다면 분명 그들이 친일적인 행적을 보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다면 그들의 친일 행적은 과연 어떠했으며, 다른 측면에서의 애국적 행적들을 조명하고 그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가 공개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친일 행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제삼는 것을 막아보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 편파적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 분명히 이야기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건 사실확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하지도 않은 채,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의 마당으로 문제를 옮겨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어느 정도 친일 행각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독립 후에도 계속 사회의 기득권층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일제 식민지의 잔재 청산을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가로막았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제 제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두자. 좀 환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화합으로 나가는 첫 걸음이다. 부끄러운 일을 계속 덮으려만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부끄러움을 낳게 된다. 화합이 중요한 이 시점에 왜 과거를 들추느냐고 말해선 안된다. 진실한 반성과 참회를 통해 분노의 앙금을 가라앉히는 것이 과거 청산과 민족화합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다.

성태용(건국대 교수·본지 논설위원)

사회 투명성으로 삶의 질 높이자

불자 세상보기



김징자 언론인 본지논설위원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를 살면서 좀 햇갈리는 단어가 여럿 생겼다. '준법' 이란 단어도 그 가운데 하나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노조가 파업을 할 때 '준법투쟁' 이란 말을 가끔 쓴다. 노조가 법을 지키겠다는데 당국이나 회사, 또는 이용자들로서야 '정말 잘됐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혼란만 오니 헷갈릴 수밖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 그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음' 을 고백한 것이 되는 데, 왜 그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야 했던 것일까.

그래,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운다지 않는가. 한국사회에서 법과 현실은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법은 법, 현실은 현실, 이렇게 서로 제가끔 따로 가다가 크게 한번 잘못 부딪치면 '파당' 큰소리 나게 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배워온 것이다.

최근 민주당 김근태 고문의 '불법 선거자금 사용 고백' 역시 그런 정치적 '준법 현실' 을 생각게 한다.

'아니, 김 고문이 그런 불법을 저질렀어?' 이렇게 놀라는 사람은 드물다. 김 고문이 비교적 청렴한 정치인이라 해도 '정치자금' 이란 으레 그런 것이며, 정치적 현실은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 모르는 국민이 별로 없는 것이다. 인터넷 네티즌들의 반응도 스스로의 불법을 고백한 그의 편에 서는 사람이 많다. 아니, 어떤 이는 '과연 그의 불법 자금이 그게 다였을까?' 혹시 +알파는? 이처럼 순수성을 의심도 한다.

오늘을 사는 한국인들 가운데 뇌물의 상납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 이 '고백' 을 두고 호들갑을 떠는 정치인이나 언론을 보며 냉소를 날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최근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90%가 한국을 '부패한 나라' 로 보고 있으며 언제든 그 대열에 합류 할 용의까지 있다는 사람도 상당수였다. '썩을 대로 썩었다'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동서양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팥에 불과하다.

"다 그런데 뭐" 냉소주의 팽배
고질적 부정부패 근절 걸림돌
팔정도 가르침 되새겨야

돈을 손으로 만져서는 체면이 아니라던 '선비정신' 으로 무장돼 있었던 조선시대에도 왕조실록에 보면 뇌물 비리가 3천 건을 넘어 헤아린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패방지법' 에 해당할, 뇌물방지를 위한 상소문도 수 백건이 발견된다. 구미 선진민주주의 국가라 해서 부정부패가 없는 것은 아닌 모양으로 외신은 그들의 온갖 부정부패 사건들을 날마다 전해준다.

그럼 '세상 다 그런데 뭐' 하고 눈감고 말아야 할까. 그런 냉소주의가 한국사회의 고질적 부정부패 지수를 계속 올려 왔을 것이다.

김근태 씨의 '고백' 은 이제 썩을 대로 썩은 그 정치현황 속에서 정화의 물고를 열려는 '참회 적 고백' 으로 보인다. 그런 참회적 고백은 진작부터 있었어야 했으며 많은 국민들이 기다려 온 것이기도 하다. 물론 고백의 주체가 보다 거물정치인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인간들의 세상에서 부정부패를 싹쓸이로 내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질은 사회의 투명성으로 보장된다. 우리는 정치자금에서부터 투명도를 높여 가며 이 사회를 조금씩 정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부정부패와 싸우겠다' 는 지금의 김근태 씨에게 부처님이라면 '팔정도' 의 가르침을 내리실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생각

염주착용

염주는 불자들에게 신심도 높여 주고 불자라는 자부심도 심어준다. 붓다뉴스 설문조사에 참여한 82명 가운데 62%에 해당하는 51명이 항상 염주를 지니고 다닌다고 답했다. 지니는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기 위해서(29명, 55%)와 불자라는 자부심으로(19명, 36%)의 순이었다.



"항상 지녀" 62%…"자부심" 36%

반면, 염주를 장식용으로 착용한다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인기 연예인 불자들이 염주나 만(卍)자 목걸이 등으로 코디를 하고 출연하는 추세와 관련해 제기됐던 염주의 장식품화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임연태기자

열린마당

포교비용 조달·운용방안

현 조계종 포교사의 약 70%가 사재를 출연해 포교비용을 충당하는 등 대부분의 포교비용을 포교사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포교사회학과) 교수는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이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한 '포교비용 마련 방안과 효율적 운영' 주제의 창립 2주년 기념세미나에서 포교사들의 직접적인 포교비용에 대한 종단 및 사찰, 단체 등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응철 교수의 발제문과 임동현, 정병조 포교사의 토론문을 통해 이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사찰·포교기관서 예산책정을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포교사들의 월평균 포교비 지출액은 약 16만원 정도로 효과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포교사의 약 70%가 포교활동비를 사재로 출연해 충당한다고 응답했으며, 회원의 회비로 활동하는 포교사는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교사 70%가 私財털어 충당

전체적으로 보면 포교사 한 사람이 포교활동을 전개하는데 월평균 적정 활동비가 40여만원 정도 투입되어야 하는데, 각 단위 사찰에서는 매월 포교사에게 이 정도의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포교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포교사 개인의 원력과 노력에만 맡겨진다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포교활동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각 사찰이나 각급 종단의 기관과 단체에서는 최소한 종헌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포교사' 채용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모든 포교사가 유급의 직업포교사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을 지니고 책임감을 갖고 일할 정도의 포교예산의 배정은 포교발전의 선결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교에 대한 종단 구성원들의 마인드가 제고되어야 하며, 단위 사찰이나 포교당에서 재가 포교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포교는 사부대중이 모두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처님이 부촉하신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위사찰이나 포교기관에서는 포교비용 책정을 위해 연간 예산중 일정액을 할애하거나 신도들의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신도들의 후원항목에 포교항목을 신설해 매월 정해진 액수를 후원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교구본사 차원에서는 포교사들의 연수교육이나 재교육 등을 실시해 포교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병조(회계사)



'포교활동 비용의 조달과 효율적 운용방안' 을 다른 말로 환언하면 독립채산제에 기초한 자전적(自轉的) 운영방안 또는, 자립형 재정안정확보책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 가지 엄연한 사실은 포교활동이 확대되고 구체화되면 될 수록 이에 상응하는 활동비용의 규모도 정비례하여 증대된다는 점이다.

기업형 수익모델 고려해봄직

포교사단의 현행 수입은 회비, 유관단체의 지원금, 특별행사 모연 수입금, 포교사 개인 부담금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 몇가지 한계성을 안고 있다. 포교사들의 개인 부담금 내용의 비공시화 경향을 비롯해 일회용 종결로 동참의식의 부진유발, 사후결과에 대한 분석과 홍포의 미비(계수적, 성과분석적 측면)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 포교환경의 재조명과 정비를 비롯해 건전한 재정안정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형 수익사업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수익사업의 모델은 이로 인한 부작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사랑과 전법에 대한 열정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포교사단 중앙운영위 산하에 상설기구로서 연구발전 목적의 기획자문위를 구성해 불교적인 사업들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임동현(봉은사 포교연구실장)



포교비용 조달이 포교사 개인에 전적으로 의존되고 있는 것은 종단에서 포교사 제도에 대한 충분한 전망을 가지지 못한 채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별다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라도 포교사 제도에 대한 종합적 전망을 종단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운용은 팀별보다 중앙단위로

종단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현 시점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방법은 포교사단 스스로 포교기금을 조성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포교사의 자기개발에 필요한 비용, 즉 포교사의 각종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만은 종단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포교사를 배출한 종단의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기금조성의 구체적 방안을 생각해본다면 활동분야별로 소속포교사와 그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고 일반 불자들로 하여금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믿음이 가는 분야 또는 팀에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금의 관리는 팀별이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통일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포교사들의 활동능력 개발을 위한 비용은 종단에서 책임지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교사단에서 조성하되, 조성방식은 일반불자들의 포교에 대한 열의를 구체화시키는 대중적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속리산 법주사 청동대불 개금불사

○청동 정밀 주조
○청동 대불 도금 불사

匠人의 魂

장인미술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 307번지 TEL : 031-332-2680
금 불 원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무봉리 534-1 TEL : 031-542-0110
불사문의 011-215-4491



※ 한국 최초 "육성 도금" 기법

해인사승가대학입방공고

한국불교의 요람이며 전통승가교육의 산실인 해인사 승가대학(강원)에서는
신입생 및 편입생 방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치문반 00명
- 사집반 0명

준 비 물

① 사진(오조가사 복장 / 3×4cm) 8매
② 입학금
③ 대가사(사미는 만의), 오조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도장(법명)

구비서류

①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1부
② 승적증명서(총무원 발급) 2부
③ 행자교육 수료증 사본(총무원 발급) 2부
④ 수계증명서 사본(총무원 발급) 2부
⑤ 주민등록초본 2부
⑥ 호적등본 2부
⑦ 건강진단서 2부
⑧ 은사스님 추천서 1부

전형방법

● 1차 입방
◆ 서류제출일 불기 2546년 2월 9일(양력 2002년 3월 22일) 금요일
◆ 서류심사 및 면접일 불기 2546년 2월 15일(양력 2002년 3월 28일) 목요일
◆ 입방일 불기 2546년 2월 16일(양력 2002년 3월 29일) 금요일

● 2차 입방
◆ 서류제출일 불기 2546년 3월 5일(양력 2002년 4월 17일) 수요일
◆ 서류심사 및 면접일 불기 2546년 3월 6일(양력 2002년 4월 18일) 목요일
◆ 입방일 불기 2546년 3월 7일 (양력 2004년 4월 19일) 금요일

문의처 ● 전화 055)931-1016, 1017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불기 2546년 월 일

해인사승가대학 주지 수봉세민 · 학장 정혜지오

불교의식 (범음 범패) 수련생모집

바라작법 특별반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 합니다.

-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 지도과정 : (1) 출강 ·····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후 5시~7시(2 시간)
  (2)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학습내용

① 송주편 (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 (상단예불 · 조석예불 · 각단예불 · 향수해례 · 사성례 · 신중단 등)
③ 헌공편 (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 (관음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마감 : 2002년 4월 6일까지(현재 접수 중)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 개강일시 : 2002년 4월 10일 수요일 오후 5시, 본 대학 강의실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의 특징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지도와 편의 제공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 치 : 서울 조계사 근처

바라작법반 모집

- 49재, 천도재 등 법회시 바라 작법 및 북 · 태징 · 사물 다루는 법을 자세하고 완벽하게 지도합니다.
- 수련기간 : 6개월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5시 ~ 7시
  화요일 3시 ~ 5시
- 개강일시 : 2002년 4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
  본 대학 강의실
- 학습내용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법주 · 바라지 교육전문)
  · 작법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복청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 사물 : 북, 태징, 사물교육포함
- 접수방법 : 불교의식 속성반과 동일함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전화 (02)720-1836 · 733-1959
Fax (02)737-5305
http://pubsa.buddhism.org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건전지용 쵸.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가 6배(특 월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031) 986-0277~8
http://www.bulje.co.kr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北韓 金剛염주

국내시판

북한의 세계적인 신비의 명산품 금강염주 셋트 한정분



잡귀들이 보기만 하여도 도망친다는 금강염주

金剛염주의 신비

神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북한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신비의 명산품으로 원효대사께서 참선안거 하시던 평안남도 온천군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희귀광석으로 악귀와 액운을 쫓고 건강과 소원이 성취된다는 금강염주입니다. 金剛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신비한 영험으로 모든 잡귀들이 보기만 하여도 도망쳐서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염주중의 최고의 염주입니다. 金剛염주는 북한의 고위층 인사들과 일부 스님만이 사용하는것으로서 일반인은 구경조차 못하는 신비의 희귀 광석으로 상온(현재온도)에서 氣와 원적외선 93%가 24시간 방출되는 세계유일의 광석입니다.



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는 금강염주

신청문의 전화 02)704-6868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고 대금 ₩195,000을 아래 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든 신비의 금강염주 SE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농협 : 1127-02-175765

국내독점보급
金剛 닥터KOREA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48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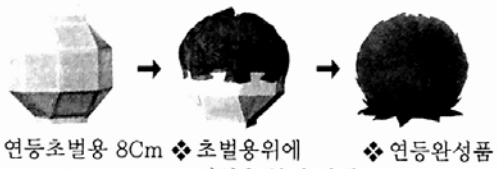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연등초벌용 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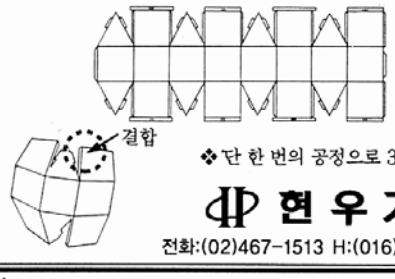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02)467-1513 H:(016)552-9360

天物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54-3733

各종 佛事 상담
一心佛院
代搖, 小佛
佛具, 생화,
단청, 단청
불교용품일체
☎ 02)725-2030, 2040 (조계사옆 포교원 입구)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35
팩스 : 02)737-0590

소외된 곳에 훈훈한 온정… '숨은 보살행' 봇물

7일 오후, 신문사 편집국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할머니 한 분이 알아듣기 힘든 어눌한 발음으로 연신 고맙다며 흐느꼈다.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본지가 펼치고 있는 '연중기획 나눔의 손잡기 운동 - 후원합시다'가 본지 358호에 보도한 경기도 안성시 굴암사 주지 보덕(71) 스님.

보덕 스님은 며칠 전에 걸려온 전화통화 내용부터 꺼내 놓았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팔순이 넘은 한 비구니 노스님이 "현대불교신문 기사를 잘 읽었고 본인도 고아로 태어나 절집에서 컸다"며 보덕 스님에게 여생을 '형제'처럼 함께 지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삶을 회향하자고 말했다는 것. 오갈 데 없이 버려진 아이들을 40여 년 넘게 보살펴 온 보덕 스님은 "아이들이 '할머니'가 한 분 더 생겨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안숙자 씨의 팔을 매만지고 있다.



◇불가침구학회 회원들이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침을 놓고 있다.

산마을 목련의 집

지칠때 읽어보라 불경선물
정수사서 내복·양말 보내

소쩍새 마을

'후원합시다'에 성금답지
격려 방문 꾸준히 늘어

본지가 '후원합시다'에서 그동안 소개한 강원도 원주 '소쩍새마을' 등 미인가 복지 시설과 불우 이웃들에는 기사가 나간 후 각각 2~3백만원의 후원금이 답지되는 등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은 이들 단체를 직접 찾아 가거나 위로전화를 건네는 등 이러운 이웃을 도우려는 사람들과 그 마음을 따뜻하게 받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만남이 계속되고 있다.

떡·과일 격월로 보내와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성 39명이 살고 있는 서울 목동 '여성노숙자 쉼터 화엄동산.' 이곳에는 자신의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훈훈한 온정을 전해오는 사람들이 있다. 대중목욕탕에서 때를 밀며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돈을 보내온다든가, 300백만원짜리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 매달 한 번씩 소금 한 포대를 보내는 것을 잊지 않는 후원자가 있다. 여성노숙자들에게 '속옷'만큼은 새 것을 꼭 사주라고 후원금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또 강원도 영월 법흥사에서는 두 달에 한 번 과일, 사탕, 떡 등을 모아 보내오고 있다. 김기혜 소장은 "비구니 스님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덕택에 턱없이 부족했던 생활필수품과 약품이 조금씩 늘고 있다"며 고마워했다.

본지 357호에 소개된 경기도 포천군 '산마을 목련의 집'에도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치매를 앓는 친정어머니를 13년간 돌봤던 양영화 원장.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불쌍한 노인들을 어머니처럼 모시는 사연이 알려지자, 인천에 산다는 어느 비구 스님이 직접 찾아와 "지치고 힘들 때면 꼭 읽어보라"며 〈묘법연화경〉 한 권을 손에 쥐어 주고 갔다. 또 부산에 사는 보살은 10년 넘게 중풍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을 때마다, 양원장의 보살행을 떠올린다며 "앞으로 시어머니를 부처님을 공경하듯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했다. 김해시 정수사에서도 내복과 양말을 양원장에게 보내와 목련의 집 할머니들의 겨울은 한결 따뜻해졌다.

경제는 아직 어렵고 사회는 날로 각박해지지만 최근 이렇게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소쩍새마을, 연꽃마을 등 불교사회복지단체의 후원금이 올 해 들어 20~30% 내외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불교 자원봉사자의 경우 연꽃마을이 최근 내놓은 '2001년도 자원봉사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99년과 비교해 자원봉사자 수는 4배 가까이 늘었고, 특히 단체 봉사팀은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발표돼 물질적인 보시뿐 아니라 몸으로 직접 돕겠다는 자비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있어 스님과 재가불자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나서고 있고, 결연맺기, 폭넓은 자원봉사활동, 후원금 지원 등 후원의 형태도 다양하다.

결연·자원봉사·후원금 등 다양

자광원 날개회

목욕시키기·세탁·함께 외출
말벗되어주기 등 봉사활동

송광사 학인스님들

한국심장재단과 결연
15명 수술지원·5명 준비중

자신의 치료비도 내놓아

전남 순천 송광사 강원 학인 스님들은 한국심장재단과 결연을 맺고, 심장병 환자들을 돕는 보살행을 펼치고 있다. 지난 99년 9월 21일 1차 후원을 시작으로 2002년 2월까지 20여 환자들을 지원하여 열다섯 명이 수술을 했고, 5명이 수술을 준비 중이다. 심장재단과 강원 스님들의 인연은 학인 보원 스님의 원력에서 출발한다. 기나긴 암 투병생활을 했던 스님은 항암치료 등 모든 치료를 접고, 자신의 치료비로 남겨둔 돈까지 심장병 환자에게 후원금으로 내놓았다. 스님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남을 돕겠다"며 "중생들을 위해 살다간 성인들의 자취에 보답하겠다"고 발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팀 '자재회' 회원들이 경기도 화성에 노인요양원 자제정사를 매주 금요일에 찾아와 어르신들에게 발맛사지 봉사를 하고 있다.

청년 불자들의 자원봉사 활동도 눈길을 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무의탁 노인요양원인 자광원(원장 김정재)에서 17년 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봉사단체 '날개회(회장 김태식)'. 이들은 매월 이곳을 찾아와 목욕, 세탁, 배변 도와드리기, 함께 외출하기, 말벗되어주기 등 봉사활동을 자광원이 설립된 이래로 꾸준히 해오고 있다.

"아름다운 인연 이어갈 것"

이외에도, 당뇨병이 악화돼 사경을 헤매던 3년 전부터, 소쩍새마을을 후원하고 있는 유향숙 씨(45, 경기도 여주). 그는 "온갖 질병과 싸우는 장애인들을 보면 내 몸의 병을 잊게 되고, 대화하기, 청소, 목욕시키기, 물건 정돈 등의 봉사활동을 땀 흘려 하다 보면 당뇨병이 사라진 듯해,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오히려 봉사를 즐거워 한다.

아예 조직적으로 자원봉사 및 후원활동을 하는 봉사단체도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시민대학'에서 배출한 자원봉사자들을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사회복지과가 추천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집에 직접 파견하고 있다. 특히, 불자련은 지난 95년 창립 때부터 '복지교화사'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서울 노원구, 성북구 등 3곳에서 7명이 활동하는 이들은 지역 내 불우 이웃 가정 방문 · 상담과 염불봉사, 간병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 길동 '관음의집' 신오숙(54) 총무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소년소년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큰 환희심과 기쁨을 갖게 된다"며 "앞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김철우 기자 n-g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스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스님은 소득이 없어 카드 심사에서 번번이 제외 되신다고요?
부다피아 하나 카드는 스님께 우선적으로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동국대 병원 의료비 5~20% 할인 !!
조계종 스님은 물론 다른 종단 스님이라도 부다피아 하나카드를 소지하신 분이면
누구나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해당됩니다.)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 대표 : 02) 6678-111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908번지 현대월드타워 1115호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⑰ 수학무학인기품

아난다의 서원과 라훌라의 밀행

이 '수학무학인기품'의 내용은 아난다와 라훌라 및 2천 명의 샤이크샤(Saiksa) 즉 배우고 있는 사람(學人)과 아샤이크샤(Asaiksa) 즉 배움을 마친 사람(無學人)들에 대한 수기이다.

부처님의 시자 아난다와 부처님의 큰아들 라훌라는 지금까지 샤리푸트라를 비롯한 많은 성문들이 수기받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 수기를 받고 싶다고 원했다. 배우고 있는 사람과 배움을 마친 2천 명도 똑같은 마음이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아난다에게는 '큰 바다와 같은 지혜의 노닐음에 통달한 분'이라는 산해혜자재통왕불(山海慧自在通王佛)이, 라훌라에게는 '일곱 가지 보배로 된 붉은 연꽃을 밟고 넘어가는 분'이라는 답칠보화여래(踏七寶華如來)가 되리라고 수기하셨다. 이때 새롭게 불도에 뜻을 세운 보살들 8천 명은, '대보살마저도 얻을 수 없는 부처님의 성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난다의 경우, 아무래도 다른 제자들과 같은 순수한 귀의가 어려울 것이다.

육신의 아들도 마찬 가지여서,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분일지라도 외부의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도리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가까운 사람 즉 아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또는 아들이라든가 혹은 부모를 교화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 된다. 이런 사람은 말로써 인도하려고 해도 쉽사리 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생활 속에서 실제의 행에 의해서 감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 행이라는 것도 훌륭한 일은 가끔 있을 뿐, 평소에는 자기 중심적인 행위나 보기 흉한 행위가 더 잦다면 감화의 결실을 거둘 수 없다. 항상 끊임없이(常住不斷),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도저히 가족이나 직장의 동료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무설정사 조실

가르침 간직·보살교화 서원 아난다
미래세 성불, 부처님법 계승 라훌라

이 왜 성문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그 보살들의 의문에 응답하여 설하신 것이 아난다의 과거이며 라훌라의 밀행에 관한 것이다.

"아난다와 나(부처님)는 그 옛날 전생에서 '가르침의 하늘에 오른 임금'이라는 부처님 즉 공왕불(空王佛) 아래서 불도를 지원했었다. 아난다는 항상 많이 듣기를 원했고, 나는 언제나 열심히 정진했다. 그리하여 나는 불도를 완성할 수 있었으나, 아난다는 가르침을 지켜 간직(護持)하고 또 장래에 걸쳐서도 부처님의 교법을 호지하고 많은 보살들을 교화할 것이다. 이것이 아난다가 전생에서 품은 서원이었던 것이다."

이상이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수기를 주실 때 들려주신 전생의 사연이며 아난다는 이것을 듣고 즉시 과거의 기억을 되살린 것이었다.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아들인 라훌라를 향해 설하신다. "라훌라는 미래 세에 성불할 것이니, 무수히 많은 부처님을 섬기고 그 여러 부처님의 맏아들이 될 것이다. 라훌라는 줄가 전에는 석존



◇석천스님은 자신의 본래 바탕인 자기불을 만날 때까지 일념정진할 것을 당부한다.

"사람사는게 죄다 방생인줄 알아야 해"

가까이서 뵌 큰스님

석 천 스 님 (한산사 주지)

스님의 도량(道場)은 바다다.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 위에 떠 있는 150여 개의 섬들이 저마다의 비경을 뽐내는 한려해상공원. 관음도, 미륵도, 세존도 등 섬들의 이름에서 불교와의 진한 인연을 느낄 수 있는 한려수도의 바다를 만나기 전 동백이 진 뒤 한뼘이나 자란 보리밭 골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남녘의 봄을 먼저 만났다. 봄기운 때문일까. 바다로부터 아우성의 먼 여운 같은 것이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거제시 법동마을에서 30분 뱃길을 지난 곳에 한산도가 있고 그 해안에 제비집 같은 한산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지만 정작 석천스님은 법동마을 간이 선착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용궁호, 관음호 등 다섯 척의 선박법당이었다. 스님은 무척 바빴다. 마침 정월달이라 전국에서 방생 오는 신도들을 맞이하느라 쉴 틈이 없었던 것이다.

석천 스님은?

관음보살 친견 원력…배 5척 海上법당 11년

1928년 황해도 옹진에서 출생한 석천스님은 동화사에서 서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젊은 시절 여러 선방에 방부를 들이고 각처의 선지식들에게 법을 물었다. 동화사에서 9하안거를 성만했고 문경 김룡사 금선대에서 서암스님을 모시고 정진하기도 했다. 서울 보광사와 하북 원적암 등지에서 바랑을 풀기도 했고 제주에서 토굴생활을 하기도 했다.

관세음보살 친견원력을 세운 스님은 통영시 한산도 한산사에 거처를 정하고 한 척의 소형 배로 해상법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5척의 해상법당을 도량삼아 포교와 정진에 매진하고 있다.

선박을 개조해 해상법당을 운영한지 11년. 스님은 75세의 고령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익숙한 솜씨로 키를 움직여 배를 운전했다. "이게 뭐 솜씨랄 것이 있나. 바다가 늘 잔잔하니 뱃길도 수월하지" 선장이기도 하고, 기도 온 신도들 앞에서 법문을 하는 법사이기도 한 스님에게 배를 운전하는 일은 목탁을 치는 일만큼이나 간단한 일상이 돼 버렸나보다.

신도들의 승선이 끝나자 배를 잠시 후진했다가 한산도를 향해 길을 잡았다. 작은 섬들이 손에 잡힐 듯 스쳐지나가고 갈매기들이 손수건처럼 펄럭이며 배를 따라 왔다. 법당에서는 천수경을 시작으로 기도가 시작됐다.

"한산사는 외진 곳이라 신도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전국에서 찾아오는 신도들이 다 이 해상법당의 신도들이지. 내 절 신도 네 절 신도를 따지는 일 자체가 의미가 없어. 일체중생이 다 부처님 신도면 된 것 아닌가."

나와 自己佛 일체돼야 성불
기복은 佛과 거래하자는 것

석천스님이 해상법당을 시작한 동기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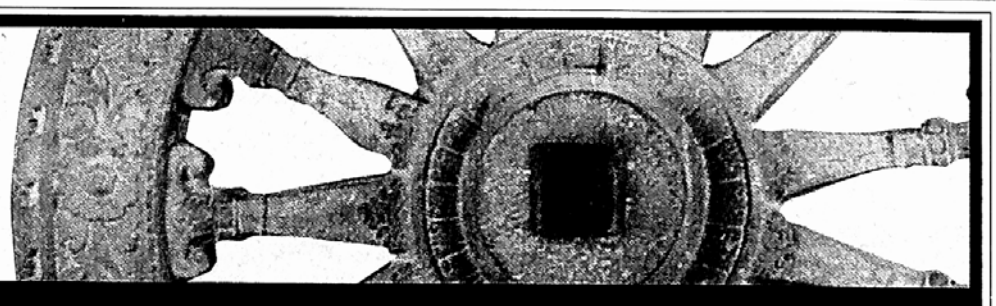
"방생이라는 방편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해요. 생명을 살려주는 일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가장 적극적인 자비의 실천이죠. 생명을 풀어주고 살려주는 그 순간에 보살심의 씨앗이 맺히고 언젠가는 그 씨앗에서 줄기가 나고 잎이 돋고 열매가 익습니다. 성불의 열매를 방생이라는 자비의 씨앗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편에 떨어져 그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방생을 기복의 수단쯤으로 여기는 신도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스님은 "사람 사는게 다 방생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 남에게 따듯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방생이고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자신을 향한 방생이라는 것이다. 삼독심이 일으키는 번뇌와 집착으로부터 자신을 방생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불자의 당연한 도리다. 그래서 석천스님은 해상법당을 찾는 신도들에게 "무엇을 빌려는 방생이 아니라 자신의 보살심을 발아시키는 지극한 마음을 일으키는 방생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물고기 한 마리를 살려주는 대신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것은 방생이 아니라 부처님과 거래하자고 나서는 것에 불과해요. 이 한 마리의 물고기가 전생에 나의 부모형제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풀어서 살려 주어야 하겠지요. 그런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도 필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불자라면 생일날만큼은 반드시 방생을 하라고 권해요. 자신이 태어난 중요한 날 다른 생명을 풀어주고 살려준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복되게 하고 연장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꼭 방생도량을 찾아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고 부모님이 낳아준 고마움을 다시 새기는 것도 생일방생의 좋은 방법이예요."

석천스님은 출가 이후 줄곧 선방생활을 했었다. 화두를 타파하기 위해 용맹정진을 하고 만행도 했었다. 그러나 만나는 선지식들이 일러주는 공부 방법을 따랐지만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벗어 던질 수가 없었다. 마침내 서산 개심사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정진하는 100일 용맹정진을 홀로 성만하고 난 뒤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자는 서원을 세운 것이다.

"성불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부처를 이룬다는 말인데,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와 내가 희구하는 자기불(自己佛)이 일체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하여 그 자비와 구세구난의 원력을 이



조계사
대.한.불.교.조.계.종

실천하는 불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1기 조계사불교대학원 신입생모집

과정
2년 4학기제 / 주 1회 / 학기당 16주 강의

특징
방학특강 실시, 수행실습, 수행도량 탐방, 상담심리학 특강
불교의식 특강 등 다양한 강좌를 개최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교과목
교학 및 수행과정(화엄경, 대지도론, 아함경, 유마경 등)
불교지도자 리더십 / 세계불교의 현황과 활동
공동체문화와 타종교의 수행

지원자격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서 인가한 불교대학 졸업생
또는 동등 자격자

모집부문
주간반 50명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야간반 50명 매주 금요일 오후 6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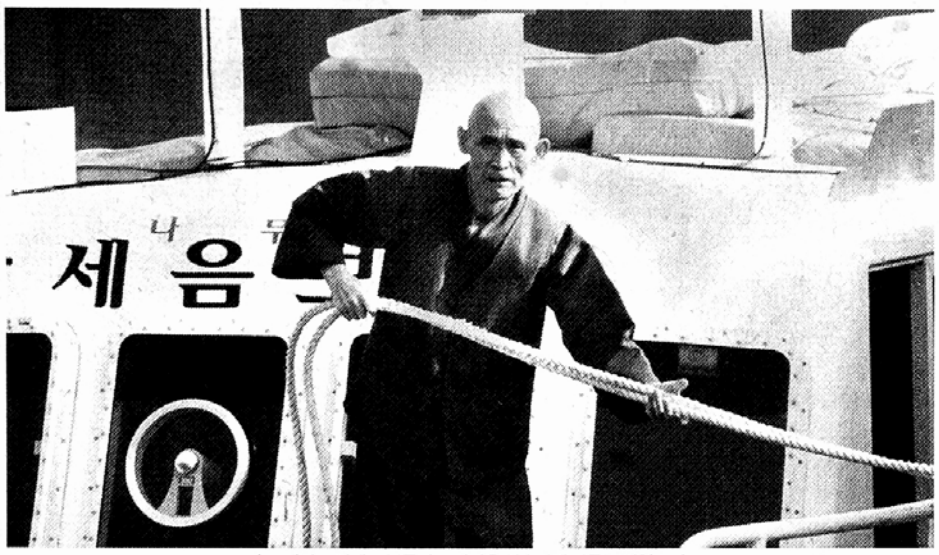
제출서류
본원 소정양식의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불교대학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 1부

등록안내
등록금(학기당) 45만원
가족(부모 · 형제 · 자매 · 부부)2인 이상 불교대학을 동시에 수강할 경우
한 분에 한하여 등록금 50%, 국가 유공자 50%,
생활보호 대상자 80% 할인

원서접수
2월 25일~3월 15일

개강
2002년 3월 15일(금)

문의 및 접수 포교국 720-1390, 6742



◇7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익숙하게 다루는 석천스님.

무구무착이어야 순일





◇바다에 떠있는 해상법당의 외형(왼쪽)과 내부(오른쪽) 모습.

하나 꿰뚫어 전부 통하는 길 열때까지 정진

루겠다는 서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40여 년 간을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원하며 살고 있는데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일 것이다. 스님은 기도하는 신도들에게 일념으로 임하지 않는 기도는 필요 없다고 잘라 말한다. 오매불망(寤寐不忘) 자기불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을 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관음도량에 가면 관음기도를 하고 지장도량에 가면 지장기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관음보살을 자기불로 정했으면 도량에 관계없이 자신이 존재해 있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관음보살만을 생각하고 관음의 자비행을 따르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심정진이 익고 또 익으면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조사들의 가르침도 다 하나의 불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기도에 관음이다 지장이다 미륵이다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여 타력이나 기복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죠. 본래의 자기에게 내재된 불성을 각각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근본은 하나입니다. 본래의 청정한 불성을 내증하여 대자유의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편이 목적이란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무엇이 방편이고 무엇이 목적인가를 잊고 기도에 임하기에 그런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성불합시다"
"미안합니다. 성불합시다"
이보다 좋은 축원 없어

뜻을 세우는 것. 자신이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승가에 귀의한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정돈하는 입지가 부족하면 염불, 기도, 간경, 참선 등의 수행이 성숙될 수 없다. 그래서 스님은 정진은 자신이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선지식들을 찾아 어떤 정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가를 물으라고 권한다.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근기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관통하라. 자신과 자기불의 마음자리를 곧바로 꿰뚫어 관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석천스님이 강조하는 가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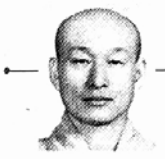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에 오직 한 마음으로 자기불을 염원하고 응시할 수 있는 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정진이지요. 선사들이 하나의 화두를 타파하여 1700공안을 다 열어버리듯 오직 하나의 자기불에 계합하면 일체의 불보살들이 다 자기 밖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를 꿰뚫어 전부로 통하는 길을 열 때까지 일념정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앞서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무구무착(無求無着)이라 했어요. 구하는 것이 없어야 집착도 없고 집착이 없어야 공부가 순일할 수 있다는 것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가 순일하면 구하는 것은 저절로 간파가 되어 이루어지고 얻어집니다.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공부는 허사입니다."

공부의 극점에 도달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일념을 근본으로 하는 그 길을 가는데 반드시 챙겨야 할 여장이 없을 수 있겠는가. 석천스님은 두 가지를 주문했다. 인사 잘 하기와 입 조심이다. 석천스님이 주문하는 인사 잘하기는 다름이 아니라 반드시 "성불하세요"라는 말을 인사에 붙이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죄송합니다. 성불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불하세요" 등등. 성불이란 부처를 이루는 것인데 상대방에게 그 이상 좋은 축원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인사를 하는 사이에 그 공덕이 자신에게도 쌓이는 줄도 알아야 한다.

입 조심은 궁극으로 마음단속이다.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입으로 뱉어 내는 데는 절제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뿐 아니라 숙세의 공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억겁의 복전을 이루기도 하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할 일이다.

인사를 잘하는 것과 말을 조심하는 것이 몸에 배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수행도 일념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일념에서 자기불을 관통할 때까지 끊임없이 정진하면 방생이나 기도, 각종 재의식의 공덕도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 스님의 설명을 듣는 순간 배는 어느새 한산도 선착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글·사진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 기후스님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서로 통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며, 취미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만나기 마련이다. 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다는 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친구가 있었다. 친구는 세속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중의 수도자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친구의 사전적 의미는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이라는 뜻이다. 같은 나이 또래의 가까운 사이라는 의미도 있다.

불교 수행자들은 친구라는 말보다 도반(道伴)이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 같은 길을 가는 반려(伴侶), 즉 도를 닦는 반려자라는 뜻이다. 나이 차이가 많아도 같이 수행하며 살아가는 사이에는 도반이 될 수 있다. '공부의 절반은 좋은 도반이 시켜준다'는 말이 있듯, 도반이 좋아야 수도를 잘 할 수 있다. 사실, 수행자들은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명예도 부귀도 모든 욕망도 산밖에 던져 버렸기에 그들에게 있어 세속적 성공은



산마루에 일었다가 사라지는 한 조각 구름 같을 뿐이다. 오직 내면의 세계에 침잠하는 그들의 삶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아니 외로워야 마땅하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수행자들이기에, 도반은 도의 길을 걷는 데 있어 거의 절대적인 존재다.

나에게도 도반이 한 분 있다. 수계도반, 강원도반, 선원도반이 한 둘이 아니지만,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한 도반은 오직 그 하나뿐이라고 생각한지 오래다. 바로 기후스님이다.

기후스님은 나보다 세속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형님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강원도반 사이다. 초심시절, 강원에서 공부할 때 나는 거의 막내였고, 스님은 위에서 몇 번 째 연장자였다. 나이가 어린 편인 나는 주로 말썽을 부리는 쪽이었고, 스님은 언제나 일을 마무리하는 입장이었다.

기후스님은 안동에서 태어나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산했다. 어렸을 때 심한 마마를 앓았는데, 부모님은 고열에 시달리던 그가 죽은 것으로 알고 눈물과 함께 담요에 싸서 내다 버리려고 했단다. 그러나 할머니의 손자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능가했던지, 할머니가 "버릴 땐 버리더라도 한번만 더 보자!"하시며 담요를 풀러보니 죽은 줄만 알았던 그가 동지섣달 추위에 열이 식어 살아있었단다.

기후스님은 늘 이렇게 말한다. "내 이번 삶은 송두리째 덤으로 사는 것이니, 정말 고맙게 잘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인지 스님은 매사에 수용하는 자세로 살고 있다.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언제나 묵연히 바라볼 뿐 시비에 말려들지 않는다. 강원에서 같이 공부할 때, 의견이 엇갈려 시비가 길어져도 그는 다만 침묵할 뿐 말이 없다. 우리의 토론은 끝날 줄 모르다가 마침내는 모두 기후스님을 쳐다본다. 그때가 되면 그는 무겁게 입을 열어 몇 마디 간단하게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결론이 되곤 했다.

스님은 통도사와 해인사 강원에서 사집을 몇 년 동안 가르쳤다. 그에게 배운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후스님을 진정한 스승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의를 할 때도 모르는 것은 겸허하게 모른다고 말한다.

"이 부분은 나로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해서 깨달음에 도달해야만 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말하는 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모른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가 모

"내 삶은 덤, 고맙게 살아야"
묵언중 스님 종일 듣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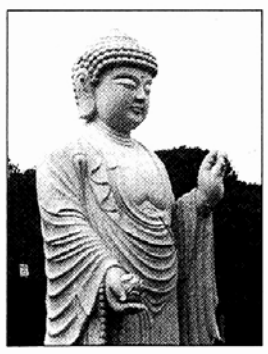
른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그가 모른다고 말할 때 오히려 분명히 안다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기후스님의 인품이다.

그가 선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도사 강원의 증강을 사임할 때, 나를 불러 그 자리를 맡긴 것이 그와 나를 깊은 인연으로 묶는 실마리가 되었다. 그 뒤 내가 운흥사 주지로 있을 때 나에게 와서 몇 년을 같이 살면서 도와준 인연으로 우리는 서로 마음의 도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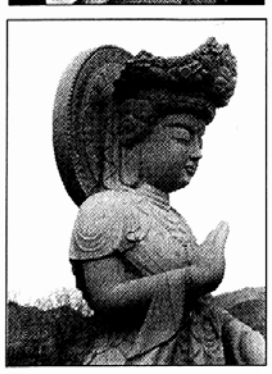
내가 보아온 기후스님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나타면 숨기고자 했을 일들을, 수행자로서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일들을 솔직담백하게 드러내 놓는다. 그를 보면 '솔직한 것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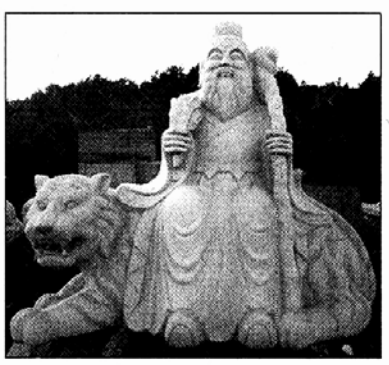
내가 대만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그는 산속에서 6년 묵언 수행정진을 했다. 내가 영어와 중국어를 익힐 때 그는 침묵속으로 침잠하고 있었고, 내가 포교한다고 이곳 저곳으로 다닐 때 그는 선원에서 면벽하고 앉아 자신을 다스리고 있었다. 내가 일시 귀국해 묵언중인 그를 찾아갔을 때 스님은 내 손을 잡고 말이 없었다. 나는 하루종일 말하고 그는 듣기만 했다. 돌아오는 길에 종일 말한 나의 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고, 침묵을 지키던 그의 눈빛은 내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계속) ▨ 구미 영명사 주지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3일 안에 깨닫는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아라한(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의 백림사(하북성 조현)와 보봉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에도 얻기 힘든 깨침을 3일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할 때
- 일상 찌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잡지 못해 방황할 때
- 번민, 감동, 괴로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부족함 없이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체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룰 수 있는 능력
- 자기 조상과 타인의 조상을 천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
- 시공을 초월한 존재의 근원으로 소원을 성취하고 운명을 바꾸는 능력
- 고도의 정신집중 능력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영혼의 안식처 : 24시간 전화상담 받습니다.

(霧林 주위환경)
수려한 경관에 수련지 전용 현대식 목조주택, 수목원, 산책로(호수), 약수, 등산로

수련과정

本性 3박4일	참마음
一性 1박2일	實體없음, 時空없음, 無分別智
完性 2박3일	不空, 眞空妙有, 無分別後得智, 無上覺, 無碍自在 업장소멸, 조상천도(薦度), 마음의휴식
保任 2박3일	원하는 대로 이루는 법칙, 自義的삶 꾸리기, 氣(에너지), 마음과 최면(催眠), 삶의 유희(遊戲)
健康 2박3일	藥이 필요 없는 온전한 몸 다루기

참마음수련 心田



◇허길량 씨는 관세음보살의 화신 33성상을 높이 120~180㎝에 이르는 입상과 좌상, 반가상과 유희상 등 다양한 형태의 조각으로 빚어냈다.

현세에 나투신 '33관음성상'

허길량 씨, 20~27일 공평아트센터서 조각전

신라 · 고려 · 조선佛像 재구성

불자들에게 가장 친근한 불보살 가운데 한분인 관세음보살의 화신 33성상을 조각으로 빚어낸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허길량씨의 '33관음속으로' 조각전이 20일~27일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허씨는 당 · 송 이래로 전래되는 33관음보살을 〈법화경 권7〉 관세음보살보문품과 〈관세음보살보문시현도〉의 전래 도상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독특한 관세음보살상 33점을 선보인다.

허씨는 이들 33관음성상 외에 조선시대 양식 그대로 채색한 16나한상과 신라시대의 석가모니불, 고려시대의 수월관음상, 조선시대의 석가모니불, 천수관음 불감 등 총 60여점의 조각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충식 동국대 박물관장은 "33관세음보살 화신 성상이 조각으로 제작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33관음의 성호에 따르는 도상적 특징이 잘 표현되었을 뿐 아니라 정치한 조형미는 근래 보기 드문 수작이다"라고 허씨의 작품을 평했다.



◇한국 최초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전북 순창의 강천사계곡.

'봄의 소리' 찾아 함께 떠나요

강천사 계곡 등 '물소리 좋은 4곳'

한국관광공사가 봄나들이 코스로 '봄이 오는 계곡 물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지 4곳'을 선정했다.

■충남 청양의 작천 계곡: 호서지역의 명산 칠갑산 남단을 휘감아도는 계곡이다. 뱀처럼 구불구불한 천변을 따라 여유로운 드라이브를 즐겨도 좋으며 징승거리를 지나 천년고찰 장곡사까지의 여정도 빼놓을 수 없다.

■전북 순창의 강천사 계곡: 산자수명한 산세와 신라 도선 스님이 세웠다는 유서깊은 강천사가 자리잡은 곳이다. 한국 최초로 지정된 군립공원으로 고창 강천사 숲길과 계곡 오솔길을 산보하며 봄내음을 맡이하기에 더없이 좋다.

■경남 의령의 촬비계곡: 의령 촬비계곡은 벽계리 협곡의 웅장한 풍경을 감상하며 산보하는 맛이 그만. 멋들어진 바위 병풍이 인상적인 봉황대와 봉황대 큰바위 언저리에 위치한 일봉사의 독특한 가람 배치도 눈여겨 볼만하다.

■보성 용추골과 보성다원: 섬진강으로 흘러드는 남도의 젖줄 보성강의 시원이 되는 계곡이다. 용추폭포의 시원한 계류도 구경해 보고 또 인근 보성다원 녹차밭도 거닐면서 봄기운 무르익는 남도의 봄나들이 코스로 그만이다. iwww.visitkorea.or.kr

강천사 계곡
오솔길 걸으면 더 없는 봄 정취 만끽
보성 용추골
보성강 시원한 계류 · 녹차밭 거닐어 볼만

문화 담당= 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해인誌 발행 20돌 전자합본호 제작

4개월내 홈페이지 공개

수많은 불교 잡지가 창간되고 폐간되는 가운데서도 단 한번의 멈춤도 없이 20년을 이어온 월간 〈해인〉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전자합본호 제작에 들어갔다.

해인지 편집장 원철스님은 20주년 기념호인 3월호(통권 241호)에서 "앞으로 3~4개월내에 〈해인〉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20년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서 "〈해인〉을 인터넷 웹진상태로 복간해 내 누구든지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해인지 홈페이지에 올려놓게 된다iwww.haeinj.org"고 밝혔다.

〈해인〉은 1962년 3월 불교학생회의 회지(4면)로 출발해, 2호부터 불교학생회 회보인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해인사를 소개하는 8면 분량의 문서포교지로서의 역할까지 해냈다. 이후 85년 문공부에 정식으로 등록하면서 현재의 32면 체제로 모양새를 갖추었다.

성철스님의 법문이 〈해인〉 2호에 처음 공개된 것을 비롯해, 일타스님, 혜암스님 등 열반하신 큰 스님의 법문과 여연스님, 현진스님 등 현재 불교계의 주요 필자가 된 스님들의 초기 글들이 〈해인〉에 실렸다.

전자합본호 제작을 통해 〈해인〉은 문서포교의 역할에 인터넷포교의 역할까지 더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해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정보화시대에 맞는 〈해인〉의 미래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문화소식

'사람 · 동물 · 자연 … ' 전시회

박항률, 사석원, 이석주 씨 등 개성 강한 구상 작업을 해온 작가 3인의 그룹전 '사람, 동물, 자연 그림이야기'가 16일까지 서울 사간동 갤러리 조에서 열린다. 02)738-1025

불교만화공모전 시상식

전국불교만화공모전 시상식이 2월 24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 관음사 주지 우학 스님, 심사위원장인 만화가 이현세 씨와 수상자를 비롯한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에서 진행됐다.



◇2월 24일 제1회 불교만화공모전 시상식이 대구 관음사에서 열렸다.

'진흙 속에서 피는 희망'으로 대상을 받은 박보영(20, 대구정보대 1년) 양은 "불교사상을 담은 완성도 높은 불교만화를 그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인천 무형문화재총련 창립

인천시 무형문화재 10호 범패와 작법무 기능보유자인 능화(구양사 주지) 스님이 주축이 된 '인천시무형문화재총연합회'가 창립됐다.

4일 인천예총문화회관에서 발족한 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총연합회는 초대 회장으로 능화 스님을 선출했으며, 앞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과 무형문화재연구소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자 교수 연꽃 주제 작품전



경기대 디자인공예학부 이인자(불교여성개발원 원장) 교수는 '2002 대한민국 미술축전'에 연꽃을 소재로 한 '연蓮- 연꽃이 피어 향이 가득하니'(사진) 등 16점의 유화 디자인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미술축전은 전국의 역량 있는 작가 212명을 초대해 각각의 부스에서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 교수의 작품은 예술의 전당 미술관 A-3 부스에서 13일부터 17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02)580-1641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신수와 혜능의 게송

동안거가 끝나고 만행의 계절이 왔다. 스님들은 저잣거리로 돌아오지만, 속세에서는 인적이 닿지 않는 오지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문명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안락함을 주지만, 그만큼 자연과 멀어지게 만든다. 정신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에게 정신세계에도 오지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은 신수와 혜능의 게송을 처음 보았을 때이다. 도도히 흐르는 황하도 히말라야 설산의 눈 녹은 물에서 시작되듯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정신을 살찌우는 선불교의 큰 흐름도 육조 혜능대사가 주석하면 조계에서 흘러내린 한 방울의 물(曹溪一滴)에서 비롯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얘기라서 그 자초지종은 생략하고, 오조 홍인대사가 후계자를 뽑기 위해 깨달은 바를 시로 지어 보라고 한 그 게송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이미 명망 높은 스님이었던 신수가 지은 게송은 이렇다.

"때때로 털고 닦아서
티끌 끼지 않도록 하자"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랴"

몸은 지혜의 나무요 (身是菩提樹)
마음은 깨끗한 거울 (心如明鏡臺)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時時勤拂拭)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하자 (莫使有塵埃)

이 시를 처음 보았을 때 '도를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자'는 뜻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후인들이 이 게송을 근거로 "신수는 구도의 단계에 있었고, 점수(漸修)를 주장하였다"고 한 것도 이해가 되었다. 그런데 일자 무식꾼이던 혜능이 이 게송에 만족하지 못하고, 차원이 더 높은 '오도(悟道)의 경지'를 겨냥해서 지었다는 아래의 시는 나를 아찔하게 만들었다.

지혜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菩提本無樹)
마음 또한 거울이 아니다 (明鏡亦非臺)
본래 아무 것도 없는데 (本來無一物)
어디에 먼지가 끼랴 (何處惹塵埃)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일단 '없다' 하면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기껏 '몸은 지혜의 나무 같고 마음은 깨끗한 거울 같다' 해서 필feel이 왔는데, 그 느낌을 싹 지워버리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 눈 덮인 머리를 감추고 허리에 구름만 잔뜩 휘두른 채 딱 버티고 선 거대한 바위산이 마주 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나에게 하나의 도전으로 다가왔다. 올라갈 길은 보이지 않지만(本來無一物, 心行處滅), 꼭대기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眞空妙有)'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당대의 석학 신수와 무식한 나무꾼 혜능 중에서 오히려 후자가 아득한 산꼭대기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공부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일깨워준다. ■문학평론가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천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본래의 법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읍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남 · 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 교상미국의 우전왕(優塡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 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 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복덕구족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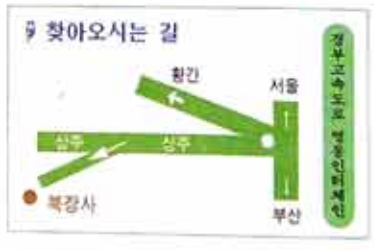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북 장 사**

주지 효 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5335 북장사

찾아오시는 길



교통편

◇고속버스 :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테마독서 불교 입문서

불교 길라잡이 등 입문서 다수

기초교리 · 예절 · 수행법 등 서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삶의 길을 찾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믿기만 하고 논리적 이해를 배제하면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불교의 궁극적 경지에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 대부분의 불교교양대학들이 개강하는 3월. 해마다 이맘때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불교를 배우려고 하는 불자들의 열기 또한 뜨겁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심자들은 불교의 숲으로 가 보고 싶으나 어떻게 가야 할 지 모른다고 토로한다.

어떤 분야를 배우려면 그 분야의 텍스트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불교의 경우 텍스트는 불경이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바르게 길을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초심자의 경우 불경 공부로 바로 들어가기란 쉽지 않다. 불경 공부에 앞서 길라잡이로 삼을 만한 입문서들을 소개한다.

불교교양대학을 비롯해 각 사찰에서 초심자들에게 많이 권하는 입문서로는 〈불교입문〉(조계종출판사), 〈불교길라잡이〉(시공사) 등을 꼽을 수 있다. 〈불교입문〉은 불자로서 알아야 할 기초교리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생애, 불교의 종교관, 불교의식과 문화, 상식 등을 간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사찰에서의 불자의 예절, 수행, 기도하는 법 등 구체적인 신행 실천 방법까지 수록하고 있다. 〈불교입문〉이 교양대학 교재에 가까운 반면 〈불교 길라잡이〉는 일반인들이 늘 곁에 두고 지침서로 활용할 만한 책이다. 이 책은 부처님의 생애를 시작으로 초기 교단과 선(禪) 그리고 불교의 세계관, 간추린 한국불교사, 불교의식, 사찰, 불전 다이제스트 등에 이르기까지 망라한 종합불교입문서다. 또한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불교에 대한 99가지를 선정, 문답으로 자상하게 일러준다.

많은 입문서들이 출간되고 있지만 불자들의 눈길을 잡아채는 것은 문답형식의 책들이다. 불교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주제 또는 확실히 이해할 수 없어 궁금해 하는 문제들을 시원하게 풀어주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대원정사의 '100문 100답' 시리즈이다. 이 시리즈는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불교입문편'과 '불교강좌편', 선의 기원과 역사 등 선의 기초적인 부분은 정리한 '선불교강좌편', 불보살과 신중의 모든 것을 소개한 '불보살 신중편'이 있다. 경전, 교리, 신행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를 간추린 〈왕 초보 불교박사 되다〉(민족사)도 빼놓을 수 없는 책이다.

또한 일본 고마자와대학 교과서로 편찬된 〈불교입문〉을 비롯해 강건기 교수의 〈불교와의 만남〉(불지사), 장휘옥 교수의 〈불교학 개론 1 · 2〉(장승),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여시아문), 〈절에서 배우는 불교〉(우리) 등도 입문서로 권할만하다.

'禪스승의 편지'

원순 스님 옮김

선공부의 길 상세히 제시



대혜 종고(1089~1163) 스님이 문하의 거사와 유학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선의 요체를 설명한 편지글 모음집이 바로 〈서장(書狀)〉이다. 〈대혜서〉, 〈대혜서문〉, 〈대혜보각선사서〉 등으로도 불리는 〈서장〉은 '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답변하고 있어 선 공부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다.

대혜 스님은 좌선의 고요함에만 빠져있는 묵조선을 배격하고, 공안을 참구해 깨달음에 들어가는 간화선을 정착시킨 중국 송대 선불교의 중흥조다. 〈서장〉은 대혜 스님이 주로 사대부에게 '선 공부에 관한 여러 가지 요지'를 대답해 준 편지글로, 그의 제자 혜연과 황문평이 중편했다.

참선 지도서이자 선문의 요지를 훨저하게 설명해 놓아 스님들 사이에서는 '〈육조단경〉을 스승으로, 〈서장〉을 도반으로 삼는다'는 말이 전해왔을 정도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선방 수좌들 간에 모든 것은 다 버려도 이 책만은 짊어지고 다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장〉은 조사 스님들의 어록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원에서도 오래 전부터 필수과목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신간 〈선(禪) 스승의 편지〉(법공양)는 대혜 스님의 〈서장〉을 송광사 인월암에서 정진하고 있는 원순 스님이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학인 스님을 위한 별도 교재도 같은 제목으로 출간했다. 값 1만원.

출판 담당= **김중근 기자** gamja@buddha pia com

'차별없는 참사람' 서옹 스님 연의



참사랑 실천운동의 교과서

임제 의현(?~867) 스님은 법상에 올라 다음과 같이 설했다.

"여기 빨간 몸 덩어리 안에 한 차별없는 참사람이 있어 항상 여러분의 눈 · 귀 · 코 · 입 등을 통해서 출입한다.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똑똑히 보아라."

그 때 한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차별없는 참사람입니까."

임제 스님이 선상에서 내려와 그 스님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이르라, 이르라."

그 스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려 하자, 임제 스님은 밀쳐 버리고 "차별없는 참사람은 이 무슨 똥막대기인가"하고 바로 방으로 돌아갔다.

임제 스님은 인간의 근원적 주체성을 명확히 밝히고 우리 인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절대구족성, 평등성, 자유성, 본래성을 갖춘 차별없는 참사람이라는 법문을 하셨다.

참사람 결사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옹(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스님이 연의(衍義)한 〈차별없는 참사람〉은 임제 스님의 상당, 시중 법어와 선사들과 나눈 선문답 가운데 차별없는 참사람(無位眞人) 관련 내용을 까려 뽑아 소개하고 있다.

서옹 스님은 머리말에서 참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눈깜깜하지 아니하되 본래 선과 악 또는 이성을 초월하여 생사도 없다. 시간과 공간이 거기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근본원리나 신도 부처도 없다. 여기에는 무한한 자기 부정만이 지속한다. 차별없는 참사람 실천운동의 교재로 일산 임조선사에서 펴냈다. 값 1만원.

'소멸의 아름다움' 필립 시먼스 지음



죽음 앞둔 새 삶의 기록

'루게릭'이라는 불치병을 얻게 된 남자. 그러나 그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면서 오히려 불완전함으로 인한 축복을 깨닫는다. 사소한 것 속에서 신성함을 발견한 것이다. 그 깨달음을 열두 편의 잔잔한 수필로 풀어놓은 〈소멸의 아름다움〉(나무심는사람)이 나왔다.

지은이는 필립 시먼스 씨. 그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레이크 포레스트대학 영문학 교수로 문예창작을 가르치는 한편 평론과 단편소설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던 그가 서른다섯 살 되던 해 루게릭이라 불리는 근위측색경화증에 걸려, 5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된다.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그는 살아가는 기술을 터득하며 되살아난다. 그 기록이 바로 이 책이다.

그렇다고 '인간 승리 운운하는 휴먼스토리는 아니다. 거창한 인생론을 펼치고 있지도 않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사에 대한 관찰과 사색의 흔적들을 담아내고 있다. 죽음 앞에서 삶을, 일상에서 신성을, 초조함 속에서 여유를, 몸의 불편함 속에서 낙관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독자들은 필립 시먼스 씨가 써내려 간 열두 편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죽음에 처한 고통 너머로 보이는 '삶의 진실'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머리말까지 마친 8월, 지은이는 그 여름을 '충만한 계절'이라고 표현했다. 그것은 다시는 맞이할 수 없는 계절일지도 모른다는 절실함 때문이었다.

죽음 앞에 선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희망' 바로 그것이다. 값 8천5백원.



'살모사의 눈부심'

쥘프 리반엘리 지음

〈살모사의 눈부심〉(문학세상)은 터키 콘스탄티노플의 왕궁과 하렘을 무대로 인간 본연의 심리를 풀어낸 소설이다.

17세기 오스만 제국의 피로 얼룩진 정사(正史)를 축으로 하고 있지만 역사소설이 아니다. 왕궁을 무대로 한 권력다툼, 사랑, 폭력, 성적인 집착과 애욕을 섬세하게 파헤친 심리소설이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의 테마는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다. 그 모든 얽히고설킨 사건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탐욕과 갈등으로 정권의 주위에 볼나방처럼 날아드는 왕궁 사람들의 이야기다.

매년 발칸지역 모든 국가의 우수한 작품들을 선별하여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하는 발칸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값 8천원.

핵심교리 해설 초기불교 개론서

'붓다의 말씀'



빠알리 경전에서 불교의 핵심교리를 가려 뽑아 해설한 초기불교 개론서 〈붓다의 말씀〉(고요한 소리)이 출간됐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해설서란 평가를 받고 있는 저술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범위는 빠알리 삼장 가운데 경장에 실린 부처님의 말씀을 일컫는다. 엮은이는 미얀마에서 출가한 독일인 스님 냐나틸로카(1878~1957). 그는 서문에서 "불교 입문자들에게 이 책은 첫 번째 입문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불교의 중요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불교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네 가지 고귀한 진리(四聖諦)'의 틀 안에

四聖諦 요점 체계적으로 해설

서 분명하고 간략하며 믿을만한 가르침의 요점을 제공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고 밝히고 있다. 엮은이가 말하는 네 가지 고귀한 진리란 다름 아닌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발생의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진리'를 말한다.

책의 특징은 일반 불교교리서와는 달리 원전인 빠알리 경전에 근거하여 핵심교리와 수행체계를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특히 사성제와 팔정도의 실천체계를 중심으로 삼법인, 연기설, 오온설 등의 교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초기불교 수행지침서로서도 부족함이 없다. 결국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의 초점은 초기불교의 수행법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책에는 불교의 중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빠알리어와 함께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이 곁에 두고 참고할 수 있는 교과서역할도 하고 있다. 고려재장경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김재성 씨가 우리말로 옮겼다. 값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회색 고무신	윤 청 광	시 공 사
2	왕 초보 불교박사 되다	일 지 외	민 족 사
3	달라이 라마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4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원 택	김 영 사
5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6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7	극락은 있다	관 정	붓다의 마을
8	생활수행이야기	원 황	불 광
9	영가천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10	화엄경을 읽는다	기무라 키요타카	불교시대사

도서 안내: (02)737-0695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승산 선사 공안집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집 | 값2,000원
현암사 전화 365-5051~6, 팩스 313-2729



Tel 02) 713-6363, 2237-1641
Fax 02)713-6362
백양출판사

세상의 총각들이여!

당신은 10년의 긴 세월동안 교제해온 애인이 다른 남자에게 강간당했다면
그 여자의 피치못한 사정을 이해하고 다시 포근한 사랑으로 감싸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의 어머니들이여!
당신은 아들의 애인이 직장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그를 죽인 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간 며느리 감을 위해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고
다시 그녀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이며 출옥후 선뜻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 있는가?
사랑은 에로스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고급명령이 합일된 시작이기에 지극히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섹시함으로 시작된 에로스적 사랑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녀들은 법원 옆에 살아야 이혼 소송이 간편해집니다.



이 책을 구상한 것은

1994년, 어느덧 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원고지 몇만 장의 분량이 족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셈이다.
요즘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상점과 슈퍼에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먹거리가 부지기수로 널브러져 있다.
그 고도 성장의 한 모퉁이에서 새삼스럽게 50년 전의 퇴색된 역사를 끄집어 내어
분해하는 작업으로 글쓰는 것을 수없이 망설였다.
그러나 아직도 논바닥에 심은 벼포기를 이르러 '쌀나무'라고 칭하는 젊음이 있다면
아니, 배고픈 시대를 돌이켜 절약 정신을 일깨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굶어?' 하고 간단하게 반문할 수 있는 엉뚱한 청춘이 존재한다면
그 마음편한 청춘들을 위해서 역사 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픈 사명감이 깊이 자리잡아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저자의 말 중에서

• 저자 이진하 스님과의 대화
선문사 TEL 031) 867-5114

이진하 장편소설

아버지의 세월 1·2·3

298~304쪽 | 각권 8,000원

화엄경私記 3권 번역돼 나온다

일종의 주석서 … 화엄이해 지침서
내용 첫 공개, 4년후에 완역

조선 후기 화엄학 분야의 대강백인 설파-상언(1707~1791)과 그의 제자 인악 의 첨 (1746~1796), 연 담 유 일 (1720~1799) 스님이 지은 '화엄경 사기(私記)' 3권이 번역돼 발간된다. 이 달 말 출간되는 〈화엄십지품(華嚴十地品) 삼가본사기(三家本私記)〉는 봉선사(주지 일면) 능엄학림 2기 학인들이 3년 동안 이 세 스님의 사기 중 현재 전하는 여러 소장본을 비교해 내용을 정서하고, 토를 단 작업 끝에 나왔다. 화엄경 사기로 전하는 목록이나 전적은 많지만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기는 처음이라 화엄학 연구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사기(私記)는 〈화엄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상세하게 풀어놓은 일종의 주석서로 화엄을 이해하는 지침서다. 하지만 조선시대 강백들은 중국에서와 달리 '소'나 '초'를 붙이지 않고 '사사로이 사견(私見)을 밝힌다'는 겸손의 뜻으로 〈사기(私記)〉라 이름 붙였다. 설파 스님이 지은 〈잡화기(雜華記)〉와 연담 스님의 〈유망기(遺妄記)〉, 인악 스님의 〈잡화부(雜貨簿)〉가 조선후기의 대표적 사기다. 〈삼가본사기〉는 바로 이 세 저술을 모았다.

우리 나라 특유의 경학 연구 방식은, 사기와 과도(科圖, 내용을 소제목 별로 나눈 일종의 분류표)를 함께 펼쳐 놓고 〈청량소초〉를 보면서 〈화엄경〉을 공부한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는 달리 화엄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사기가 널리 쓰이지 못했다.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다. 초서와 비슷한 형태로 흘려 쓰다 보니 사기를 지은 스님들마다 '~체'가 있을 정도로 읽기가 힘들기도 하다. 누가 썼는지 밝혀진 게 별로 없고, 전체 내용이 전하는 것도 드물다.

초서를 정서하고 토를 단 원민 스님(능엄학림 2기 연구생)은 "사기는 강원의 강사들이 〈화엄경〉을 가르치면서 판본의 오·탈자를 교정하고, 내용상 오류에 대한 자신의 견해, 다른 전거들과의 비교 등을 소상히 기록해 놓은 일종의 강의 노트인 셈인데, 이들 사기의 저자가 대강백들인 만큼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정확성과 깊이에 놀랄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하나 〈삼가본사기〉는 우리의 전통적인 역장(譯場) 방식에 의해 번역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불조통기(佛祖統記)〉에 나오는 것처럼 9개의 역할을 다 나누지는 않았지만, 원민 스님이 초서를 해독해 옮겨 쓰고 토를 달면(書寫 단계), 강주 월운 스님이 해독과 번역이 바른가를 검토해 수정하고(證義), 이를 갖고 학림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잘못된 내용을 지적했다(刊定). 마지막으로 강주 월운(동국역경원장) 스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내용을 확정했다.


◇강주 월운 스님과 능엄학림 2기 스님들이 정서(整書)된 사기(私記)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월운 스님은 "사기의 출현이 학인들의 학구 기능을 저하시킨 훈고학의 전형적인 병폐라 지적하기도 하지만 요즘 같이 문장력이 약해서 때로는 한치 앞도 못나가고,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심정일 때, 괴도는 나침반과 같아서 방향을 가늠케 하고, 사기는 해도와 같아서 주변정세를 알게 해 주는 기능이 있다"고 간행사에서 말했다.

4×6배판 900여 쪽에 달하는 〈삼가본사기〉는 〈화엄경〉 사기 중 '십지품' 부분만을 떼 낸 것이다. 화엄경 사기 전체를 다 끝내려면 앞으로 4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 완성되면 16절지 2600여 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사기 전체가 정리되면 〈한국불교전서〉에도 수록된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강화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흥왕사터. 문화재 차정이 시급한 불교유적지다.

강화도 불교유적지 52곳

조계종 문화유산 발굴조사단 보고서

절터 4곳 입상석불 1개 새로 발견
흥왕사터 등 11곳 복원작업 시급

'강화도' 하면 재작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유적과 조선시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만든 군사시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정각)이 강화지역 460개 문화유적을 조사해 최근 발간한 〈강화의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를 보면 고고유적(204)이나 관방유적(129) 외에도 76개의 종교유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52개가 불교유적이다. 현존 사찰 7곳에, 절터 39곳, 암자터 1곳이 확인됐고, 석탑 1기, 석불 2기, 마애불 1기, 부도 1기가 전한다.

고려시대 절터인 화양사터와 정미사터, 혈구산 무명사터, 법장사터 등 절터 4곳은 이번에 새로 절 이름과 위치가 파악됐다. 인사리 석불입상도 새롭게 발견된 유적이다.

그러나 고려시대 절터인 흥왕사터와 원충사터(문화재자료 9호), 하점면 석조여래입상(보물 615호) 등 11개 불교유적은 복원 및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인천시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이뤄졌다.

회암사터 대대적 정비

경기도, 보호구역확대 등 2008년까지 580억 들여

발굴조사가 거듭될수록 조선초 왕실 사찰로서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경기도 양주 회암사터(국가사적 128호)가 대대적으로 복원 정비된다.

경기도는 580억 원을 들여 이미 지정된 보호구역(10만 평)외에 사유지를 매입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추가 발굴조사, 유물전시관 건립, 발굴된 유적지에 대한 정비 등 대대적인 복원 정비 사업을 200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4차 발굴조사시 보광전 건물터에서 출토된 용머리 기와.

6일 발표된 회암사지 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출토 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지하 1층, 지상 1층 550평 규모의 유물 전시관에는 회암사 창건 배경과 역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회암사실과 유물 전시실, 토기류 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실 등이 들어선다. 또 앞으로 남은 세 차례의 발굴조사(5~7차) 기간동안 일반인들이 발굴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관람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변 레미콘 공장과 섬유 공장을 이전하고 소나무 숲을 조성하는 한편 민간 중심의 '회암사지 정비·복원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사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정비해 역사 체험의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은평구의 불교문화' 발간



서울 은평문화원은 향토사 발굴 시리즈의 두번째로 〈은평구의 불교문화〉(사진)를 발간했다. 4×6배판 190여 쪽에 달하는 〈은평구의 불교문화〉는 은평구의 전통사찰인 수국사와 삼천사, 진관사의 역사와 인물, 전각, 문화재, 현재 모습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북한 산성에서 활약했던 승군에 관한 내용을 따로 떼어내 소개했으며 자료편에는 수국사와 삼천사, 진관사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는 사료를 실었다.

월남사터 모전석탑 등
보물 4건 명칭 바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전남 강진 월남사터 모전석탑(보물 298호)을 월남사터 삼층석탑으로, 월남사터 석비(보물 313호)는 월남사터 진각국사비로, 충북 담양 읍내리 석당간(보물 505호)은 담양읍 석당간으로, 담양 읍내리 오층석탑(보물 506호)은 담양읍 오층석탑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보물 298호 월남사터 삼층석탑.

高僧 다시보기

보우 스님과 문정왕후


◇허응당 보우 스님 진영(부분, 서울 봉은사 소장).

조선 중기는 우리 역사상 불교계가 가장 탄압을 받던 시기였다. 이러한 때에 불교를 중흥시켰던 스님이 바로 보우(普雨, 1506년~1565) 스님이며, 법호를 나암(懶庵), 당호를 허응당(虛應堂)이라 했다. 중종 1년(1506)무렵에 태어나 15세에 금강산의 한 사찰에 출가하여 5년간 수도 정진하면서 선교양종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성리학적 유교사회에서 불교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금강산에서 수륙재를 행할 당시 승려나 신도들 사이에서 '살아 있는 부처님'이라 존경받았고, 후대의 실학자 지봉 이수광도 스님의 글재주를 높게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의 사림파 유생들은 스님을 고려말 신돈보다 더 심한 요승이나 괴승으로 몰아 붙였을 정도로 당시의 억불분위기는 최악으로 가고 있었다.

때마침 나이 어린 명종이 즉위하면서 수렴청정을 하게된 문정왕후는 스님과 손을 잡고 흥불시책을 전개하였다. 명종 3년 12월 스님은 봉은사 주지로 임명되면서 연산군 이전의 선교양종과 승과를 부활시켰고, 다음 해 수진(守眞)스님과 더불어 불교를 중흥하고자 했다. 이에 빗발치는 유생들의 반대 상소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만약 지금 내가 없다면 영원히 불법(佛法)은 없어질지도 모른다"며 불퇴전의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스님은 전국의 300여 사찰을 국가공인사찰로 지정해 보호하였고 부활된 도첩제에 의해 2년간 승려 4000여명을 선발해서 서산대사로 알려진 휴정 스님이나 유정 스님 같은 고승을 배출하여 불교중흥의 기틀을 세웠다.

스님은 회암사를 중건하여 대규모 무차대회를 개최했으나 왕후의 죽음을 계기로 승직을 박탈당하고 제주로 유배되어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스님이 남긴 저술은 〈허응당집〉 〈나암잡저〉 〈수원도량공화봉사여환빈주몽중문답〉 〈권념요록〉이 있다. 스님은 선과 화엄을 융합하여 선교일치에서 한 걸음 나아간 선교일체설(禪敎一體說)과 성리학의 사상적 체계인 천인합일설(天人合一說)을 불교의 입장에서 설명한 일정설(一正說)을 주창하였다. 이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한국사상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한 사상적 기반 위에서 추진된 스님과 문정왕후의 흥불운동은 비록 15년간에 그쳤지만 휴정과 같은 고승을 배출함으로써 억불시대의 조선왕조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불교의 전성시대를 이루게 하였고 향후 불교의 명맥을 잇게 하였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이렇게 좋은 종무관리가 공짜 라니..!

상황 종무 관리 프로그램 무료 보급!



상황모바일버전 이래서 좋다!

- 문자메세지 발송 – 한번에 수천명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 E-mail발송 – 법문 · 안내문 등 E-mail발송 가능
- 음성 · 음악 · 벨소리 전송 – 모닝콜 가능
- 기존 데이타 자동 변환
- 각종 인쇄물 글자 크기 조절 가능
- 실시간 불교뉴스, 각종단 게시판열람
- 관리비 없이 자동 업그레이드
- 사찰과 신도 가정의 인터넷 네트워크 형성

타 종무관리 프로그램과의 비교

구 분	상황종무관리	G	D	K
가 격	무 료	320만원	150만원	무 료
관 리 비	무 료	2만원/월	3만원/월	20만원/금액별
업그레이드	무 료	유 료	유 료	
인터넷기능	불교뉴스,기능 등	없 음	없 음	없 음
모자메세지	30원/건당	기능없음	기능없음	기능없음

상황 종무관리 설치 방법

전화주문 : 02)722-4162(현대불교신문사)
↓
통신료 20만원 선급금 납입 : 국민은행 006-01-0773-240 (현대불교신문사)
↓
우편으로 CD받기
↓
안내문따라 설치
↓
인증받기 02)365-5933(지우커뮤니케이션)
↓
기존의 D/B 자동 이전

■ 무료보급 :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 기술개발 : 지우커뮤니케이션 02)365-5933

꺼지지 않는 연등, 한글대장경 봉안

올 초파일에는 모든 사찰이 한글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부다피아하나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는 사찰에는 한글대장경 1질(4백 77만원)을 봉안 해 드립니다.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道는 항상 우리주변 가까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한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법회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또는 내 생명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삶 아님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수억겁 광년을 통해서 차원대로 끼리끼리 모여서 이 세상에 모두 출현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찰나찰나 모습을 바꿔가면서 이 세상에 나오죠. 이 부모에게서 낳고 또 이 부모에 가서 낳게 되고, 모습을 바꿔가면서 곤충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을 바꿔쓰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죠. 때로는 곤충이 됐다가 짐승이 됐다가 새가 되고, 또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이렇게 거푸거푸 돌아가면서 화해서 나투는 이 까닭을 생각할 때에 내 자식 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내 형제 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모두가 내 자식들이 울고 있고 내 형제들이 울고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동참하여서 더불어 모두 한마음으로서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또 우리 마음을 공부하는 데로 돌아갑시다.

주면 받게 돼 있어

우리 인생이란 지수화풍(地水火風)이 우리를 형성시켜서 지수화풍을 먹고 살게 하고 나중에는 지수화풍으로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수화풍의 그 가공된 물주머니 속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벗어나면 못살듯이 그렇게 인간도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실은 찰나찰나 돌아가니 그것도 공해서 없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지금 현실에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생명들로 몽땅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몸뚱이 속의 생명들은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쇄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들 몸뚱이에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느냐?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인과로 인해서 인과성이라든가 영계성 · 세균성 · 업보성, 이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서 내 영혼과 더불어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같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형성됐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불가(佛家)에선 오신통(五神通)이라고 부릅니다. 이름해서, 천이(天耳) · 천안(天眼) · 신족(神足) · 숙명(宿命) · 타심(他心),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해서 현재의 말로 한다면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왜냐? 모두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차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바로 불기둥이라고 이름한다면 땅을 딛고 하늘을 꿰고 불기둥이 서 있다면 불기둥이 수레를 싸돌고 있어요. 이 기둥이 가운데 섰고 밖에는 수레가 돌아가는 게 우리 생활이에요, 모두가.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근본 기둥 그 자체에 부합이 돼야만이 우리가 오신통 즉 그 수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벗어날 수 있는가. 보십시오. 아까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그랬죠, 오신통이 현대 용어로 바뀌어서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됐던 것이 솔솔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영계성이니 뭐니, 모두가. 그렇다면 그 나오는 구녕에 다 다시 입력을 해야만이 그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들어가는 대로 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알아듣기 쉬울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신통 자체가 컴퓨터라면, 컴퓨터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자꾸 나오니까 그 구녕에다가 다시 일임해 놓는다면 입력이 다시 돼서 앞서의 입력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다 들이고 낼 때에 진정코 의심을 하지 말고 '나를 형성시키고 이끌어나가는 주인이 바로 나의 마음 가운데 선장이로구나.' 또는 '나의 뿌리로구나, 내 몸이 싹이라면 나의 근본 뿌리는 바로 나의 주인이로구나.' 하고 거기다가 맡겨놓고, 내가 움죽거리는 일거일동이 바로 그놈으로 인해서 움죽거린다고 생각할 때, 진짜 믿고 거기다가 맡겨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진짜 맡겨놓고 있을 때에 통신이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모습과 생명이 의식을 가지고 이 몸속에 있는데 큰 혹성이라고 해도 되고 별성이라고 해도 되고 큰 회사라고 해도 됩니다. 이걸 국토라고 해도 됩니다. 이 국토에서 모든 자생중생들이 살고 있는데 신호가 가면 즉 내 마음에서 통신이 가면 대뇌를 통해서 중뇌를 통해서 책정이 되면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사대로 통신이 되면 그 모든 생명체의 소임을 맡아가지고 있는 공장장들이 전부 작용을 하게끔 합니다.

이것은 심성의학이기도 하지만 심성과학이기도 합니다. 이름만 거창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천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실로써, 말이 문제가 아니고 잘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면서 떼어 놓을 수 있는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가서 내 한생각에 이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따라줄 수 있다면, 바로 더불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즉 시쳇말로 한다면 원자 속에서 분자로 하여금 입자가 되어서 털구녕을 통해서 들이고 내면서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으로서 응신(應身)이 되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 없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생중생들에게 안과 밖을 조복을 받게 되면 이 부처님 국토에서 낱낱이 보살로 화해서 헤아릴 수 없이 나신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세계만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무(無)의 세계, 즉 정신세계의 50%를 아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새록새록이 걸려서 돌아갑니다. 유의 50%와 무의 50%가 같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여여하게 돌아가며,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물리가 터지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천리를 가도 간 사이가 없고 와도 온 사이가 없이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으련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도 "가고 오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보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아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듣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네가 어디서 나온 줄 아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고 하셨어요. 왜냐? (물컵을 들으시며) 이 물이 있는 거를, 과학적으로는 이 물이 양이 얼마고 그릇이 얼마만하고 물의 성분이 어떻고를 알아내는 거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뜻은 그걸 보고 아는 것만이 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줄 알고도 이거를 갖다 먹지 못한다면 이건 도가 아니다 이거야. 내가 목마를 때 남을 줄 수 있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수 있어야만이 도라고, 그것도 이름해서 도라고 하느니라.

정신계 얘길 하니까 그거 뭐 말라빠져 죽은 거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미 부처님 법이 나투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됐다가 형제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자식이 됐다가 순간순간 찰나찰나 바뀌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부처님도 한생각에 이 모든 자생중생들이 화(化)해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법신이 되시고 화신이 되시고 응신이 되시고 또는 아미타도 되시고 아촉도 되시고 관세음도 되시고 지장도 되시고 약사도 되시고 닥쳐오는 대로…, 한번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여보!"하고 왔을 때는 금방 남편이 됐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얘, 아무개야!"하고 부르거든, 그러면 금방 또 아들이 된 거예요. "형님!"하고 들어오니깐 금방 형님이 된 거죠. 그거와 똑같은 일입니다. 부처님의 한생각이 돼지가 나를 살려 달라고 하면 거기에 응해 주십니다.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되셔서 둘 아니게 하시니깐 돼지가 건져지죠. 돼지의 무명을 벗고 한마음이 돼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새로 형성되죠. 또 소가 응해달라고 할 때 소 속으로 들어가서 소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게 천차만별로 원하는 거를 다 응해주실 수 있다는 것은 한생각에 헤아릴 수 없이 원자 속에서 입자가 나가듯, 헤아릴 수 없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습도 각각이요 또는 이름도 각각이요, 용도도 각각으로 전부 변해서 나투신단 말입니다. 내가 이런 소릴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러드리는 겁니다.

한걸음 한걸음 실천토록

그러나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는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정이 있다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만나서 가정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입니다. 사람이 요즈음 살아나갈 때에 상인은 자동적으로 상인들끼리 모이고 정치인은 정치인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듯이 물건도 자연적으로 금은 아무리 닮아도 금방으로 갈 것이고, 넝마는 넝마전으로 갈 것이고 깡통은 깡통전으로 갈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라 오라 하기 이전에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 차원대로 모임이 있어서 만난 인연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의 탓을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깡통 10개를 세워놓고 본다면 깡통더러 깡통들이 말입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고 울그렁불그렁 해봤자 소리만 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럴 때 깡통들이 10개 다 각각 내가 깡통된 탓이지 하고 거기다가 자기 자신에게 탓이라고 돌을 때, 놓고 돌아갈 때 그 깡통이라는 모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을 너그럽게 쓰고 내 탓으로 돌려서, 남이 따귀를 때린다 하더라도 '허허! 내가 전자에 내가 저 사람의 따귀를 때렸구나.' 또 나쁜 사람을 볼 때 '아, 내가 전자에 모자랐을 때 내 모습으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가야 과거에 살아나온 업이 무너지지, 이거는 일일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요건 어떻게 행동을 하나, 요즘은 어떡하고 사나, 이건 어떡하고 있나, 요걸 일일이 따지고 말이 많아진다면 이거는 공부라기보다도 업을 자꾸 지어서 태산처럼 쌓아 놓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가정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며,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돈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 집이 화목하고 웃을 때 '아! 저 집엘 들어가면 행복하겠구나.' 하고 돈도 들어오는 거지, 아니 돈이 미쳤다고 만날 싸움질만 하는 데로 들어가요? (대중 박수)

오늘 여기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보시를 한다 할지라도 그네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한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는 거죠. 냉정히 판단해 보십시오. 내 자식을 위해서, 모두가 내 자식이니까요. 나오지 않은 것은 들어갈 줄도 몰르고 들어가지 않은 것은 나올 줄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줌으로써 내가 받게 돼 있고 받음으로써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준다고 하고 내가 줬으니깐 이런 이름이 나겠지, 내가 줬으니깐 덕이 오겠지, 내가 줬으니깐 나중에 뭐가 있겠지, 이런 생각일랑은 아예 마십시오. 부처님 심부름을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심부름을 잘 할까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써 모든 거를 자기 그릇대로, 높이 갈려고 하지도 말고 내려갈려고 하지도 말고 가는 거 끌어잡지도 말고 또 오는 거 막지도 말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생활을 해나가신다면, 보이지 않는 빈 손들이 여러분한테 모두 아마 공덕을 배려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깥으로 그렇게 찾는다면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신계의 마음과 물질을 둘 아니게 모두가 행할 때에 공덕인 거지, 정신계는 싹 빼놓고 물질계만 생각하고 이름만 생각한다면 그게 어떻게 공덕이 됩니까? 어떻게 한마음의 공덕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4, 5년 전이에요. 삼남매가 사는데 외국에 일하러 갔다가 애들 아버지가 죽어서 돌아왔어요. 그 집엔 할머니 한분 밖엔 안 계시고 벌이 할 사람도 없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내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신도한테 "여보시오! 얘들을 학교를 보내야 할 텐데 학교에 보낼 돈이 없어요. 한 아이는 국민학교지만은 두 아이는 대학엘 가야 하고 고등학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봅시다." 하니까 "스님은 남의 일에 뭘 그렇게 참견을 하세요?"이러곤 싹 빠져달아나가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았던 사람이 "아유, 걱정 마십시요, 스님!"이러고는 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엘 가게 되었는데 그때 돈을 내 준 사람은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럭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옛날에 그 사람 돈을 쓴 사람이 외국에 갔다가 와서는 그 돈을 몇 배로 갚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부자가 됐죠.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이러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듯이 사람은 줄 때도 주는 사이 없이 준다면 올 걸 생각 안 해도 스스로 옵니다. 받을려고 안 해도 스스로 받아지고요.

오직 관하는 법! 기도하는 게 아니다, '해주시오.' 가 아니다,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요….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는 거, '너만이 이끌어줄 수 있고, 너만이 병이 낫게 할 수 있어, 네가 형성한 몸이니까 네 심부름꾼이니까 네가 고쳐서 이끌어가지고 갈 수 있어.' 일거일동 용도에 따라서 다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고 도(道)라는 거예요.

> 준다는 의식없이 베풀면
> 받으려 안해도 절로 받게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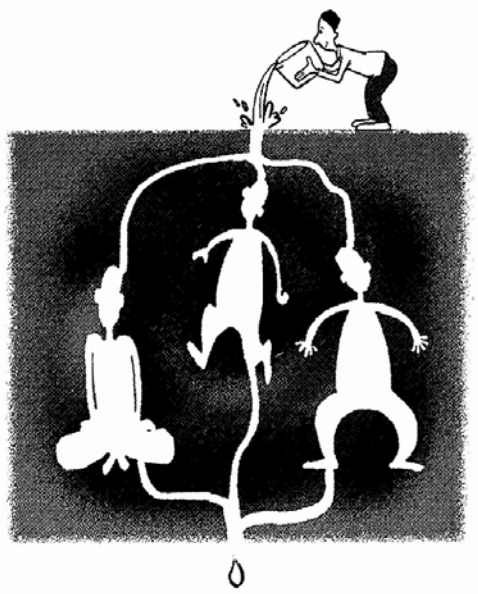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못났든 잘났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진정코 당신이 하는 거, 당신이 생각하는 거, 당신의 어려움, 당신의 울부짖음, 당신의 쓰라림, 이런 거는 다 자기가 더 잘 알지 제삼자가 더 잘 압니까? 자기가 자기를 진실로 아는 그 자체가 바로 주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한 나무가 제 뿌리를 믿지 않고 남의 형상을 믿어가면서 남의 이름을 믿어가면서 에너지를 나한테 공급해 달라고 아무리 빌어본들 그 나무로 에너지가 가겠습니까. 바로 제 뿌리에서만이 에너지가 그 싹으로 올라가서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싹은 또 에너지를 내려보내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곤충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곤충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짐승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러죠. 물에서나 들에서나, 반면에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먹는 줄 아십니까? 허허허, 사람은 아주 남에게 보이지 않게 정신을 잡아먹고 살아요. 사람들은 정신을 잡아먹히고 정신을 잡아먹고 이러고 살죠. 그러니 정신계의 내 마음공부를 안 하신다면 앞으로는 점점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오겠지요. 그런데도 공부를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났다 하면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 한척과 같습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배 한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만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겠습니까. 배 안에 들어 있는 그 자생중생들은 선장을 믿고 마음을 한마음으로써 모든 것을 선장한테 맡겨놓고 침착하게 앉아서 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깥으로 찾는 사람들은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친다면 살려달라고 일어나서 막 아우성을 치죠, 이 이름 저 이름 부르면서. 그런다면 선장도 어쩔 수가 없어요. 배는 뒤집히고 말죠.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정신을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이 짐승들이 서로 육으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나는 어떤 땐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차라리 모습이 없었더라면 좋을 걸 모습을 다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곤 저렇게 고생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아픈 데 있으면 의욕이 생기질 않고 돈이 없으면 의욕이 안 생기고, 이거는 일일이 그냥, 이 모습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뜻은 너무 광대하고 묘해서 이 한문으로서는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가슴에 와 닿아야 할 텐데 가슴에 와 닿질 않아서. 나는 그런 것을 현대말로 바꿔서 옛날엔 방편으로 달구지라고 했다면 지금은 짐차라고 하고 비행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알아들을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첨단을 넘어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러죠. 어떤 사람이 "스님, 지금 병원에서 하혈을 하고 죽게 됐습니다." "응, 알았어." 이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이 문 바깥에 한발 떼어놓는 것과 저 우주법계를 한발 떼어놓는 것과 똑같애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집을 가시거나 회사를 가시거나 한번 갔다와 보세요, 아니 가지나.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간다 온다 이런 생각을 안 해도 그냥 한찰나입니다, 빛보다 더 빨리. 그래서 빛보다 더 빨리 이 몸 속에 있는 그 업식들, 악업 선업들이 전부 보살로 화해가지고 선 그렇게 중용을 하는 거죠.

이 몸을 한번 보세요. 여러 생명들이 같이 돌아가는데 하나로 돌아갈 게 어딨나요.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겁요. 하나로 돌아갔느니 안 돌아갔느니 이것이 먼저니 이것이 나중이니 할 수도 없죠. 그냥 공동으로써, 마음이 말입니다.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그대로 공동으로써의 그 가운데에서 높지도 않고 얕지도 않게, 물질세계 정신세계 따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중용이에요.

그러니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승 아닌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내가 이 세상에 나서 모두 봤으니까 배웠고 알았지, 그것들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알고 배웠겠습니까? 그러니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죠. 내 벗 아닌 게 하나도 없고요. 때로는 업신여기고 때로는 못났느니 잘났느니 하고 때로는 깔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겠죠. 모두가 생명이 있고 모두가 마음이 있고 삶이 있는 거니까요. 부처님 법이 따로 높게 훌륭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훌륭하게 해나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고 우리들의 법이자 부처님 법입니다. 꼭 실천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有와 無가 함께 돌아가야

지금 나가서 잘못되는 아이들또 있고 천차만별로 잘못 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력은 들어오고 나가는데 둘 아니게 될 수 있으나 전구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한 가족의 식구들이 자식이다 부모다 이런 관계가 보이지 않는 정신계에선 가설이 된 거예요. 부모다 자식이다 형제다 하는 게 가설이 된 거죠. 가설이 됐으니까 내가 내 주인공에 불을 켠다면 거기까지도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저놈의 새끼, 왜 나가서 공부도 안 하고 저렇게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느냐고, 들어오면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한다면 점점 그것은 아예 마구니로 번져서 버려요. 그러나 "얘, 어디 가서 이렇게…, 배고프지 않으냐? 난 너 걱정 많이 했어." 하면서 따뜻하게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으로써 싸준다면 분명 마음이 합쳐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맡겨야지, 마음이 잘못된 거는 마음이 고쳐야지 말로

☞ 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고장난 것 마음으로 고쳐야

☞ 17면에서 계속

그것을 고칠려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잘못돼서 행이 잘못되고 말이 잘못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강도질도 하고 깡패 짓도 하는 거지, 그 마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마음에서 다 나온 거니깐 마음으로 마음을 고쳐야죠.

그래서 자식이 그럴 때는 '주인공, 저 뿌리나 내 뿌리나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할 때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죠. 이건 마음으로 고장난 거기 때문에 마음이 들어가서 불이 켜져야 환하고 밝아지죠.

우주법계가 다 하나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실때 꼭 마음도리로써 잘 화합해 나가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내가 그러죠 "잘났든 못났든 말이야 이 공부하는데 돈이 들으니 걱정이야, 누가 사랑을 하지 말라니 걱정이야, 재산을 누가 뺏아가니 걱정이야! 왜 못해?" 이렇게 합니다. (대중 박수) 하하하.

회사를 운영해나가시다 보면 그 요새 뭐 회사 안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난다고 그러더군요. 직원들이 제대로 내 일같이 해주질 않는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공부를 해나가는 분들은요 아주 감쪽같이 해나가요. 왜냐하면 기계도 바로 주인 거, 직원들도 주인이 한마음으로 하는 거, 전부 주인이 하는 거지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도 하나도 없지 자기 것도 하나도 없죠. 기계조차 '기계 너도 생각이 있잖아. 너도 주인공이 둘이 아닌데 너가 일하는 건데 잘 해야잖아.' 하고 하니까 다 닳아서 고장이 난 것도 감사가 나왔을 때 다 조사하고 간 뒤에 그때 털컥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깐 다 닳았더래요. 끊어지게 생겼더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 뭐, 고(苦)가 많아서 못산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고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예요. 고가 어디 붙을 자리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지구가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살림살이도 지금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자나 깨나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업 붙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몸뚱이 속에 다 업식이 들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제자리에다가 되놓으면 돼요.

여러분한테서 여러분이 형성돼 가지고 살고 있지 딴 놈이 만들었습니까. 자기 아닌 딴 사람이 살려줍니까, 뺏아갑니까? 모두가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다가 되놓고 '응, 그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 하고 탁 집어던지고선 나는 슬슬 웃고 허허! 그냥 슬기롭게 살지 뭣 때문에 신경쓰고 아둥바둥하고 그럽니까.

부처님 법을 별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이라는 이름은 곤충에서 일체 만물만생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여래라는 것도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서 돌아가는 그 자체를 여래라고 이름지은 것이지 개별적인 하나가 깨우쳐서 부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빠짐없이 그 속에 다 같이 있으니까 한마음으로써 우리가 이름해서 부처라는 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 번 체험을 해 보세요.

▲질문1: 큰스님 반갑습니다. 큰스님의 감로법에 환희심이 일어나 이 법회에 꽃비가 내리고 천상 음악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천리길 머나먼 길 이렇게 오셔서 저희 불자들을 위하여 법좌를 열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떡 하나를 만 사람이 나누어 먹어도 떡 하나가 되남는 도리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떡 하나를 나누어 먹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남는지 하는 의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리를 저희가 쉽게 이해 되도록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 말은 쉽게 하는 말이 아니죠, 본래는요. 그런데 우리가 씨앗 하나를 가지고 만약에 그 씨앗을 심어서 곡식이 생겨서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그 씨앗이 되남아서 또 그 이듬해에 또 심어 먹고, 또 심어 먹어도 되남습니다. 비유를 해서 그렇지, 떡 하나 가지고 일체 중생이 다 먹고도 되남는다 하는 뜻을 진짜 아실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아실 겁니다. (물컵을 들어보이시며) 이 컵만 보면 컵만 보이시겠지만 이 속에는 컵 아닌 컵이 있습니다. 이 물 한잔 속에는 우주를 담아도 남기 때문에 일체 만물만생을 다 먹이고도 되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직접 공부를 해보셔야 이 뜻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2: 저희들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마음을 모으고, 모았다면 비우고, 비웠다면 일임하라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저는 큰스님의 이 법문을 통하여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간절하게 '주인공' 이라고 하는 것이며, 비운다는 것은 '주인공의 뜻으로' 라고 되놓는 것이고, 일임한다는 것은 '주인공이 이끌어라' 고 한생각 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큰스님,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지 가르침 바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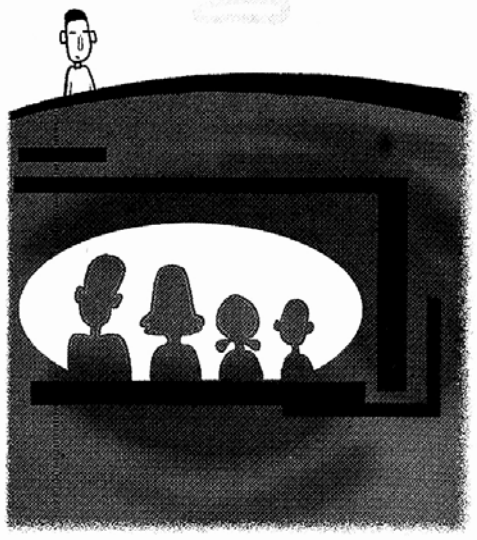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당신의 어려움 · 쓰라림 · 울부짖음 자기자신 속에서 원인 찾으세요

일체 만물만생이 스승

▲큰스님: 네, 아무렇게나 하시더라도요, 그 구녘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저 믿고 거기다가 모든 거를 놓고, 내가 번뇌가 있느니 답답하니 이런 것도, 답답하게 만드는 것도 그놈이니까 답답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놈이 아닙니까? 그리고 안 되게 하는 놈이 그놈이니까 되게 하는 놈도 그놈이죠. 그 구녘밖에 없어요. 과거와 현실과 미래가 통할 수 있는 구녘은 그 구녘밖엔 없어요. 딴 구녘에는 과거 · 미래 · 현재가 틍하질 않아요. 지금 현재에 나오는 것은 과거로 인해서 나오는 거니까 과거로 돌아가야만이 현재에 다가오는 모든 걸 타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미래로 돌아가고 현재도 모두 걸림없이 생활을 할려면 그렇게 놓지 않고는 안 되죠. 즉 말하자면 주인이 내 종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 문서를 맡겼다 뺏았다 한다면 종 문서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거기다가 놓고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질문3: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평등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어찌 남녀가 둘이겠습니까? 또 그 남녀가 평등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조계종의 종풍은 아직도 비구 비구니하며 둘로 나누어 비구니 스님을 차별하여 비구니 스님의 대중설법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큰스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매년 해외와 국내 대법회에 참석하시어 설법하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부처님께서는요, "남녀가 둘이 아니니라. 일체 만물이 둘이 아니거늘 어찌 남녀가 둘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다르겠느냐 이 뜻이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천백억화신이 응신이 돼서 모든 중생들에게 나툴 때, 때에 따라서는 남자도 됐다가 소도 됐다가 작부도 됐다가 때에 따라선 여자도 됐다가 어른도 됐다 애도 됐다 늙은이도 됐다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화해서 나투는데 어떤 거 될 때에 여자라고 하며 어떤 거 될 때에 부처라고 하며 어떤 거 될 때에 남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얕은 소견으로 모습만 보고 여자니 남자니 이렇게 규명을 짓는 것은 안 되니까 그냥 더 말할 거 없고, 난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여자로 보든 남자로 보든 무슨 탓할 게 있습니까.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거를 탓을 합니까. 그냥 주어지는 대로, 가는 거 잡지도 않고 오는 거 막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걸음 걷는 대로 그냥 걸어가는 건데 뭐 그렇게 트집이 많습니까? 여자라고 업신여긴다고 한다니 허,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여자는 어머니도 될 수 있고 남자는 아버지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저 한마음으로 그저 전부 좋게 살아야죠. 하하하.

▲질문4: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요즘 여러 재가불자 신도연합회 등에서 각 가정마다 조그마한 불상을 모셔서 조석으로 신행 예불과 기도 정진을 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뜻에 함께 동참하고 싶으나 선뜻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스님께서는 가정에서 부처님의 불상을 모시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허허! 내 의견하고는 아주 그냥 저 천리만리하고 떨어지는군요. 한번 물어봅시다. 불상을 놓고 그렇게 지내다가 당신이 죽으면 그 불상을 어떡할라요?

▲질문4: 제가 불법을 배울 때는 불법이 마음의 심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의정이 생기는 것은 부처님을 집에서 모셔서 제 마음법을 다스리기도 바쁜데 부처님께 조석으로 예불하며 기도한다는 게 또 하나 다른 것에 끄달린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온 가족이 거기에 동참해야 되니 거기에 선뜻 동참하지 못하겠더라구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큰스님: 뭘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놓고 아프다고 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요, 아주 정말이지 나쁜 업식이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부처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빌다 보면 자기 영혼들이 거기에 엉겨요. 정말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자기 혼백들이 거기 엉겨가지고 요다음에 부모가 죽고난 뒤에 자식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니 이거는 마구니 소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시오. (대중 박수) 부처님을 열 분을 보더라도 내 한마음 속에 부처님으로 하나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로! 내가 지금 가죽 속에 넣고 다니는 것도 때에 따라선 해결 못하면서, 들고 다니는 걸 할려고? 어림없지 어림없어! (대중 박수)

다 먹고도 되남는 도리

그럼 오늘 끝으로 이런 말 한마디만 하죠. 항상 조심할 것은 타의에서 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인없는 빈집이 돼 가지고 그저 아무거나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세균성, 영계성, 윤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엉켜서 아주 고질병이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바깥으로 찾지 마시고 꼭 그놈만 붙들고 늘어지세요. 그놈한테서는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고 또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조상들을 수만 분을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부처님과 한자리죠. (대중 박수) 끝.

※위 법문은 1994년 11월 13일 부산 대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극락장엄경(무량수경) 대강좌(1년)

정토삼부경중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을 범본에서 직접 번역하여 출간하였던 극락장엄경을 이번에 최봉수교수 저자께서 직강하게 되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신행과 정토건설을 위한 무량수경 대강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최봉수 교수

1년	극락장엄경 (무량수경)

◆ 극락장엄경(무량수경) 강좌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강의

인도 · 티벳어학과 개설!!

1. 동산불교전문연구원에서는 부처님의 경전에 대한 보다 깊은 학습을 위해 새로이 인도 · 티벳어 원전 강독반을 개설합니다.



최종남 교수(승가대)

2. 교과목

1년차	산스크리트어 : 산스크리트문법 · 법화경강독
2년차	팔리어 : 팔리어문법 · 잡아함경강독
3년차	티벳트어 : 티벳트어문법 · 보리도차제론강독

◆ 인도티벳어학과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강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TEL 02)732-1206 / FAX 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org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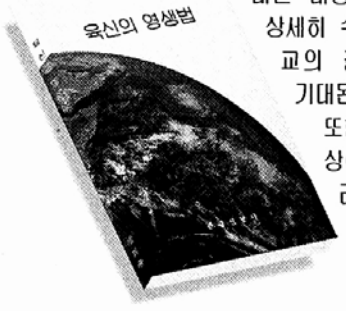
육신의 영생법

육신의 영생법은 장보승스님이 수십년간 수도 하시어 깨달으신 내용들을 서술한 신앙수기이다.

육체는 죽으면 매장하여 흙이 되거나 화장하여 한줌의 재로 변화여도 결국 흙이며 그 흙은 신체의 일부이자 지구이며 다른 식물의 거름으로 또는 미생물의 영양분으로 활동함을 설파하시면서 육신의 영생법을 알아야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천도 된다는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기도 하셨다.

가정에서 사십구재를 지내는 내용이나 방법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생활불교의 길잡이 역활이 기대된다.

또한 육체이탈 현상이나 악신을 물리치는 퇴마사로서의 경험담도 수록하였다.



● 신국판 260면 정가 1만원 ● 소포비용은 별도

● 연 락 처 : 031)532-6661 02)2242-1049
017)380-6661

● 계좌번호 : 농협 225070-51-054089 장석근

살아있어서 생식입니다

생식마을

건강되찾기 10년



임준규 한의학 박사
· 본당 하버원 한방병원 원장 역임
· 남원 호성 한방종합병원 원장 역임

추천서 10여년을 생식만 연구해 왔습니다. 몸을 생각하는 100% 자연식입니다. 고올빛 생식은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계약 재배한 깨끗한 재료를 이용해 고올빛, 생식만의 노하우로 배합해서 생산합니다. 재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고올빛 생식을 찾으십시오. 본당 차병병원 등에 환자식으로 공급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재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전문업체인 '고올빛 생식'을 이용하십시오.

생식의 1석 6조
1.체질개선 2.건강증진 3.피로회복 (생식요법) 4.완전한 다이어트 5.완전식사 6.식습관 개선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고통 없이 체중조절을 하실 분께
저칼로리 영양식으로 굶어야 하는 고통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아침식사(생식)는 활력의 원천
간편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적입니다.
◆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더부룩한 분들께
치커리 식이섬유 보강, 쾌변을 도와줍니다.
◆ 신선한 야채섭취가 부족한 분들에게
생식의 풍부한 효소와 비아, 엽록소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성인병으로 식이요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생식의 고효율 에너지는 병환중이거나 회복중인 환자식으로 좋습니다.

"㈜고올빛 생식마을"은 태어난지 10년된 정통 전문 생식업체입니다.

※ 1개월분(40g × 60포)입니다. ※ 4개월분 구입시 25% 할인해 드립니다.
고올빛 생식마을은 19만명의 고객이 체험으로 전하는 검증된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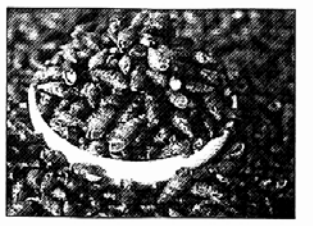
생식 완료 현미, 대추콩, 적두, 약콩, 서리태, 율무, 보리, 차조, 수수, 옥수수, 메밀, 밀, 참근, 우엉, 신선초, 케일, 청프리, 감잎, 콩잎, 검, 호박, 솔잎, 다시마, 김, 구기자, 연근, 표고버섯, 인진쑥, 결명자, 결정과당, 호박엑기스 등 32종

◆ 연락처 : 02)458-0836 017)236-0836
전국지점 및 대리점 모집중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미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봄내음을 식탁 위에

냉이 · 쑥 등 비타민 · 무기질 풍부 연하면서 색 짙은 것이 상품


◇냉이 초무침


◇쑥 칼국수


◇미나리 강회


◇두릅 물김치

식탁 위에 봄을 올려보자.

냉이와 쑥, 두릅 등 봄나물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시켜주고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입안 가득 퍼지는 나물 향기로 봄을 느끼게 하는 봄나물 조리법을 사찰요리 전문가 선재(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 스님에게 들어본다.

선재 스님의 봄나물 조리법

몸에 좋은 봄나물

냉이는 칼슘과 철분 함량이 많아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 좋다.

쑥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소화흡수와 간의 활동을 돕는다. 특히 쑥의 비타민 C는 딸기나 귤보다 많아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냉증과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여성 질환에 좋다.

미나리는 주로 날것으로 먹는데 식물성 섬유가 장의 활동을 도와주므로 변비에 도움이 된다.

두릅의 새순은 중추신경을 자극해 대뇌 작용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정신적인 긴장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다.

나물 다듬기

봄나물은 연하면서 색이 짙은 것이 좋다.

나물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씻지 말아야 나물이 멍들지 않는다. 데칠 때는 끓는 물에 소금과 나물을 넣어 파란색이 돌 때 얼른 찬물을 부어 누렇게 변하는 것을 막는다. 나물은 먹기 직전에 무쳐먹는 것이 가장 좋다.

봄나물 조리법

냉이 초무침 냉이 200g, 소금 1 작은술, 식초 1/2 큰술

1. 곱게 다듬어 살짝 데친 냉이에 소금과 식초를 넣고 무친다.
2. 보통 냉이는 초고추장에 무쳐 먹지만 소금과 식초만 넣어도 산뜻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쑥 칼국수 밀가루 20컵, 쑥 50g, 애호박 1/2, 다시마 1장, 표고버섯 4장, 무 200g, 마른 참죽 줄기 50g, 마른고추 1개, 간장 약간, 양념장(간장 2큰술 청 · 홍고추 각각 1/2개, 통깨, 참기름 약간)

1. 쑥에 물과 소금을 조금씩 넣어 믹서로 곱게 간다. 애호박은 채썬다.
2. 넓은 그릇에 밀가루와 갈아놓은 쑥을 넣고 반죽한다. 반죽을 끈기 있게 치댄 후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30분 가량 넣어두었다가 다시 치댄다. 반죽이 매끄러워지면 밀대를 이용해 얇게 민다. 반죽을 여러 겹으로 겹쳐 칼로 채썰어 밀가루를 고루 뿌려 면발이 서로 붙지 않게 헤쳐 놓는다.
3. 냄비에 물을 붓고 다시마, 표고버섯, 무, 마른 참죽 줄기를 넣고 끓인다. 끓으면 건더기는 모두 건져내고 간장으로 국물의 간을 맞춘다.
4. 다시 끓으면 국수를 넣어 한 번 끓으면 채 썬 호박을 넣고 젓가락으로 젓는다.
5. 양념장을 만들어 상에 낸다.

미나리 강회 미나리 50g, 느타리버섯 50g, 대추 20개, 초고추장(사과 간 것 1/4개, 고추장 1큰술, 식초 1큰술, 통깨 약간)

1. 미나리는 줄기만 소금물에 데친 후 헹궈놓는다. 느타리버섯은 끓는 소금물에 데쳐놓는다. 대추는 돌려 깎는다.
2. 느타리버섯 위에 대추를 놓고 미나리 줄기로 감는다. 감은 후에 남는 미나리 줄기는 속으로 밀어 넣는다. 이밖에 호두,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등 취향에 따라 다른 재료로 만들어도 된다.
3. 사과즙을 넣은 초고추장을 함께 낸다.

두릅 물김치 두릅 600g, 소금 약간, 고춧가루 2큰술, 홍고추 3개

1. 두릅은 보라색 껍질이 붙은 것으로 골라 칼로 딱딱한 밑동을 잘라내고 껍질을 벗긴 후 물로 잘 씻는다. 물이 끓을 때 소금을 넣고 밑동부터 넣어 숨만 살짝 죽을 만큼 데친 후 찬물에 한 번 헹궈둔다. 두릅 데쳤던 물은 국물로 쓰기 위해 식혀둔다.
2. 큰 것은 5cm 크기로 자르고 굵은 것은 반으로 가른 다음 고춧가루와 소금을 넣고 무쳐 항아리에 담는다. 두릅 삶은 물에 두릅 헹군 물을 섞어 소금으로 간한 후 두릅이 잠길 정도로 붓고 어슷 썬 홍고추를 띄운다. 이틀 정도 두면 특유의 향과 맛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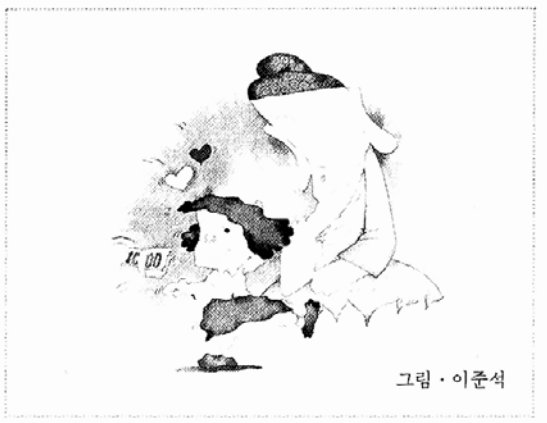
(자료제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신행담

제7회 신행수기 당선작

천태종 총무원장상

부처님이 안겨 준 행복 (上)


그림 · 이준석

거액 보증 섰다 친구 · 돈 모두 잃어
법당서 기도하는 꿈… 佛子의 길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없이 행복하다. 이 행복이 어떻게 얻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하자면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직에서 근무하던 나는 큰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 경남 통영에서 양식업을 하게 됐다. 우렁쉥이와 굴조개 양식장에 적잖은 돈을 투자했다. 운이 좋았다고 할까? 수입이 꽤 좋았다. 연 8억 수익이 거뜬 하자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나도 사업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자 돈 쓰는 일에도 재미가 붙었다. 10여 년 전 덕망 높으신 큰스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는 돈으로 사찰이나 하나 사두었으면 좋겠다"고 한 말씀은 이미 잊은 지 오랜 터였다.

그런 어느 날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찾아왔다. 사정이 다급하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두 손 모아 비는 것이다. 사연인즉 남편의 사업이 잘못돼 1차 부도가 났고, 내일이면 2차 부도가 날판인데, 그렇게 되면 교도소행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친구의 간청을 차마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생각 끝에 친구에게 6억원을 내주었다.

그런데 그 후 7개월이 흐른 어느 날 그 친구가 또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부동산 서류까지 챙겨 와서는 담보제공을 할 테니 한 번만 더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괜히 보증을 섰다가 돈 잃고 친구 잃는 것은 아닌가 해서다. 그러나 오히려 거절하면 친구를 잃을 것만 같아 친구를 따라 은행으로 가서 여러 가지 서류에 도장을 꾹꾹 눌러주었다. 4억원, 역시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그 친구가 내게 다녀간 얼마 후 그만 잠적해 버린 것이다. 나는 돈과 친구를 한꺼번에 잃은 꼴이 됐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버스는 이미 지나간 뒤였다. 사업장에도 건강에도 큰 타격이 몰아쳤다.

나는 우울증에다 온 몸이 마비되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고 말을 더듬었다. 순간순간 팔다리의 마비로 걷지 못하는 고통까지 겹쳤다. 눈도 잘 보이지 않는데다 귀도 멀어졌다. "아, 이러다가 죽는구나"하는 좌절감에 눈물로 지새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어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잠든 어느 날이었다. 꿈속에서 내가 마당 만큼이나 큰 화선지에 붓으로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다음 날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찰의 법당 한가운데에 앉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 때 나는 이것이다 하는 결심이 불쑥 솟구쳤다. 나는 그 길로 그동안 하던 일들을 대충 정리하고는 100일 동안의 만행길에 올랐다. 그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곳이 구인사였다. 그 곳에는 뭔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 같은 예감과 그 무엇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믿음 속에 나의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 같이 느껴졌다. (계속)

김숙희(경남 진해시 용원동)

송암수중체조교실
Aqua Exercise Center

국내 최초의 수중운동 센터

수중운동 전문가의 1:1개별관리, 운동처방상담, 자가통증관리, 한방수중체조(수중팔단금,태극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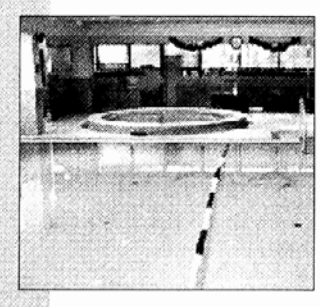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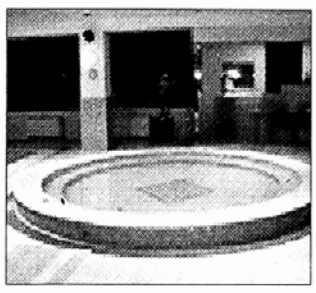
송암 수중체조교실의 수중운동이란?

■ 수중운동요법 (Aqua Therapy)이란

수중운동과 물리치료가 결합된 형태로 어떤 질병이나 사고 또는 내재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신체적(근 골격계, 순환계, 신경계), 정신적, 정서적으로 비정상적인 패턴들을 물의 특성 즉, 수압이나 수온, 저항과 부력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수중기법을 통하여 정상패턴으로 회복 또는 증진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송암수중체조교실에서는 이러한 물의 다양한 특성(점성, 부력, 수압, 수온 등)과 운동요법을 이용하여 운동이 필요하나 쉽게 운동할 수 없었던 관절/요통환자, 재활, 임산부, 비만인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암 수중체조교실 시설 안내 (Aqua Exercise Center)

■ 국내최고의 수질관리 시스템
첨단 인공 해수를 장치, overflow 및 목합필터에 의한 여과장치

■ 국내최초의 수중운동시설
- 수온 30℃내외, 가로 15m × 세로10m, 수심 1.2m
- 관절의 기동성 증대와 근력 증강에 따른 통증 감소를 위한 다양한 수중운동기구 시설

■ 반신욕 spa pool
- 36℃이상의 따뜻한 물에서 근육이완 현상을 이용 자세 변형에서 오는 질환과 통증 예방

■ 맞춤 관리 시스템
수중운동 전문가에 의한 개인별 수중운동 처방

■ 한방 수중체조 (수중태극권) 프로그램
한방이론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안내


■ 관절, 요통반
수중운동은 관절, 요통을 가지고 계신분 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운동으로서 유연성, 근력, 지구력을 향상시켜주며 통증을 줄여줍니다.


■ 재활반
중풍 후유증, 소아마비, 운동 상해,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들을 1:1 개별치료를 시행하여 마비부위의 빠른 회복과 환자의 자신감을 회복시켜드립니다.


■ 임산부
수중에서는 아래로 당겨지는 아기에게 미치는 중력이 줄어들어 근육과 관절에 스트레스가 없으며 체력을 유지시켜 분만과 산후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 장애수영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신체기능회복, 자신감 회복을 위해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수영 방법을 지도합니다.

■ 아쿠아로빅(비만반)
비만인들에게 상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며,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 보다 수중에서의 움직임이 더 많은 칼로리 소비를 일으키므로 좀 더 효과적인 운동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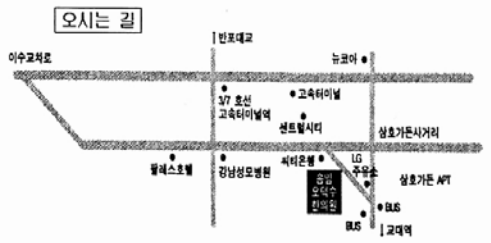
송암 오덕수 한의원 & 송암 재활의학과 의원

■ 송암 오덕수 한의원 & 송암 재활의학과 의원 소개
송암 오덕수 한의원은 연면적 1,700평에 지하 4층, 지상 8층의 대규모 시설로서, 한양방병원, 부설 한방수중체조교실, 종합스포츠센터(fitness club oh)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여년 동안의 임상경험을 기반으로 한,양방 협진체제와, 종합 스포츠시설(fitness club oh) 및 부설 한방 수중체조교실을 운영하여 치료와 운동이 결합된 이상적인 질병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문병원 입니다.

■ 송암 오덕수 한의원 & 송암 재활의학과 의원 소개
- 1965년 개원
  – 강원도 삼척시 '대한의원' 후에 '대한한의원' 으로 개명
- 1985년 이전 개원
  – 서초구 반포본동 '오덕수 한의원'
- 2001년 8월 송암 오덕수 한의원, 송암재활의학과의원 개원
  – 연면적 1,700평(지하 4층,지상 8층)의 한양방병원과 종합스포츠센타 연계운영
- 2001년 10월 부설 수중체조교실 개설

■ 진료시간
월 ~ 금 : 09:30 - 18:30 토 요 일 : 09:30 - 16:30
점심시간 : 12:30 - 14: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진 입니다.

오시는 길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5-2
TEL : 02-530-8200
FAX : 02-592-8244
www.songamclinic.co.kr
● 수중체조교실 직통전화
02-530-8220~2

수중체조교실 1회 무료 이용권 (남,여)
성명 :
전화 :
(유효기간 : 2002.3.31)

한국일보

2002년 1월 21일 월요일

최근 송암오덕수 한의원에서는 관절염이나 요통환자들을 위해 수중태극권이나 수중팔단금등의 한방수중요법을 개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수중태극권이란 태극권의 동작을 물 속에서 응용한 것으로 복식 호흡과 전신의 전후좌우움직임을 결합해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이다. 비만으로 인한 관절질환자, 임산부, 오십견 환자들의 근이완과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한의원에는 가로 15m, 세로 10m 크기로 일반 수영장과 다른 30도의 수온과 1.2m의 수심을 가진 수중운동 전용 풀이 설치됐다.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약 300여명이 이 한방수중운동에 참여했다.

승영주기자 yjsong@hk.co.kr

한겨레

클리닉 면 장

송암한의원(원장 오덕수,김승수)이 19일부터 국내최초로 관절환자와 요통환자, 마비환자, 비만인, 노약자들의 효과적인 재활운동 및 체력단련을 위한 수중운동 전용풀을 개관했다.
한의원 부설 송암수중체조교실에서 일반 수영장으로 설치된 전용 풀은 수중운동에 적절한 수온(30℃) 및 수심(1.2m)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재활환자의 수중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 보조기구와 온천(스파)를 이용한 반신욕 풀(수온38℃)등도 마련했다.

(02)530-8220~8222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수산스님의 기체험 기치료 역학상담
02)3444-4376
www.bulljichon.com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격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수강생 모집
범음 범패 및 각종의식
바리춤, 나비춤, 사물
배우실 분 연락바랍니다
017)550-6581

각종의식, 불공 기타
스님 필요한곳은 연락바랍니다
051)462-7374
018)523-7374

오참법수행
업장소멸로 청정한 자성을 봄
영가로 인해 난치병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구병시식 영가천도로 완치 자신 함.
※ 바른 수행 설법강좌
- 진정한 수행자의 길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20
호동골토굴017)859-1389

사찰 종무소 여사무원 구함
▷운전면허 소지자 및 숙식가능자
032)522-0381
016)302-7711

포교사, 법사 자격시험
▷전형일자 : 원서 접수 후 개별통지
▷접수일자 : 매월 30일까지(우편가능)
▷응시자격 : 포교사 분야, 법사 분야
▷시험장소 : 민대 교학대학원 법회실
▷검정방법 : 시류진술, 논술과 면접
▷특전 : (1) 본회의 정정지각 부여
(2) 불교문화 신문사 포교
(3) 민대 교학 대학원 포교
법사과정에 한하여 수료증 발급 할 수 있음
▷접수처 : 서울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대표전화 011) 412-8040
한국 불교 지도자 연합회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50세 금호동
02)2234-33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5세
경남 김해
055)331-63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1)9721-219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5)932-5706

행자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충북 괴산
043)832-4624
011)606-8498

女 종무원 구 함
▷나주 불회사
061)337-3440

부전스님 모십니다
051)501-9314

스 님
신용카드가 필요하십니까?
부다피아하나카드 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 부다피아하나카드 발급 대상 스님, 종무원
• 문의전화 : 02)6678-1115~6
현대불교 부다피아 카드 사업단

조용히 수행할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 경기도 가평
031)585-150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60세 이상
[하늘과 산만보이는 사찰입니다]
상운사
033)482-3382~4

부처의길(修行의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願力있는 미혼여성 한분을 道伴으로 모십니다
충남 공주시 계룡면 내층리 6번지
능인선원(무문관)
018)415-0086

부처님(불상) 모실분
1. 석가모니불(1) 2. 비로자나불(1)
3. 노사나불(1) 4. 관음보살(1)
5. 지장보살(1)
성분 : 청동 규격 3자×1자
보시금 총액 5000만원(시세반액)
6. 탱화 4점 2000만원
보시방법 부동산, 동산도 가능함
011)593-6067/051)643-222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불심이 돈독한
40세~60세의 공양주보살님
인연을 기다립니다
구례 화엄사
061)782-0016

행자 비구니
신심있는 보살님
산새좋고 물좋은
조용한 암자에서
가족처럼 함께
사실 분 모십니다
017)708-0635

행자모집(남)
신심과 원력을 가진
신체 건강한 출가 수행할
예비스님을 찾습니다.
• 17세~22세 • 거주지역(구이)
• 학업성취에 따라 대학까지 진학
• 연락처 : 현대불교
053)256-0443
불교용품점 운영하실 분 연락바람

금강경 병풍보급안내
기도많이 하신 스님께서 쓰신
* 순수 경면주사 영인본 10폭
* 원하시는 분께는 표구전의 글씨상태로 보급합니다.
문의전화
031)257-3565
011)213-1514

* 형식 : 10폭 날개 병풍
* 폭 : 10자 * 높이 : 5자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877-751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50~60세]
064)713-2553
011)699-4842

사찰 사무원 구함
신심있는 여성불자
041)673-3222
041)673-1888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생모집
교육내용(불전의식)
♦일용의식(도량식 · 종송 · 예경 · 각단예불)
♦상용의식(불공 · 천도재 · 시식)
♦재반의식(점안 · 이운 · 방생 · 다비시다림)
※ 법패 · 작법도 병행해서 교육함
♦교육기간 : 6개월(속성반)
♦교육일정 : 매주 수 · 목요일 오후 5 · 7시)
☎ 02)921-3425
대한불교조계종 어신작법학교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벼락맞은 벽조목 염주
스님께 염주를 보시하면 수명장수하고 좋은 업보를 받아 소원이 이루어 진다하여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염주·단주,인장 도장등을 만들어 사용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학업성취,시험합격,결혼성취,부부화합,사업번창,건강괘차,매매,사고예방,취업,신규사업등 신비한 영험을 체험해 주십시요.
부처글 지장암 054)383-8553 · 011)9585-4908
염주 大 12만원,中 6만원 短주 6만원, 인각 5만원
농협703088-52-037905 이만택

수액시트의 배독요법
병을 고치려면 먼저 독을 빼라
「발바닥에 수독과 노폐물을 빼니 놀랄만한 효과」

무릎통, 어깨통, 요통, 류마티스, 각종 관절염, 통증, 간염, 신장병, 위염, 천식, 감기, 폐렴, 안질피로, 심한가려움증, 비만, 고혈압 노장해, 치통, 암의 후유증, 냉증 등 40여 질병
• 실제 배출되는 노폐물은 확인 된다
• 병원의사도 인정하는 배독요법
• 발바닥과 환부에 붙인다
한국목탄연구소 소장 장재은 저
10,000원을 보내면 책과 체험시트 3장분 보냄
한빛은행 114-07-124799
한국목탄연구소 02)925-0300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광역시 시내 (지하철역 200m)
• 대 지 : 110평
• 법 당 : 20평 • 요사채 : 30평
• 양도가 : 3억 2천
• 역사 오래된 도심 사찰 임
• 위 치 : 춘천시내
• 부 지 : 2만 5천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50평
• 양도가 : 5억
• 산새 및 계곡이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진주 20분거리)
• 임야 : 5,000평, 종교부지 80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주지실(황토방 30평)
• 가액 : 3억 2천만원
• 특징 : 경치수려, 기도도량 적합
011)804-856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 평수 : 242평
• 건물 : 4동 (요사채 2동, 산신각, 대웅전)
• 가액 : 1억
055)391-5369
016)772-5369

포교당 안내
• 안양시내 2층
• 평수 53평
• 법당 주방 방1개
• 보증금 17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1)9135-8229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에서 1시간 20분거리 원주 새말 IC에서 10분거리
• 건평 : 약 100평, 대웅전 30평 요사채 큰방 5개, 산신각(5평)
납골당 100개 향나무 시설 완비
• 특징 : 산세좋고, 기도처로 최적 사용가능 부지 약 1000평
• 가액 : 1억 5천(전세)
011)9878-6856
033)345-5597

시외전화 44%할인!
핸드폰에 걸때 20% 할인,
국제전화 걸때 95% 자동 할인되는
전화기 무료 보급함
한국통신 할인서비스료 월 3000원 분!!
월드폰 02)424-9427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위치 : 부산 • 법당 : 30평 • 위치 : 오산
• 법 당 : 22평 • 요 사 : 75평(기와,단허필) • 법 당 : 30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548평 • 가액 : 8억 5천 • 요 사 : 70평
• 부 지 : 330평 대출 3억 가능, 시내에 있으며 • 부 지 : 330평
• 가 액 : 2억 8천 경내 노송이 어우러져 산사냄새가 물씬 풍기는 운치있는 사찰 임 • 가 액 : 4억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인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정사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근교
• 대지 밭 합 600평 이상
• 신축한옥 30평 큰창고 2동
• 사철 맑은 계곡과 좋은 교통 및 경관
• 가액 : 8500만원
054)337-5156
011)9857-5156
박청산 합장

토굴주택 안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외산면 화성리 442번지, 무량사에서 10분거리
• 대지 : 90평 • 건물 : 15평 (방 5개, 보일러, 세면시설,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천만원
• 스님이 현재 거주하고 있음
011)541-9457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 5분거리
• 평수 : 20평
• 요사채, 주방, 주차시설완비
• 특징 : 도심지 교통요지에 위치하여 포교에 적합함(시설완비)
• 가액 : 2,500만원
011)213-5212
02)877-4353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천구 신정동 신정역 2분거리
• 평수 : 40평
• 보증금 1,000만원
• 월 47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2)2601-7759

탈 종 공 고
• 부산교구 : 김창경 • 법명 : 성도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함
불기 2546년 3월 5일
대한불교 선교종 법하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 2동 백양산 산하
• 대지 : 46평
• 3층건물 : 1층(방2, 주방) 2층(방3, 주방,욕실,화장실) 3층(법당, 주지실)
• 특징 : (이미타, 관음, 지장) 삼존불 봉안 후불탱, 지장탱, 약사탱, 신중탱화, 지장 58불, 석등, 불기, 에어콘 2, 생활용품일체
• 가격 : 1억 1천만원(농철대출, 3500만원포함)
051)343-6737
016)582-9580
017)372-8968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113-1
• 부지 : 약 10000평 이상
• 신축 대웅전 20평, 요사채 1
• 실 2억 7천, 가액 1억 7천 전세도 가함
亂世最吉詳之地
061)867-2878

신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지리산)
• 부지 605평, 황토 한옥 32평, 요사 9평 자연석 탑 둘레 25m, 연못, 남향 뒷산 5200평 매입 가능
• 가액 : 대출 5000만원에 현금 9천만원 공사비용 1억 9천만원
• 토굴터 2583평 중 대지 100평
• 가액 2천만원
055)963-4965

포교원인수하실분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650만원
• 울산 중구 학성동
• 2층 23평, 방 1개
• 즉시 인수 가능
• 꼭 포교원을 운영해 보고 싶은 분
011)9601-1876
오후 5시 이후 연락 바람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통영간
• 부지 : 약 800평(준농림지) 안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티어 아주 좋음
• 가액 : 4천 5백(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단성면
• 부지 : 863평
• 주택으로 지목변경 완료
• 차량진입 가능
• 전원주택지로도 가능
• 가액 : 평당 5만원
011)564-9016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50평
• 법당 : 23평 • 요사 : 23평 • 가액 : 2억 5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경남 사찰(급)안내
• 부지 : 약 3천평 • 법당 : 27평
• 요사채 : 50평 • 주지실 : 12평
• 삼성각 : 12평(목조)
• 특징 : 좌청룡 우백호가 두루 좌고 소나무가 우거지고 삼천포 앞바다가 걸리서 보임
• 주차장 : 200평 대형차량진입가능
• 가액 : 4억 5천 ※ 볼사할 것 많음
017)844-9448
016)207-5600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 2리 388-4
• 대지 : 270평 • 토지임야 : 130평
• 합 : 400평 • 건평 : 30평
• 가액 : 3억
사찰하기에 매우 적합 함
031)762-3337
02)3494-6442

사찰 안내
• 부천시 고강동 소사찰 위치 최상급
• 대지 : 43평
• 건물 : 1층 22평, 2층 9평
• 건축 4년, 적벌돌, 슬러브
• 융자 : 8천 300백만원 합 1억 8천 3백만원
017)291-4125/032)671-9040

암자 인수하실분
• 요사채, 돌탑, 연못(신축) 완비
• 위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소재지
• 대구 김천 구미 외간 중간 지점
• 야산 5000여평 사용 가능
• 320평 총 8천만원
• 창건주 직접
017)813-9126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하양읍 소재
• 부지 : 임야 7만평 (절터사용 1만평)
• 가액 : 평당 3천원 (절충가능)
• 특징 : 산수 수려하고, 냇가가 있어 전망좋은곳 임
011)9370-2629
(실 소유자 연락처임)

토굴안내
• 위치 : 포항 장기면 (경주 감포 10분거리)
• 부지 : 978평 중 450평 종교용지
• 건물 : 요사채 60평(임법당 포함)
• 작업실 : 20평
• 특징 : 바다근접
• 가액 : 1억 천만원
011)495-77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읍내
• 건물 : 법당 10평, 요사채 20평, 정남향, 목재 기화, 종교시설, 등기, 방 2개, 입식 부엌
• 대지 : 88평
• 연혁 및 특징 : 40년 교통, 주차편리, 인적 부지 매입가능, 중창불사 원력 있으신 분 적합
• 가액 : 9천만원
011)879-4791
055)852-4130

사찰 터 안내
경남 산청에 임야 4만평안에
축사 600평 주택 22평 명당터에
주위경관 너무 좋음. 사찰로서 최적지
주인직접 가격 절충
055)972-0045
011)835-5622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 1동
• 건물 : 4층 건물 중 2층 지장사
• 평수 : 85평
• 법당, 주지실, 종무실, 선방, 주방, 창고 1개(배란다 사용)
• 삼존불, 지장보살, 산신, 108불 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에어콘 , 주지실, 법당, 주방용품 일체 보시함
• 스님 급한 사정으로 급 안내
• 보증금 500만원 월 75만원 권리금 4,500만원 절충가능함
017)737-4517

사찰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 대지 : 151평
• 법당 : 14평 2층 건물 (1층 요사채)
• 가액 : 2억 6천만원
• 특징 : 지하철 5분거리 광안리 앞바다가 보이는 전경
017)852-0244

토굴급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바다가 보이는 산골마을)
• 부지 : 대지 200평 임야 500평 합 700평
• 슬레이트 목조 한옥집 2채(보존상태 양호) 돌, 나무, 자연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조경, 전실이 있는 신비한 약수
• 독립된 포장도로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가액 : 3,500만원(절충 불가)
011)9036-5828

포교원 안내(급)
• 위치 : 김해 동상동
• 법당 : 삼존불,지장,산신,용왕,지장소불, 108불, 영가단, 후불, 흙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탱화, 용왕탱화
• 평수 : 3층 50평 (방3개,주방,사워실,주차장완비)
• 전세 : 3,000만원 월세 47만원 (시설비 2500만원) 절충가능
017)550-6581

사찰안내
• 위치 : 언양에서 석남사 중간
• 대지 : 1200평
• 법당, 요사채
• 2억 2천

사찰안내
• 위 치 : 밀양 표충사 부근
• 대 지 : 300평
• 요사채 : 85평
• 3억

영남지방 전문 사찰컨설팅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불교 이래서 좋다

고기현 쇼트트랙 국가대표

"불교는 생활… 모태서부터 인연"



불교는 나에게 있어 종교라기 보다는 생활이다. 특히 독실한 불자인 부모님들의 영향으로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때부터 불교와 큰 인연을 맺고 일상생활은 물론 운동할때도 늘 부처님 품안에서 살고 있다. 특히 쇼트트랙 경기가 결승점에서 보통 몇백분의 1초를 다툴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지막 골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 참선과 기도를 많이 한다.

목동집 내 방에는 어머니가 손수 경전에서 발췌해 쓴 경구와 기도문이 벽에 붙여져 있다. 잠들기전이나 아침에 일어날때면 가장 먼저 이 글귀들을 가슴에 새긴다. 또 몇해전 통도사의 어느 스님이 주신 단주를 시합이 있을때면 꼭 챙겨가 경기 시작전 돌리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이렇게 나는 한번도 불교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다. 초등학교 때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한 이후부터 더욱더 부처님 가르침에 많이 의지하게 됐다.

스포츠를 모르는 사람들은 운동이 단순히 육체적인 훈련만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긴 장의 연속인 승부의 세계에서 정신력이 크게 승부를 좌우한다. 선수들간의 실력 차이가 백짓장 한 장처럼 작기 때문에 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승점까지 흐트러진 마음을 잃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다. 이런점에서 나는 어려서부터 내 생활의 일부가 돼 버린 불교에서 큰 도움을 받는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비장의 무기가 내게 있어선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번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도 불교가 내곁에 있었고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2월 26일 양정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댄스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청소년들이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있다.

청소년 수련관

방과후 문화체험 공간

교계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방과 후 학교밖에 있는 문화체험 공간이다.

청소년수련관들은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사설학원과 문화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들은 꽉 짜여진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다양한 취미활동은 물론 여가를 활용하기에 안성마춤. 특히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무료이거나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

서울 목동청소년수련관은 꿈나무종이접기, 생각을 여는 글쓰기, 부드러운 찰흙교실, 댄스, 리더십 기르기 등 30여개가 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심리검사, 감수성훈련, 자기표현 훈련 등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도 준비해 언제든지 심리적인 고민이나 문제가 생기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부산 양정 청소년수련관도 힙합 · 살사 · 재즈댄스 배우기, 인터넷, 고전 무용 등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들을 개설했다. 또 매달 수련관 소극장에선 △16일 '흑수선' △30일 '코난1' 등의 일정으로 무료영화상 영화를 연다. 5월에는 월드컵을 맞아 '청소년 월드컵 응원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찰흙교실 · 댄스 · 자기표현 · 리더십 양성 등

무료 · 싼값으로 다양한 취미활동 가능

함지골청소년수련관에서 개설한 민요부르기, 도자기공예, 풍물배우기 등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강좌들이다.

청소년수련관을 자주 찾는다는 김규진군(서울 동대부중 2년)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다양한 강좌가 많아 재미있다"며 "비싼 학원비 때문에 사설 학원이용은 엄두도 못냈는데 학교가 끝난 뒤에도 갈 곳이 있어 즐겁다"고 좋아했다.

이외에도 강북청소년수련관에 가면 만화를 비롯한 애니메이션과 인터넷, 뮤지컬 영어, 연극놀이 프로그램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안양청소년수련관은 서예, 과학교실, 자기표현과 리더십 스피치 교실 등을 운영한다.

양정청소년수련관 윤기혁 청소년과 대리는 "대부분의 청소년 수련관들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며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즐겁게 찾아야 놀고 동아리도 결성해 문화활동도 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센터의 기능까지 갖춰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청소년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청소년수련관명	전화번호	강좌 및 문화 프로그램
목동청소년수련관	(02)2646-0181	꿈나무종이접기 · 글쓰기 · 음악 · 컴퓨터
강북청소년수련관	(02)900-6650	에니메이션 · 홈페이지 제작반 · 몸짓과 연극놀이
중랑청소년수련관	(02)490-0214	재즈댄스 · 논리논술 · 창작미술 · 인터넷
노원청소년수련관	(02)3391-4141	무료영화감상 · 수영 · 무용 · 피아노
안양청소년수련관	(031)380-6890	서예 · 과학 교실 · 자기표현과 리더십 스피치
제천청소년수련관	(043)651-7474	논술교실 · 컴퓨터 · 무용 · 서예
함지골청소년수련관	(051)405-5223	민요부르기 · 도자기 공예 · 댄스스포츠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	(051)868-0750	무료영화상영 · 힙합댄스 · 에어로빅 · 인터넷



◇장동건씨의 팬 사이트 대표인 오경순(왼쪽)씨가 생명나눔실천회 손양호 상임이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영화배우 장동건 씨 팬들 생명나눔실천회에 후원금

영화배우 장동건씨가 지난달 인세로 받은 1천만원의 성금을 '생명나눔실천회'에 기탁한데 이어 장씨의 개인 팬들도 6일 15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장동건씨의 개인 팬 사이트(www.jangdonggun.pe.kr) 대표 오경순씨(주부 · 38세)는 "배우 장동건씨의 보시행을 본받아 1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사이트에서 모금한 150만원을 생명나눔실천회에 전달하게 됐다"며 "후원금 기탁뿐만 아니라 장동건씨와 함께 생명나눔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 설법대회

本社 · 조계사 청년회 23일 개최

현대불교신문사와 조계사 청년회(회장 정우식)는 공동으로 23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를 주제로 설법대회를 개최한다. 신행활동의 체험담을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해 포교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청년회원들에게 길러주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 참가를 원하면 16일까지 '불교에 관한 자유 주제'의 내용을 요약해 조계사 청년회에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들에게는 '현대불교 1년 구독권' 등 푸짐한 선물이 마련돼 있다. (02)735-3724

담배를 끊읍시다

금단증상 예습 2

1. 소화장애

소화가 잘 안되고 변비가 생기며 가스가 찰 수 있다. 보통 1~2주 정도 지속된다.

〈대처방법〉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자주 먹는다.

2. 기침

그동안 쌓였던 타르 등을 제거하기 위한 신체의 정상적인 방어 과정으로 가래가 늘면서 나타난다. 수일 동안 지속되다가 사라진다.

〈대처방법〉

▷물을 많이 마시면 기관지에 붙어 있는 가래를 뱉어 내는데 도움이 된다.

3. 공복감, 배고픔

평소에 먹던 양보다 더 많이 먹으려는 경향이 생기고 음식물에 대한 적응이 잘 이루어지면서 체중이 증가한다.

〈대처방법〉

▷그때마다 칼로리가 낮은 스넥이나 음료를 섭취하고, 스트레칭과 조깅과 같은 적당한 운동을 한다.

4. 불면증

수면장애가 발생하거나 두통, 신경과민, 기침 등의 증상에 의해서 수면장애가 발생한다.

〈대처방법〉

▷긴장을 풀고 참선이나 명상을 시도해 본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

소화장애땐 섬유소 많은 음식 섭취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유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 가르침 실천모임

수행의 場 등 3개 부문

"오시는 걸음 편안하셨는지요? 이 곳 부처님나라에 왕림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도반이 되었으니 시간과 공간의 아무런 제약이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유니텔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대표시삽 이현중 · 이하 부처님나라)에 처음 접속하면 이같은 메시지를 접하게 된다. 사이버 공간이지만 인간적인 정을 느끼게 하는 이 한마디가 부처님나라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임을 네티즌에게 알리고 있는 셈이다.

부처님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불자 모임으로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땅에 생활불교를 뿌리내리고자 노력하는 피시통신 불교동호회. 1996년 5월 23일 개설 이후 1년도 안돼 회원이 1천명을 돌파했고 지금은 2천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유니텔불교동호회 피시통신 홈페이지 메인화면.

부처님나라는 불자들의 수행, 정보교환, 회원친목 도모의 장으로 유명하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수행의 장, 불교를 찾아서, 도반과 함께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참선방, 염불방, 경전방, 봉사방으로 구성된 수행의 장은 부처님나라의 공부방으로 불교계에서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모든 수행과정을 한곳에 모은 코너. 회원들은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택해 온라인으로 학습을 한뒤, 매주 또는 매달 정기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직접 실수를 한다. 불교를 찾아서 코너는 자료실로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도반과 함께 코너도 부처님나라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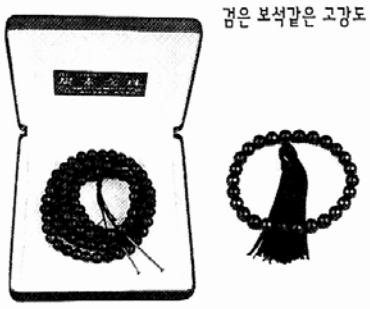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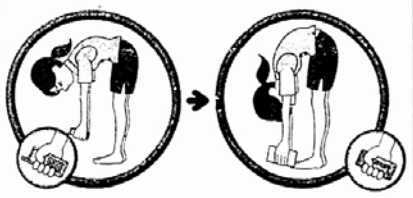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42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2년 3월 25일까지
◆ 개강일시 : 2002년 3월 26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 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청강 대진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신변에 사기를 쫓고 기를 보충한다! 발명특허출원중
탄소염주
검은 보석같은 고강도 숯을 한알한알 깍아 만든 장인정신의 결정체

●숯은 탄소덩어리이고 탄소는 기를 모으고 氣가 부족한 곳엔 氣를 공급한다.
●숯은 정화와 해독의 탁월한 천연소재이다.
소중한분에게 최고의 선물
염주위에 못을 놓으니 곧 자석이 되네요! 더 좋은 염주가 있을까요?
◉ 소지하시면
· 숯은 체내에 침투하는 시기나 유해물질을 정화시킵니다.
· 氣가 약한분은 이 염주를 소지하십시오. (그림같이 해보세요)
· 몸의 산화를 막는 환원작용을 합니다. (숯의 환원작용)
· 기도, 참선에 집중력을 높입니다. (음이온 효과)
· 몸의 냄새를 제거합니다. (숯의 탈취효과)
· 몸에 닿는 부분의 어혈을 풀어줍니다. (원적외선 효과)
· 108염주에 매인 숯의 유해물질의 흡착정화 면적이 약 3,600평(40여배)이나 됩니다. 염주위에 못을 놓아두면 자석이 되네요. (실험해 보세요)
◉ 규 격
▶ 108염주 8m/m(150,000) 10m/m(160,000)
▶ 팔 장 주 6m/m(40,000) 8m/m(45,000) (팔찌겸용)
▶ 단 주 15m/m(70,000) 20m/m(90,000)
(108염주 구매자에게는 '숯이 사람을 살린다' 책증정)
※ 건본품은 조계사 입구 상운승복 02) 738-9485
깜짝놀랄 氣 테스트 염주를 잡으니 바로 내몸에 氣가

먼저 맨손이나 기가 낮은 물품 (담배, 휴대폰 등)을 쥐고 측정한다
다음은 탄소염주를 한손에 쥐고 앞으로 구부려 측정해 본다
한국목탄연구소 02)925-0300
송금계좌 조흥은행 359-03-004847 예금주 : 한국목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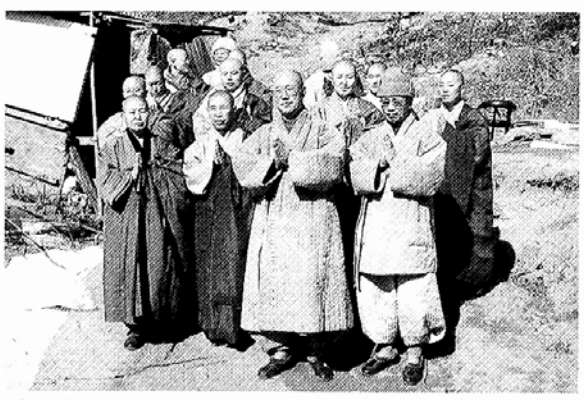
◇5일 사찰환경 수호 범불교도 대회를 마친 후,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북한산 훼손에 대한 참회정진을 올리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로 인해 훼손된 나무들을 위한 천도의식.



◇많은 불자들이 조계사 마당에 설치된 서명대에서 사찰환경 수호 의지를 다지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앞줄 오른쪽)은 7일부터 북한산 송추공사현장에서 북한산지키기에 나섰다. 앞줄 오른쪽 두번째는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

산의 살점 떨어진 자리 나무피 흐른다

쌀쌀한 날씨속 사찰환경수호 범불교도 대회 이모저모

죽어간 나무들 위한 천도재

○…5일 조계사에서 열린 범불교도 결의대회에 모인 1만여 불자들은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로 죽어간 나무들을 위한 영가천도식과 연비의식을 봉행하며 사찰환경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어린이 불자들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환경수호에 뜻을 모았고,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와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연대사를 통해 불자들과 함께 했다.

눈시울 붉히며 거리서 예불

○…청와대로 가자! LG본사를 찾아가자!

조계사 대회가 끝난후에도 울분에 찬 불자들은 오후 3시 30분경 조계사 밖 우정국로로 향했다. 경찰들이 제지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 자리에 멈춘 2천여 불자들은 나날이 황폐해지는 북한산을 바라보며 연신 절을 하며 기도를 올렸다.

땅바닥 엎드려 참회정진

○…오후 4시 30분 조계사앞 우정국로에서 정진을 마친 2천여 사부대중이 그만 조계사 안으로 들어가자며 동요하자 "나무 벤 자리에는 나무의 피가 흐르고, 산을 뚫고 할퀸 자리에는 산의 살점이 떨어진다"며 회룡사 비구니 스님이 큰소리로 일갈했다. 이에 2천여 사부대중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참회정진을 계속했다. 비구니 스님들의 자그만 손이 빨갛게 얼어붙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보살들은 스님들께 장갑을 사드린 후 눈시울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하기도.

외국인스님 · 수녀들 동참

○…보슬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자들은 1시부터 조계사 마당을 가득 메웠다. 사찰환경 침해하는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서명서에 수많은 불자들이 모여 서명했다. '환경수호'란 글자를 새긴 녹색 종이모자를 쓴 안국선원 신도, 수녀장상연합회원 등 23명의 수녀들이 행사장 안의 시선을 모았다. 또한 미국인 현각 스님, 티베트 스님 링 린포체와 자틀 린포체도 우정국로에서 참회정진하는 불자들에게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다.

도로반대 10만인서명서 제출

○…대회는 끝났지만 환경수호운동은 끝날 수 없다. 4일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10만인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을 이어, 5일에는 대한불교청년회와 중앙신도회가 성명서를 발표해 불교계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7일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이 북한산 송추 공사현장 '회룡사 제2선원' 주지소임을 자임하며 북한산 지키기에 뛰어들었다. 22일에는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대회가 열린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本紙연재 '서장 통한 선공부' 매월 모임

"의문 해결, 공부 잘돼요"

2일 토요일,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220호 대학원 강의실은 법을 구하는 불자들의 간절한 눈빛과 마음으로 가득했다.

이날 강의실은 20명 남짓한 인원이면 가득 차 버리는 강의실 크기 탓만은 아닌 듯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밀도의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다. 이날 참석한 25명은 지난해 3월부터 본지에 연재된 '〈서장〉을 통한 선공부'라는 지상강의를 열독하면서 인연이 되어 1~2월 두 달간 겨울 특별법회를 함께 해 온 이들. 이날은 회향법회로 마련되어 더욱 뜻깊었다. '서장'을 연재해 온 김태완 부산대(철학과) 강사를 중심으로 매주 목, 토요일에 열어 온 겨울 특별법회의 회원은 직장, 거리등의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통신회원까지 합쳐 30명 남짓. 이들은 〈서장〉을 비롯 〈원오심요〉 〈금강경〉 〈전심법요〉 〈임제록〉 등에서 뽑은 내용을 교재로 선공부를 해왔다.

경기도 광주에서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참석해 온 선정윤(44)씨는 "현대불교를 통해 〈서장〉 강의를 접한 후 공부를 다시 점검할 수 있었다. 이날 참석한 25명은 지난해 3월부터 본지에 연재된 '〈서장〉을 통한 선공부'라는 지상강의를 열독하면서 인연이 되어 1~2월 두 달간 겨울 특별법회를 함께 해 온 이들. 이날은 회향법회로 마련되어 더욱 뜻깊었다. '서장'을 연재해 온 김태완 부산대(철학과) 강사를 중심으로 매주 목, 토요일에 열어 온 겨울 특별법회의 회원은 직장, 거리등의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통신회원까지 합쳐 30명 남짓. 이들은 〈서장〉을 비롯 〈원오심요〉 〈금강경〉 〈전심법요〉 〈임제록〉 등에서 뽑은 내용을 교재로 선공부를 해왔다.

경기도 광주에서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참석해 온 선정윤(44)씨는 "현대불교를 통해 〈서장〉 강의를 접한 후 공부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내 존재의 근원을 알고자 했던 간절한 발원이 하루가 다르게 구체화되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리산에서 부산까지 달려온 이재하(42)씨는 "그 동안 불교에 대해 품고 있던 의문들이 어록이나 경전을 통해 시원하게 해결됐다"며 "교수님의 도움으로 원전이 알음알이가 아닌 선공부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며 공부모임을 자랑했다.

김태완씨는 이날 강의를 통해 "지금 바로 이 법회시간에 내 존재의 실상으로 살아 보는 것, 그것이 이 법회의 목적이자 의미"라며 말과 생각 이전의 체험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일상의 행위들과 생각들이 선의 작용임을 굳게 믿는 대신심이 공부의 근원"이라고 역설했다. 〈서장〉 연재를 마감하고 3월부터 새롭게 본지에 〈임제록〉을 통한 선공부' 연재를 시작한 김태완씨와 본지 애독자들은 회향법회 후에도 매주 토요일은 부산에서, 첫째·셋째 일요일엔 경기도 광주에서 법회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부산=천미희 기자

새 경북종무원장 혜공스님

태고종, 임시 지방종회서 만장일치 선출

부원장 명진 · 현묵스님

태고종 경북종무원은 4일 종무원 설법전에서 제51회 임시 지방종회를 개최, 혜공 스님(대구 관암사 주지, 사진)을 만장일치로 새 종무원장에 선출했다. 또 부원장에는 명진 스님(칠곡 동명사 주지)과 현묵 스님(군위 오은사 주지)을 선출했다.

혜공 스님은 "종단 사태로 발생한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경북종무원장에 선출돼 어깨가 무겁다"며 "올해는 소년소녀 가장돕기, 청소년 선도사업, 고아원 양로원 방문, 재소자 교화 등 대 사회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회에서는 또 중앙종회의원으로 혜담 스님(대구 보은사 주지)을 선출했다.

이경숙 기자

대승사 요가명상 수련

23일부터 1박2일동안

강원도 횡성 대승사(회주 리선행)는 23~24일 1박2일간 원주시 지정면 찬대리 구 피라밋명상원에서 히말라야 요가 수행자 아슈토쉬 샤르마 초청, 요가명상 수련회를 갖는다.

하타요가 실습위주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에서는 최경훈 원주기독병원장의 '횡경막 호흡의 중요성', 김석진 서강대 교수의 '요가의 개요' 강의도 진행된다. 문의=017-420-2200

김재경 기자

'美 동중부 승가회' 창립

고문 법안, 회장 도범스님

'미국 동중부 승가회' 창립총회가 4일 뉴욕 롱아일랜드 마하선원(주지 서천) 법당에서 각 지역 대표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동안 3차에 걸쳐 논의해온 회칙 제정과 임원진 선출을 안건으로 한 이번 총회에서 고문에 법안스님(뉴욕 원각사), 회장 도범스님(문수사), 부회장 휘광스님(불광선원), 효원스님(상운사), 총무 서천스님(마하선원)이 선출되었고, 재가불자중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장으로 선출된 도범스님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불교가 대중들의 행복한 가정과 평화로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좋은 일을 시작해보자"며 승가의 화합과 협력을 다짐했다.

김재경 기자



◇'미국 동중부 승가회' 창립총회가 4일 뉴욕 마하선원에서 열렸다. 법안스님(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각지역 대표들이 총회후 기념촬영했다. 사진제공='미주 현대불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기도 · 49재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불교의 3대 신앙 지침서

신간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불교 신앙사에 있어 단연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미타신앙!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뿐만이 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 · 오회염불 · 관상염불 · 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성〉
Ⅰ 극락을 여는 미타신앙 Ⅱ 아미타불의 본원
Ⅲ 염불의 공덕 Ⅳ 칭명염불 수행법
Ⅴ 관상염불 수행법 Ⅵ 천도와 미타신앙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 주는 관세음보살.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은 어떠한 분인가?
행복을 보장하는 지장기도 방법은 ?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워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 방법에서부터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4×6판 / 값 3,500원

기 도



총 6장 52편의 다양한 기도성취 영험담으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 · 팩스 : (02) 586-9078

'늦깎이 佛학도' 만학 즐거움 만끽

불교계추천 5인 동국대 불교학부 입학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학문에는 배우는 일, 생각하는 일, 창조하는 일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누구드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값진 삶의 전형이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 있어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지난 4일부터 동국대 불교학부 신입생으로 변신해 학문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늦깎이 불학도'들이 있다. 가정 형편 등의 문제로 대학을 진학할 수 없었던 40 · 50대 만학도 '다섯 도반'이 바로 그들이다. 언뜻 보면 학부형인가 싶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 '02학번' 새내기들이다.

동국대가 올해 처음으로 남다른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자들에게 시험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불교계 추천 전형에 합격한 이대원 · 황춘익 · 이란 · 김진영 · 김병관 씨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 중 최고참은 이대원(59 · 서울시 성동구) 씨. "남은 인생동안 봉사하는 삶의 지혜를 찾고 싶다"는 그는 도반 가운데 가장 활발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MT까지 갔다 왔을 정도다. 그가 대학시험을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8년 30여년의 서울시 공무원생활을 접고 공부를 시작,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해 지난해 동국대에 지원했지만 쓴잔을 마셨다. 그리고 이번 불교계 추천에 합격해 평생소원이었던 학문의 길을 걷게 됐다.

한 때 출가해 수행생활을 하다 군대 후 환속한 김병관(49 · 서울 강동구) 씨는 막내아들과 같은 불교대학에 다니는 '부자 동국인'이다. 집에서는 아버지이지만 학교에서는 아들이 선배(불교학과 4학년)다. 김진영(50 · 서울 강서구) 씨도 '부녀동국인'이다. 유일한 여성인 이란(53 · 경기 시흥시) 씨는 누구보다 신심이 돈독하다. 수년 전부터 〈화엄경〉 등 불교 공부 모임을 이끌어 오고 있는 이 씨는 "부처님을 키우는 도량이니 4년 동안 수행하는 마음으로 공부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들의 포부 또한 각별하다. 입학 후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있는 이대원 씨는 대학원까지 진학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부처님 공부에 진력하겠다고 한다. 경기도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황춘익(54 · 서울 강남구) 씨는 불교양로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꿈이다. 그가 불교대학에 입학한 것도 불교양로원을 운영하기 위한 학문적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몇 권을 저술을 내놓은 김병관 씨의 바람은 불교문인으로 국제포교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4년 전부터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을 정도다.

만학도 다섯 도반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포교 · 봉사 등의 활동으로 동국대 불교학부 특별전형에 합격한 40~50대 늦깎이 불학도들이 스님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있다.

대학원 진학해 남은생 부처님 공부에
정신적 토양 길러,불교양로원 건립 꿈
국제포교 서원…외국어 공부 계속

영아·장애아시설 갖춘 사찰
시설·교사 인건비 등 지원
보건복지부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 사찰을 포함한 종교시설이 영아 · 장애아 보육 등 특수보육전담시설을 설립 또는 운영할 경우, 시설비 교사 인건비 등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발표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보육사업의 민간기능 활성화와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종교시설을 포함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영아 · 장애아 전담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현행 최대 3인까지 전액 지원받던 교사 인건비가 시설 내 모든 교사로 확대되고 시설비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호걸 과장은 "불교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10여 곳의 영아 · 장애아 보육시설은 물론, 100여 곳의 일반보육시설까지 예산지원을 받게 돼 불교계 보육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불교귀농학교 개강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27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제10기 불교귀농학교를 연다.

이번 귀농교육에는 이병철 전 국귀농운동본부장, 유정길 전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강의하는 △왜 귀농인가? △생태위기의 시대, 대안적 삶의 방향 △귀농,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역사 등 총 15 강좌가 5월 22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2회의 현장교육은 남원 실상사 귀농전문학교에서 실시되고, 사회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은 무료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참가비는 7만원. 문의(02)733-1884

강유신 기자

"불공정 재판관 교체"
김태복장군 기피신청

군 법당 건립과 관련해 구속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인 김태복 장군이 불공정한 재판관을 교체해 달라며 재판부에 '재판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8일 열릴 예정이던 3차 심리가 14일로 연기됐다.

김 장군은 법원에 제출한 재판관 기피 신청서를 통해 △박주범 고등군사법원장의 선입관을 앞세운 재판 진행 △공정성 · 객관성 결여 등을 지적하고, "공정한 입장의 군판사와 장성급 재판장이 주도하는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장군은 "박주범 법원장이 학연을 이용해 이번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미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박주범 법원장을 배제한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재심리가 이뤄진다.

박봉영 기자

조계사 불교대학원 15일 개원
교학·수행과정 등 5개 교육과정

조계사가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2년 과정의 불교대학원을 설립, 15일 개원한다.

교학과 수행, 세계불교 등을 연구하는 전문불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조계사 불교대학원은 교학 및 수행과정, 근본경전 강독과정, 불교 지도자 리더십 과정, 세계불교 현황, 공동체 문화와 타종교의 수행 등 모두 5개 교육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방학 중에는 수행실습과 수행도량 탐방, 상담심리학 특강, 불교의식 특강 등의 다양한 강좌를 개최해 이론과 실제를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학자격은 조계종 인가 불교대학 졸업자 및 포교사 자격증 취득자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불자라야 하며,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와 저녁 6시 주 · 야간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02)720-1390

한명우 기자

화계사주변 환경훼손
일주문 인접지역 다세대주택 공사 진행

서울 화계사 일주문과 인접한 곳에 다세대 주택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찰환경 훼손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은 강북구 수유동 502-1번지 지역으로, 원래 산림지역으로 보호돼 오다 지난해 2월 법원 판결에 의해 주택지로 인정된 곳이다.

화계사 혜안스님(재무국장)은 "이 지역은 북한산국립공원 경계지역이라서 사찰 주변 환경은 물론 국립공원까지도 훼손 우려가 있다"며 "산림보호구역으로 관리돼야 할 곳에 주택허가를 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북구청 측은 "법원이 주택지로 인정한 곳이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천안에 불교문화원 세운다
쌍용동에 기공, 중부권 포교 기여 큰 기대

충남 천안에 불교문화원이 건립된다.

한암사(주지 원철)는 천안시 쌍용동에 100여 평의 부지를 마련, 10일 기공식을 갖고 불교문화원 착공에 들어갔다. 천안불교문화원은 불교활동이 미약한 중부권 지역에 문화공간 및 포교거점으로서 지역 포교 및 불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건평 31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되는 불교문화원은, 지하 1층에 4개의 소극장이, 지상에는 법당과 전시실, 식당 등이 들어서게 된다.

4개의 소극장은 모두 1000여 객석을 갖추고 연극, 뮤지컬, 아동 및 청소년극 공연장 외에 음악감상실, 명사특강 등 다양한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천안에는 11개의 연극영화 관련 대학과 함께, 10여 개가 넘는 중 · 고등학교가 있어, 문화공간 제공을 통한 학생 포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원은 실직자 및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결식아동을 후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화엄사 선등선원 낙성
31일…216평 규모, 선방 · 지대방 등 갖춰

조계종 19교구 본사 화엄사(주지 종걸)는 31일 각황전에서 선등선원 낙성식 및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선등선원은 1천여평의 대지에 216평의 규모로 건립됐으며, 선방과 지대방, 선덕실 등을 갖췄다.

선등선원 불사는 임진왜란 당시 소실된 이후 터만 남아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현 주지 종걸스님이 원력을 세워 2000년 1월 착공, 2년 2개월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화엄사는 400여년만의 선원 복원을 계기로 선교를 아우르는 종찰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화엄사는 544년 건립된 이후 율종의 조사 자장율사와 화엄의 종조 원효스님, 선종의 도선국사 등이 주석하는 등 한국불교 중심사찰의 면모를 보여왔다.

박봉영 기자

"사찰운영전략 현대화 시급하다"
정웅기씨 워크숍서 주장

신도가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찰은 21세기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진다.

4일 개최된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이하 재가연대) '사찰진단 방법론 정립'을 위한 1차 워크숍에서 정웅기(불교아카데미 사무국장) 씨는 발제문을 통해 "신도의 성향에 따른 다양한 종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확한 사찰운영 진단방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찰 운영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 마련이 시급하고 첨단 기업경영 진단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박수호 연구원(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은 "사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도수, 재정현황 등에 대한 투명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가연대의 워크숍은 10월 7일까지 매달 개최돼 △사무조직 · 정보화 △재정 · 지역환경 △신도조직과 교육 등 경영자원분석 과정과 불교계의 지역활동과 일상업무를 분석하는 활동분석과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강유신 기자

'정보사회 불교대응' 주제
11월까지 포럼 8회 개최

현대불교사회문화원(원장 중원)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의 대응'을 주제로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한다. 불교계의 정보화 현실과 다양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것.

첫 포럼은 21일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교육실에서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적 해석'을 주제로 진행된다. 중앙승가대 유승무(포교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포럼에서는 중앙승가대 김응철(포교사회학과) 교수가 기조 발제하고, 조계종 포교원 김판동 포교주임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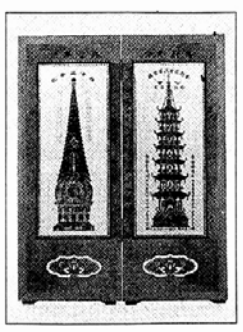
박봉영 기자

"집안의 어느장소이든 펼쳐만 놓으시면 그앞이 법력(法力)과 법기(法氣)로 충만된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되는……

관음(觀音)병풍 과 불탑(佛塔)다라니병풍

▣ 관 음 병 풍 ▣ 불탑다라니병풍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 보급가 : ₩1,300,000(한품당)
<신용카드할부구입가능)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립니다.

특 징

① 집안내의 어는 장소이든 구애 받음이 없이 펼쳐 놓을수 있으며, 어느공간이든 본 병품을 펼쳐 놓으면, 그곳이 법력과 법기로 가득찬 영험스러운 기도처가 됩니다.
②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 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백의관세음 보살님은 황동판위에 모시어 훼손 될 염려가 전혀 없으며, 불탑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보문품경은 황동 판위에 양각으로 새겨서 금도금을 한후 표면에 특수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으며 먼지등이 묻었을때에는 고운 융걸레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불자 집안의 가보로서 대대손손 물려주실수 있는 성품(聖品)입니다

⊙ 카다로그를 보실때보다 본 병풍을 직접보신 불자님들은 모든분이 한결같이 환희심을 내시어 집안에 모셔가겠다고 마음을 내실 정도의 성품이므로 본회에서도 직접보여드릴방법을 강구하고 있아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병풍과 불탑다라니 병풍은 그효험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연따라 마음에 닿는 한 병풍만 택하시면 됩니다.
⊙ 현재 큰스님방에 펼쳐놓으시도록 시주하시는 신도분들도 계시고 본인의 집과 분가한 자녀들의 집에 한품씩 놔 주시는 불자님도 계십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경포호반에 한폭 '세한도'로 남은 두 古刹

강릉 길은 언제나 즐겁다. 해발 865m의 대관령을 넘는 적당한 긴장감과 어둠을 헤치고 성긋 솟는 검붉은 일출과 마주치는 설레임은 일탈의 짜릿함을 맛보게 한다. 경주나 부여같은 왕도(王都)가 아니면서도 수많은 문화유적과 독특한 '지방문화'를 보듬어온 강릉은 만월(滿月) 그윽한 경포호반 등 빼어난 관동 제일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조선의 자성인 사임당 모자와 만고의 연인 허난설헌 같은 정인들의 체취가 서려 있기에 언제 찾아가도 속도조절이 안된다.

강릉은 고대국가인 예(濊)로부터 시작하여, 고조선의 영토가 되었다가, 한사군 시기에는 임둔군이 설치되었고, 다시 고구려시기에는 하슬라라 불렸으며, 세력 다툼 끝에 신라의 영토가 된 이후에는 명주(溟州)로 개칭되었다.

의 5대손인 김주원이 명주군왕으로 봉해져 강릉 김씨의 시조가 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김주원은 선덕여왕의 뒤를 잇는 왕권 다툼에서 김경신(원성왕)에게 패해 명주로 밀려난 후 통치권 차원에서 명주군왕으로 봉해졌으며, 보현사, 한송사, 굴산사,신복사 같은 사찰들의 창건을 적극 지원하여 독자적인 정치 및 종교세력을 구축했다. 특히 김주원의 후손으로 이 지역에서 크게 세력을 떨쳤던 호족 왕순식은 후삼국 제국들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했던 인물로, 왕건을 도와 후백제의 신검군대를 격파하여 고려의 건국에 기여하면서 실질적인 명주의 주인 노릇을 했다.



◇신복사 터 경내에 보존된 삼층석탑(보물 제87호)과 석불좌상(보물 제84호). 탑을 향해 공양하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보살좌상의 모습이 매우 정겨우며, 이례적으로 머리위에는 팔각의 지붕돌을 얹어 눈비를 가리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폐사지를 찾아서

장지현의 **잊혀진가람 탐험**

강릉 한송사 · 신복사 터





◇한송사터에서 출토된 석조보살좌상(국보 제124호). 드물게 흰 대리석으로 조각되었다.

한송사 한때 200칸 규모…대리석 보살좌상 출토

신복사 선종 사굴산문 명찰·유물엔 보살 悲願이

강릉, 명주 지역에 왕도에 버금가는 불교문화가 깃들었던 배경에는 이렇듯 신라 왕손들이 건설한 '강원왕국'이 있었으며, 강릉의 지방문화는 곧 '강원왕국'의 불교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릉시내에는 대창리나 수문리 당간지주처럼 뚜렷한 사지의 흔적은 있으나 사명(寺名)도 사격(寺格)도 짐작할 수 없는 절터들이 더러 있다. '강원 왕국'에 의해 크게 선풍을 떨치며, 고려 건국에 사상적 주초가 되었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호족들의 근거지를 없애는 폐찰정책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난 가람들이 있으니, 한송사, 신복사, 굴산사 같은 절들이 그렇게 희생된 절이다.

한송사(寒松寺)는 남항진 버스 종점 옆 우거진 송림속에 지금도 풍상을 추수리며 세한도(歲寒圖)처럼 걸려있는 폐사다. 절 입구 안내문에 아직도 한송사지가 아닌 한송사라는 절 이름이 그대로 적힌 것은 아마도 옹색한 암자 하나가 한송사 빈터에 슬며시 세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인없는 한송사지에 세 들어 있는 것은 비단 움막같은 암자만이 아니라 굴뚝새와 청설모 같은 것도 무단으로 입주해 있다. 폐사지도 한송사쯤 되면 경포 호반의 한폭 세한도가 되어 오가는 일월의 소매를 잡아 당길 것이다.

한송사의 창건과 폐사 연대는 정확치 않으나 문수와 보현에 얽힌 설화가 해풍에 바래 오늘에 전한다. 지혜의 보살인 문수와 자비의 상징인 보현이 현속을 떠나 남섬부주의 인연있는 교화처를 찾아 떠돌다가 사선(四仙)이 노니는 해동의 이곳 남항진에 당도하여 한송사를 지었는데, '한 절에 두 보살이 있을 수 없다' 하여 보현보살이 활을 쏘아 떨어지는 곳에 절을 짓고 떠나니, 그 절이 곧 대공산성 밑의 보현사라는 것이다.



◇한송사터에서 출토된 기왓장과 돌조각을 봉분처럼 쌓아올렸다.

조선시대 이곡이 지은 동유기(東遊記)에는 이 절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두 석상이 있었고, 절터 동쪽에는 4기의 비석과 귀부 등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전성기에는 200여칸에 이르는 대찰이었다는 구전도 전한다.

폐사지에도 봄은 움트는가. 무너져 가는 건물 한 켠에 출토된 기왓장과 돌조각을 선사시대 조개무지처럼 쌓아올린 봉분에 솔숲을 뚫고 내린 햇살이 유난히 맑아 보인다. 정체 모를 짐승들의 발자국이 찍힌 오솔길 주변에도 겨울의 끝자락을 비집고 나온 버들강아지들이 토실토실 살이 붙었다.

한송사 터에서는 두 점의 귀중한 문화재가 출토되었다. 하나는 보물 제81호로 오죽헌 내 강릉 향토사료관에 보관되어 있는 한송사터 석불상이며, 또 한점은 국보 제124호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송사터 석조보살좌상이다. 이 두 보살상은 서로 짝을 이루는 것으로 지금은 떨어져 각기 사료관과 박물관에 전시물로 나앉은 신세이지만 한때는 신심 깊은 불제자들에 의해 조석으로 등촉 공양을 받던 복 많은 성보였다.

이 가운데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석조보살좌상은 1912년 일본인 화전웅치가 일본으로 밀반출한 것을 1965년 6월 한일협정에 따라 5월 돌려 받은것으로 수난의 민족사와 함께 영욕의 세월을 보낸 소중한 문화재다. 또한 이 석조보살좌상은 여타의 석불상들이 화강암으로 조성된 데 비해 특이하게 대리석으로 조각되어 한층 우아하고 온화한 기품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려시대의 대표적 불상으로 주목된다.



◇신복사터 석조보살좌상의 정면 모습.

내곡교 건너 동해고속도로 교각 밑 앞으막한 야산에 깃들어 있는 신복사(神福寺) 터는 새둥지처럼 깔끔하고 안온함이 느껴지는 절터이다. 누군가 제대로 돌보는 듯 잘 다듬어진 잔디와 무궁화 울타리에도 바야흐로 윤기가 돌기 시작한다. 청대 숲과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흰칠한 소나무들이 이중삼중으로 후불탱화의 봉보살처럼 둘러선 신복사 터는 이곳이 중생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불도량이었다기 보다 동승(童僧)과 산짐승들이 어울려 뛰놀던 뒷동산처럼 부담을 주지 않는다. 절터로 오르는 산길 옆에는 사임당 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신복사 당대에도 어쩌면 댕기머리 동네 아이들과 동자승들이 모여 제기차기를 하며 놀았을지도 모른다. 폐사지도 신복사쯤 되면 극락조 가르빙가가 날아들어 한번쯤 미륵 세상을 품었다가 날아갈 일이다.

신복사는 통일신라 문성왕 12년(850) 범일국사(梵日, 810~889)가 창건하였다. 범일국사는 명주 출신으로 고향인 이곳에 굴산사(847)와 신복사를 연이어 창건하여 신라 선종의 최대 산문인 굴산사파를 일으켰으며, 입멸 후에는 대관령의 서낭신이 되어 강릉 일대에서는 신격화된 존재이다. 그는 헌강왕, 경문왕, 정강왕 등이 차례로 국사로 모시고자 청하였으나, 모두 마다하고 40여 년 간 이곳 명주일대에 머물며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으니, 보현사를 창건한 낭원대사(835~930)도 그의 문하에서 공부한 제자였다.

신복사 터에는 볼수록 정겨움을 느끼게 하는 예사롭지 않은 유물 두 점이 다감하게 남아있다.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보물 87호인 삼층석탑과 그 탑을 향해 공양하고 있는 모습의 보물 제 84호 석불좌상이 그것이다. 왼쪽 무릎을 세운 채 석탑을 향해 꿇어앉은 석불좌상의 얼굴은 부드럽고 복스러우며 입술은 꼭 다물었으나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있다.

출세간을 떠난 불보살이 시공을 넘어 석탑을 향해 공양하려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영원히 멈추어서 안될 그 공양은 수인(手印)으로 상징한 그것이었을까. 오로지 바라느니 삼한의 통일이었다면 또 다시 국토가 양분된 지금도 보살의 비원은 차라리 돌이 된 채 계속되는 것일까. 신복사터 석불이 다른 석불들과 다른 점은 머리 위에 지붕돌로 얹은 보관이 이례적으로 팔각의 형태를 띈 까닭도 있지만 가슴까지 끌어올린 단정한 지권(智拳)과 석탑을 향해 바라보는 눈길이 너무나도 반듯한 것이다.

불상의 머리 위에 지붕돌을 얹는 양식은 눈이나 비로부터 불상의 손상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는 고려시대에 와서 크게 유행했던 것으로 논산 관촉사나 부여 대조사의 석조보살이 사각 지붕돌을 얹은데 반해 신복사 터 석보살상은 팔각돌을 얹어 단순한 듯 하면서도 형법 속에 함몰되지 않는 관동인들의 소박하고 섬세한 불심을 엿보는 것 같다.

강릉의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백사장의 조약돌처럼 세월의 몸결이 수없이 갈고 닦아 이루워낸 것이다. 얼마나 강릉 길을 더 찾아야 마음의 얼룩이 다 빠질 것인가. 업력에 끌리듯 귀로를 재촉하는 대관령 마루턱에는 꽃샘바람에 해산을 미루려는 산동백의 산기(産氣)가 눈부시다.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명주 학산리 굴산사 터 편

민족사 전화:(02)732-2403~4 팩스:(02)739-7565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왕초보, 불교 박사 되다



석지현 · 일지 · 윤창화 지음 ▌4×6판 양장 ▌320쪽 ▌값 6,800원

신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불교에 대한 상식과 예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절에 가서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엔 초보였습니다

이 책은 우리 불교신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만 모아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썼습니다
예컨대 "여성신도를 왜 보살님이라고 부릅니까" "주지스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극락과 지옥은 정말 있습니까" 등등 150가지입니다

법보시 주문 받습니다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 · 석지현 엮음 ▌4×6판 양장 ▌180쪽 ▌값 6,000원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불교의 여러 경전 가운데 실려있는
주옥 같은 부처님 말씀을 가려 뽑은 것입니다.

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법보시 주문 받습니다